

조선어

외국인 학교 중등반용

교육도서출판사

1988



Y/S/201 (1)

조선어

외국인학교 중등반용

교육도서출판사
1988

Zakład Dalekiego Wschodu
Instytut Orientalistyczny UW

1368 KOREAN

차례

글자와 그 발음

1. 글자의 차례와 이름.....	3
2. 자음글자쓰기	4
3. 모음글자쓰기	5
4. 받침없는 글자의 쓰기와 발음.....	6
5. 받침있는 글자의 쓰기와 발음.....	7

기초문장편

제1과. 이것은 학습장입니다.....	9
제2과. 나는 학생입니다.....	11
제3과. 날씨가 좋습니다.....	15
제4과. 동생은 화보를 봅니다.....	19
제5과. 나는 학교에 갑니다.....	21
제6과. 동생은 종이로 배를 만듭니다.....	23
제7과. 나는 방을 청소하였습니다.....	25
제8과. 숙제를 합니다.....	29
제9과. 박동무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1
제10과. 방안에 책상과 책장이 있습니다.....	33
제11과. 금회는 몇살입니까?.....	35
제12과. 오늘은 며칠입니까?.....	39
제13과. 지금 몇시입니까?.....	41
제14과. 우리는 큰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44
제15과. 우리는 부러운것이 없습니다.....	46
제16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49
제17과.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툇구를 하였습니다.....	54
제18과. 최동무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58
제19과. 꾸준히 공부하여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61
제20과. 나는 박동무에게 동물원에 가겠다는가고 물었습니다.....	63

회 화 편

제1과. 기숙사에서	69
제2과. 식당에서	78
제3과. 교실에서	84
제4과. 도서관에서	91
제5과. 거리에서	98
제6과. 상점에서	105
제7과. 병원에서	109
제8과. 우편국에서	116
제9과. 사진관에서	122
제10과. 극장과 영화관에서	126
제11과. 체육관과 경기장에서	133
제12과. 정거장과 비행장에서	139

본 문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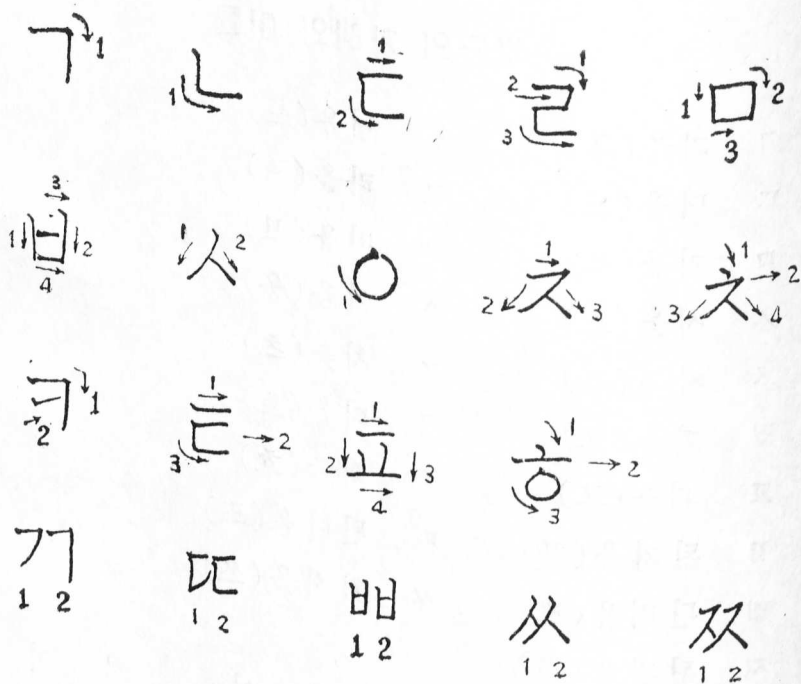
제1과. 조선	146
제2과. 장군님과 소년들	150
제3과. 혁명의 수도 평양	156
제4과. 조선의 네철	160
제5과. 기쁨	165
제6과. 영웅의 어머니를 찾으시여	168
제7과. 행복한 가정	174
제8과. 심장의 나팔소리	179
제9과. 대성산유원지	183
제10과. 영광의 땅 회령을 찾아서	188
제11과. 의좋은 형제	193
제12과. 선경으로 꽃피는 땅	197
제13과. 미제를 천백배 복수하리라 !	203
제14과. 《조선은 나의 제2조국》	208
제15과. 조선은 하나다	213

글자와 그 발음

1. 글자의 차례와 이름

ㄱ	기읍(古)	ㄴ	니은(尼)				
ㄷ	디읍(底)	ㄹ	리을(里)				
ㅁ	미읍(母)	ㅂ	비읍(比)				
ㅅ	시읏(斯)	ㅇ	이응(應)				
ㅈ	지읏(止)	ㅊ	치읓(止)				
ㅋ	키읍(可)	ㅌ	티을(底)				
ㅍ	피읍(皮)	ㅎ	히읍(呼)				
ㅇ	된기읍(丑)	ㅍ	된디읍(底)				
ㅃ	된비읍(比)	ㅆ	된시읏(斯)				
ㅆ	된지읏(止)						
ㅏ	아	ㅑ	야	ㅓ	어	ㅕ	여
ㅗ	오	ㅛ	요	ㅜ	우	ㅠ	유
ㅜ	으	ㅣ	이	ㅞ	애	ㅝ	애
ㅚ	에	ㅜ	예	ㅟ	외	ㅠ	위
ㅓ	의	ㅑ	와	ㅢ	위	ㅤ	왜
ㅕ	웨						

2. 자음글자쓰기



3. 모음글자쓰기

ㅏ → 2

ㅑ → 2
→ 3

ㅓ ↓ 2

ㅕ ↓ 2
→ 3

ㅗ ↓ 1
→ 2

ㅛ ↓ 1
→ 2
→ 3

ㅜ ↓ 1
↓ 2

ㅠ ↓ 2
↓ 3

ㅡ → 1

ㅣ ↓ 1

ㅛ ↓ 2
↓ 3

ㅜ ↓ 2
↓ 4
→ 3

ㅠ ↓ 1
↓ 2
↓ 3

ㅑ ↓ 1
↓ 3
↓ 4
→ 2

ㅓ ↓ 1
↓ 2
↓ 3

ㅑ ↓ 1
↓ 2
↓ 3

ㅓ ↓ 1
↓ 2

ㅓ ↓ 1
↓ 2
↓ 3
↓ 4
↓ 2

ㅓ ↓ 1
↓ 2
↓ 3
↓ 4
↓ 5

ㅓ ↓ 1
↓ 2
↓ 3
↓ 4
↓ 5

4. 받침없는 글자의 쓰기와 발음

1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
나냐너녀노뇨누뉴느니
다닥더덕도도두듀드디
라랴러려로료루류르리
마먀머며모묘무뮤므미
바뵤버벼보뵤부뷰브비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
자쟈저져조쵸주쥬즈지
차차처처초쇼추츄츠치
카카커커코교쿠큐크키
타타터터토토투튜트티
파파퍼퍼포표푸퓨프피
하햐허허호효후휴흐히

2

- (1) 저고리, 고기, 지도, 바다, 나비, 아버지, 라지오
- (2) 까치, 토끼, 띠, 뼈, 뼈꾸기, 씨, 샥뜨
- (3) 배, 해, 베개, 계, 폐, 시계, 쇠, 우뢰, 위, 귀,
쥐, 의사, 무늬, 과자, 교과서, 화보, 돼지, 꿩

5. 받침있는 글자의 쓰기와 발음

1

ㅂ 집, 집이
ㅃ 앞, 앞이
ㅄ 넓습니다, 넓어
ㅅ 읊습니다, 읊어
ㅇ 없습니다, 없어

2

ㅁ 밤, 밤이
ㅂ 짧습니다, 짧어

3

ㅂ 받습니다, 받아
ㅃ 빛, 빛이
ㅄ 찾습니다, 찾아
ㅅ 꽃, 꽃이
ㅇ 발, 발에
ㅎ 좋습니다, 좋아
ㅈ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4

ㄴ 산, 산이
ㅂ 앉습니다, 앉았습니다
ㅄ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ㄹ 물, 물을

ㄹ 뚫, 뚫을

ㄹ 왔 습니다, 왔 았 습니다

ㄹ 았 습니다, 았 았 습니다

6

ㄱ 책, 책이

ㅋ 부엌, 부엌이

ㄲ 밖, 밖이

ㄲ 냇, 냇이

ㄴ 닭, 닭이

7

ㅇ 강, 강이



기초문장편

제1과. 이것은 학습장입니다

1

이것은 학습장입니다.
그것은 교과서입니다
저것은 신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이것은) 책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방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그것은) 창문입니다.

2

이것은 화보입니까?
예, 그것은(이것은) 화보입니다.
그것은 만년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원주필입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 《은》 이것은
- 《입니다》 학습장입니다
- 《입니까》 신문입니까
- 이것—그것—저것

△ 알아두십시오.

- 이것은=이건
- 그것은=그건
- 저것은=저건
- 교과서입니다=교과서입니다
- 무엇입니까=뭇입니까, 뭇니까
- 화보입니까=화보니까

△ 련 습

1) 다음의 단어들을 포함하여 《이것(그것, 저것)은 ...입니다》라는 문장을 지으십시오.

철판, 철판지우개, 분필, 지시봉, 교탁, 출석부, 분필통, 책상, 결상, 창문, 문, 벽, 전등, 학습장, 교과서, 만년필, 원주필, 연필, 종이, 지우개, 자, 손칼, 필갑, 가방

2) 다음의 물음에 긍정적으로 대답하십시오.

- (1) 이것은 철판입니까?
- (2) 이것은 분필입니까?
- (3) 이것은 철판지우개입니까?
- (4) 이것은 교탁입니까?
- (5) 이것은 분필통입니까?
- (6) 그것은 책상입니까?
- (7) 그것은 결상입니까?

- (8) 그것은 가방입니까?
- (9) 그것은 학습장입니까?
- (10) 그것은 원주필입니까?
- (11) 저것은 창문입니까?
- (12) 저것은 문입니까?
- (13) 저것은 벽입니까?
- (14) 저것은 전등입니까?

3) 괄호안의 단어를 리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바르게 대답하십시오.

- (1) 이것은 벽입니까? (칠판)
- (2) 이것은 연필입니까? (분필)
- (3) 이것은 학습장입니까? (출석부)
- (4) 이것은 필갑입니까? (분필통)
- (5) 그것은 교과서입니까? (학습장)
- (6) 그것은 분필입니까? (연필)
- (7) 그것은 분필통입니까? (필갑)
- (8) 그것은 지시봉입니까? (자)
- (9) 저것은 문입니까? (창문)
- (10) 저것은 칠판입니까? (벽)
- (11) 저것은 창문입니까? (문)

제2과. 나는 학생입니다

1

나(저)는 학생입니다.

이 동무도 학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학생입니다.

저 동무는 누구입니까?

우리 형님입니다.

저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이는 동무의 동생입니까?

예, 나(저)의 동생입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는/은》 나는, 저분은

《도》 동무도

《의》 나의

《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이—그—저

나—저

△ 알아두십시오.

누구입니까=누굽니까

누구이십니까=누구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아버지십니다

아이=애

나의=내, 저의=제

△ 련 습

1) 다음의 단어들을 포함하여 《이 동무는 ...입니다》라는 문장을 지으십시오.

학생, 고등중학교 학생, 대학생, 기사, 의사, 기자, 통역원, 운전수, 배우, 체육선수, 로동자, 농장원, 안전원, 군인, 탄

부, 광부, 간호원, 재단사, 선반공, 차장, 판매원, 안내원, 열차원, 접대원, 수리공, 전공, 서기판

2) 위의 단어들을 포함하여 《이 동무는 ...입니까?》라는 문장을 지으십시오.

3) 빈자리에 《는/은, 입니다, 이니까》중에서 알맞는것을 넣으십시오.

- (1) 우리○ 학생○○○.
- (2) 나○ 고등중학교 학생○○○.
- (3) 동무○ 학생○○○?
- (4) 이 동무○ 대학생○○○.
- (5) 저 사람○ 누구○○○?
- (6) 저 동무○ 농장원○○○?
- (7) 그 동무○ 로동자○○○.
- (8) 이 동무○ 기자○○○.
- (9) 동무○ 체육선수○○○?

4) 빈자리에 《는/은》과 《의》중에서 알맞는것을 넣으십시오.

- (1) 이것○ 무엇입니까?
- (2) 이것○ 나○ 연필입니다.
- (3) 그것○ 동무○ 학습장입니까?
- (4) 나○ 이름○ 리충성입니다.
- (5) 이 동무○ 이름○ 무엇입니까?
- (6) 우리 형님○ 이름○ 리은덕입니다.
- (7) 이것○ 누구○ 가방입니까?
- (8) 저것○ 박동무○ 만년필입니까?
- (9) 이 아이○ 동무○ 동생입니까?
- (10) 그 아이○ 이름○ 무엇입니까?

5) 《입니다, 입니까, 이십니까, 이십니까》중에서 알맞는것을 문장의 끝단어에 붙이십시오.

- (1) 이 동무는 고등중학교 학생….
- (2) 그것은 나의 연필….
- (3) 이것은 동무의 가방… ?
- (4) 저분은 우리 아버지….
- (5) 그 아이는 누구… ?
- (6) 이 아이는 박동무의 동생….
- (7) 이 동무는 누구… ?
- (8) 이 동무는 동무의 형님… ?
- (9) 이분은 최동무의 할아버지….
- (10) 저분은 우리 선생님….
- (11) 박동무는 대학생… ?
- (12) 그 동무는 기사….
- (13) 박동무의 형님은 의사… ?
- (14) 우리 아버지는 로동자….
- (15) 우리 형님은 안전원….
- (16) 최동무의 동생은 대학생… ?
- (17) 최동무의 형님은 군인….
- (18) 동무의 언니는 간호원… ?
- (19) 그 동무의 오빠는 농장원….
- (20) 박동무의 어머니는 재단사….

6) 《우리는》과 《우리》중에서 알맞는것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이분은 … 선생님이십니다.
- (2) … 고등중학교 학생입니다.
- (3) 이것은 … 교실입니다.

(4) 저것은 ... 학교입니다.

(5) ... 어머니는 의사이십니다.

(6) ... 소년단원입니다.

(7) ... 사로청원입니다.

7) 다음 문장에 있는 일부 토를 《도》로 바꾸십시오.

(1) 나는 학생입니다.

(2) 이 동무는 고등중학교 학생입니까?

(3) 저 동무는 대학생입니까?

(4) 우리 누님은 간호원입니다.

(5) 이것은 나의 학습장입니다.

(6) 그것은 박동무의 책입니다.

제3과. 날씨가 춥습니다

1

날씨가 춥습니다.

귀가 시립니다.

바람이 불니까?

예, 불니다.

무엇이 떨어집니까?

나무잎이 떨어집니다.

2

형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버지도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누가 말합니까?
 형님이 말합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십니까.
 누가 웃습니까?
 동생들이 웃습니다.
 어머니도 웃으십니까.

△ 익혀야 할 토

《가/이》 날씨가, 바람이
 《바니다/습니다》 시립니다, 춤습니다.
 《바니까/습니까》 떨어집니까, 있습니까.
 《십니까/으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웃으십니까.
 《들》 동생들이

△ 알아두십시오.

있다—계시다
 말하다—말씀하시다
 자다—주무시다
 먹다—잡수시다
 주다—드리다

△ 련 습

- 1) 토 《가/이》를 빈자리에 넣으십시오.
- | | | | |
|---------|----------|--------|---------|
| (1) 날씨가 | ○ 춤습니다. | (5) 손 | ○ 시립니다. |
| (2) 바람 | ○ 불니다. | (6) 밭 | ○ 시립니다. |
| (3) 나무앞 | ○ 떨어집니다. | (7) 얼굴 | ○ 시립니다. |
| (4) 귀 | ○ 시립니다. | (8) 오빠 | ○ 말합니다. |

- (9) 형님○ 말합니다. (11) 언니○ 웃습니다.
 (10) 박동무○ 웃습니다. (12) 동생○ 웃습니다.

2) 다음 문장에서 토만 뽑아서 따로 쓰십시오.

- | | |
|-----------------|-----------------|
| (1) 날씨가 춥습니다. | (14) 강이 짧습니다. |
| (2) 날씨가 따뜻합니다. | (15) 책상이 큼니다. |
| (3) 날씨가 무덥습니다. | (16) 책상이 작습니다. |
| (4) 날씨가 서늘합니다. | (17) 길상이 많습니다. |
| (5) 방이 넓습니다. | (18) 길상이 적습니다. |
| (6) 방이 좁습니다. | (19) 산이 높습니다. |
| (7) 방이 깨끗합니다. | (20) 산이 낮습니다. |
| (8) 방이 어지럽습니다. | (21) 몸이 튼튼합니다. |
| (9) 호수가 깊습니다. | (22) 몸이 약합니다. |
| (10) 호수가 얕습니다. | (23) 복도가 밝습니다. |
| (11) 종이가 두텁습니다. | (24) 복도가 어둡습니다. |
| (12) 종이가 얇습니다. | (25) 색깔이 곱습니다. |
| (13) 강이 깊니다. | (26) 색깔이 밍습니다. |

3) 괄호안의 단어에 토 《비니다/습니다》를 붙이십시오.

- | | |
|-----------------|---------------|
| (1) 나무잎이 (떨어지다) | (6) 불이 (붙다) |
| (2) 비가 (오다) | (7) 강이 (흐르다) |
| (3) 해가 (비치다) | (8) 바람이 (불다) |
| (4) 꽃이 (피다) | (9) 물이 (얼다) |
| (5) 눈이 (녹다) | (10) 아기가 (놀다) |

4) 괄호안의 단어에 토 《비니까/습니까》를 붙이십시오.

- | | |
|--------------|--------------|
| (1) 바람이 (불다) | (5) 아기가 (울다) |
| (2) 비가 (오다) | (6) 날씨가 (춥다) |
| (3) 눈이 (녹다) | (7) 교실이 (넓다) |
| (4) 해가 (비치다) | (8) 물이 (깊다) |

(9) 강이 (길다)

(11) 산이 (높다)

(10) 학습장이 (크다)

(12) 거리가 (아름답다)

5) 괄호안의 단어에 토 《십시오/으십시오》를 붙이십시오.

(1) 선생님이 (오다)

(2) 어머니가 (옷다)

(3) 아버지가 (떠나다)

6) 괄호안의 단어에 토 《십니까/으십니까》를 붙이십시오.

(1) 할아버지가 (오다)

(2) 할머니가 (옷다)

(3) 선생님이 (떠나다)

7) 괄호안에 있는 두 단어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십시오.

(1) 박동무가 (웃습니다, 웃으십니다)

(2) 동생이 (옵니다, 오십니다)

(3) 선생님이 (갑니다, 가십니다)

(4) 할아버지가 (옵니다, 오십니다)

(5) 학생이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6) 할머니가 (있습니다, 계십니다)

(7) 아버지가 (잡니다, 주무십니다)

(8) 영희가 (먹습니다, 잡수십니다)

8) 토 《들》을 알맞는 자리에 넣으십시오.

(1) 학생이 공부합니다.

(2) 선생님이 오십니다.

(3) 교실이 깨끗합니다.

(4) 거리가 아름답습니다.

제4과. 동생은 화보를 봅니다

1

동생은 화보를 봅니다.
오빠는 텔레비존을 봅니다.
언니는 무엇을 합니까?
소설을 읽습니다.

2

동무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박동무를 기다립니다.
동무도 박동무를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나는 동생들을 기다립니다.

△ 익혀야 할 토

《는/은》 오빠는, 동생은
《를/을》 화보를, 소설을

△ 알아두십시오.

무엇을=뭇을=뭘

△ 련 습

1) 빈자리에 토 《는/은》을 넣으십시오.

- (1) 동생○ 화보를 봅니다.
- (2) 명희○ 그림책을 봅니다.
- (3) 오빠○ 텔레비존을 봅니다.
- (4) 나○ 박동무를 기다립니다.
- (5) 형님○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 (6) 이 학생○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 (7) 최동무○ 소설을 읽습니다.

(8) 누님○ 잡지를 읽습니다.

2) 빈자리에 토 《를/을》을 넣으십시오.

- | | |
|----------------|------------------|
| (1) 화보○ 봅니다. | (7) 박동무○ 기다립니다. |
| (2) 그림○ 봅니다. | (8) 동생○ 기다립니다. |
| (3) 텔레비죤○ 봅니다. | (9) 오빠○ 기다립니다. |
| (4) 소설○ 읽습니다. | (10) 어머니○ 기다립니다. |
| (5) 교과서○ 읽습니다. | (11) 형님○ 기다립니다. |
| (6) 신문○ 읽습니다. | |

3) 괄호안의 단어에 토 《를/을》을 붙여 문장속에 넣으십시오.

- | | |
|--------------------|--------------------------|
| (1) ... 팝니다 (땅) | (14) ... 쏘니다 (총) |
| (2) ... 빨니다 (옷) | (15) ... 덮습니다 (뚜껑) |
| (3) ... 맵니다 (종이) | (16) ... 꺾습니다 (나무가지) |
| (4) ... 감습니다 (눈) | (17) ... 달습니다 (문) |
| (5) ... 벌립니다 (입) | (18) ... 엽니다 (창문) |
| (6) ... 입습니다 (옷) | (19) ... 씹습니다 (껌) |
| (7) ... 신습니다 (신) | (20) ... 짍니다 (주단) |
| (8) ... 씹니다 (모자) | (21) ... 꺾니다 (옷) |
| (9) ... 벗습니다 (외투) | (22) 프락또르가 ... 갑니다 (발) |
| (10) ... 벗습니다 (양말) | (23) 어머니가 ... 안으십니다(아이) |
| (11) ... 꺾니다 (장갑) | (24) 로동자들이 ... 짍니다 (철탄) |
| (12) ... 랍니다 (빠스) | (25) 할아버지가 ... 끼십니다 (안경) |
| (13) ... 쌓습니다 (벽돌) | |

제5과. 나는 학교에 갑니다

1

나는 학교에 갑니다.
학교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최동무는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옆에 있습니다.

2

박동무는 어디에서 일합니까?
공장에서 일합니다.
박동무는 언제 공장에서 돌아옵니까?
저녁에 돌아옵니다.

△ 익혀야 할 토

《에》 학교에 《에서》 공장에서

△ 알아두십시오.

어디에 갑니까 = 어데 갑니까

△ 련 습

1) 빈자리에 《는/은》 또는 《에》를 넣으십시오.

- (1) 동무○ 어디○ 갑니까?
- (2) 학교○ 갑니다.
- (3) 저 동무○ 체육관○ 갑니다.
- (4) 어머니○ 상점○ 가십니다.
- (5) 극장○ 갑니까?

- (6) 식당○ 갑니다.
- (7) 백화점○ 어디○ 있습니까?
- (8) 려관○ 역앞○ 있습니까?
- (9) 식료품상점○ 공원옆○ 있습니다.
- (10) 공업품상점○ 학교뒤○ 있습니다.
- (11) 민수동무○ 저녁○ 돌아옵니다.
- (12) 동무○ 오후○ 돌아옵니까?

2) 토 《는/은》, 《에서》를 쓰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우리 형님… 농장… 일합니다.
- (2) 동무의 아버지… 어디… 일하십니까?
- (3) 공장… 우리 집… 멀니다.
- (4) 인민대학습당… 우리 집… 가깝습니다.

3) 토 《에》와 《에서》중에서 알맞는것을 넣으십시오.

- (1) 주체사상탑은 대동강기슭… 있습니다.
- (2) 조선혁명박물관은 만수대언덕우… 있습니다.
- (3) 인민문화궁전은 어디… 있습니까?
- (4) 인민문화궁전은 천리마거리… 있습니다.
- (5) 형님은 공장… 일합니다.
- (6) 동무는 학교… 갑니까?
- (7) 우리는 도서관… 갑니다.
- (8) 오빠는 옷방… 공부합니다.
- (9) 우리 어머니는 이 병원… 일하십니다.
- (10) 선생님이 교실… 들어가십니다.
- (11) 선생님이 교실… 나오십니다.
- (12) 박동무는 경기장… 갑니다.
- (13) 방안… 옷장이 있습니다.
- (14) 책상우… 신문이 있습니다.

- (15) 신문밑... 잡지가 있습니다.
- (16) 농장원들이 밭... 일합니다.
- (17) 학생들이 교실... 공부합니다.
- (18) 최동무는 저녁... 돌아옵니다.
- (19) 학생들이 운동장... 축구를 합니다.

제6과. 동생은 종이로 배를 만듭니다

1

동생은 종이로 배를 만듭니다.
 언니는 옷을 다립니다.
 오빠는 그림을 그립니다.
 무엇으로 그립니까?
 붓으로 그립니다.

2

저 배스는 어느쪽으로 갑니까?
 모란봉쪽으로 갑니다.
 저 동무들은 어디로 갑니까?
 김일성광장으로 갑니다.

△ 익혀야 할 로

《로/으로》 종이로, 붓으로

△ 알아두십시오

무엇으로 = 뭇으로 = 필로

△ 련 습

1) 토 《로/으로》중에서 알맞는것을 넣으십시오.

- (1) 만년필… 씩니다.
- (2) 나무… 만듭니다.
- (3) 연필… 그립니다.
- (4) 다리미… 다립니다.
- (5) 천… 만듭니다.
- (6) 톱… 자릅니다.
- (7) 도끼… 나무를 팸니다.
- (8) 송곳… 구멍을 뚫습니다.
- (9) 사람들이 김일성광장… 갑니다.
- (10) 고무풍선이 하늘… 올라갑니다.
- (11) 학생들이 만경대… 갑니다.
- (12) 구름이 이리… 물러옵니다.

2) 괄호안의 단어를 포함하여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무엇으로 발을 갑니까? (뜨락뜨락)
- (2) 무엇으로 책상을 만듭니까? (나무)
- (3) 무엇으로 나무를 자릅니까? (톱)
- (4) 무엇으로 구멍을 뚫습니까? (송곳)
- (5) 무엇으로 나무를 팸니까? (도끼)
- (6) 무엇으로 옷을 다립니까? (다리미)
- (7) 무엇으로 못을 박습니까? (망치)
- (8) 무엇으로 못을 뽑습니까? (못뽑이)
- (9) 무엇으로 천을 자릅니까? (가위)
- (10) 무엇으로 연필을 깎습니까? (손칼)
- (11) 무엇으로 물고기를 잡습니까? (그물)
- (12) 무엇으로 마당을 씩니까? (비)
- (13) 무엇으로 방바닥을 청소합니까? (밀대)

(14) 무엇으로 땅을 팝니까? (삽)

(15) 무엇으로 먼지를 털니까? (먼지떨개)

제7과. 나는 방을 청소하였습니다

1

나는 방을 청소하였습니다.

형님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동생은 무엇을 하였습니다?

동생은 유리를 닦았습니다.

어머님은 무엇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부엌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셨습니다.

2

박동무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최동무는 왔습니까?

최동무도 안왔습니다.

그 동무들에게 알리지 못했습니까?

예, 못알렸습니다.

3

우리는 도서관에 가겠습니다.

동무도 가겠습니까?

예, 나도 가겠습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왔/였/였》 닦았습니다.
 쓸었습니다.
 청소하였습니다.

《졌》 가졌습니다.

《지 않다》 오지 않았습니다.

《지 못하다》 알리지 못했습니까?

《안》 안왔습니다.

《못》 못알렸습니다.

△ 알아두십시오.

1

닦다—닦았습니다

쓸다—쓸었습니다

하다—하였습니다

오다—왔습니다

가다—갔습니다

치다—쳤습니다

지우다—지웠습니다

쓰다—썼습니다

눅다—눅었습니다

들다—들었습니다

짓다—지었습니다

부르다—불렀습니다

2

하였습니다=했습니다

하지였습니다=하셨습니다

읽으시였습니다=읽으셨습니다

3

오지 않았습니다=안왔습니다

오지 않습니다=안옵니다

오지 않겠습니다=안오겠습니다

알리지 못했습니다=못알렸습니다
 알리지 못합니다=못알립니다
 알리지 못하겠습니다=못알리겠습니다

△ 련 습

1) 괄호안의 단어를 과거형에 놓으십시오.

- | | |
|-----------------|------------------------|
| (1) 텔레비존을 (보다) | (12) 편지를 (쓰다) |
| (2) 학교에 (가다) | (13) 단어를 (외우다) |
| (3) 라디오를 (듣다) | (14) 벽돌을 (쌓다) |
| (4) 시를 (짓다) | (15) 자동차를 (수리하다) |
| (5) 공장에서 (돌아오다) | (16) 그림을 (그리다) |
| (6) 교실을 (청소하다) | (17) 강을 (건드다) |
| (7) 침대에 (눕다) | (18) 선생님이 (오다) |
| (8) 노래를 (부르다) | (19)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다) |
| (9) 방바닥을 (쓸다) | (20) 할머니는 (웃다) |
| (10) 숙제를 (하다) | |
| (11) 시험을 (치다) | |

2) 괄호안의 단어를 미래형에 놓으십시오.

- (1) 도서관에 (가다)
- (2) 숙제를 (하다)
- (3) 마당을 (쓸다)

3) 다음 문장의 끝단어를 《지 않다》형으로 바꾸십시오.

- (1) ① 영화를 봅니다.
 ② 영화를 보았습니다.
 ③ 영화를 보겠습니다.
- (2) ① 춤을 춥니다.
 ② 춤을 추었습니다.
 ③ 춤을 추겠습니다.

- (3) ① 노래를 부릅니다.
 ② 노래를 불렀습니다.
 ③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 (4) ① 시를 짓습니다.
 ② 시를 지었습니다.
 ③ 시를 짓겠습니다.
- (5) ① 공원에 갑니다.
 ② 공원에 갔습니다.
 ③ 공원에 가겠습니다.
- (6) ① 교과서를 읽습니다.
 ②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③ 교과서를 읽겠습니다.
- (7) ① 라디오를 듣습니다.
 ②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③ 라디오를 듣겠습니다.
- (8) ① 일기를 씁니다.
 ② 일기를 썼습니다.
 ③ 일기를 쓰겠습니다.
- (9) ① 배구를 칩니다.
 ② 배구를 쳤습니다.
 ③ 배구를 치겠습니다.

4) 《안》을 쓰면서 다음 문장과 뜻이 반대되는 문장을 지으십시오.

- (1) 비가 옵니다.
 (2) 공원에 가겠습니다.
 (3) 머리를 깎았습니다.
 (4) 얼음이 녹았습니다.
 (5) 춤을 추었습니다.

5) 다음 문장의 술어를 《지 못하다》형으로 바꾸십시오.

- (1) 나는 못가겠습니다.
- (2) 그 사람을 못만났습니다.
- (3) 그 동무는 못참가했습니다.
- (4) 보도를 못들었습니다.
- (5) 편지를 아직 못썼습니다.

제8과. 숙제를 합시다

1

숙제를 합시다.
본문을 씁시다.
본문을 읽읍시다.
문장을 지읍시다.
떠들지 맙시다.

2

어서 들어오십시오. 거기에 앉으십시오.
여기가 아릅니까?
저기에 누우십시오.
배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 《하다/읍시다》 씁시다, 읽읍시다.
《십시오/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지 맙시다》 떠들지 맙시다.

《지 마십시오》 주지 마십시오.

여기—거기—저기

△ 알아두십시오.

쓰다—씀시다—쓰십시오

읽다—읽으시다—읽으십시오

듣다—들으시다—들으십시오

짓다—지으시다—지으십시오

들다—듬시다—드십시오

눕다—누으시다—누우십시오

△ 련 습

1) 괄호안의 단어에 토 《ㅂ시다/으십시오》를 붙이십시오.

- | | |
|---------------|-----------------|
| (1) 만경대에 (가다) | (5) 버스를 (타다) |
| (2) 노래를 (부르다) | (6) 함께 (읽다) |
| (3) 보도를 (듣다) | (7) 많이 (만들다) |
| (4) 탁구를 (치다) | (8) 공원에서 (휴식하다) |

2) 괄호안의 단어에 토 《ㅅ십시오/으십시오》를 붙이십시오.

- | | |
|---------------|-----------------|
| (1) 전화를 (걸다) | (6) 방안에 (들어오다) |
| (2) 전보를 (치다) | (7) 박동무를 (만나다) |
| (3) 유리를 (뒹다) | (8) 천천히 (걸다) |
| (4) 먼지를 (털다) | (9) 책장을 (정돈하다) |
| (5) 라지오를 (듣다) | (10) 책을 많이 (읽다) |

3) 다음 문장의 끝단어를 《지 마십시오》형으로 바꾸십시오.

- (1) 경기장에 갑시다.
- (2) 버스를 탑시다.
- (3) 이 나무를 베시다.
- (4) 여기에 구멍을 뚫으시다.

4) 괄호안의 단어를 《지 마십시오》형에 놓으십시오.

- | | |
|----------------|-----------------|
| (1) 잔디를 (밟다) | (7) 남을 (비웃다) |
| (2) 꽃밭에 (들어가다) | (8) 교실을 (어지럽히다) |
| (3) 꽃을 (꾸다) | (9) 종이를 (찢다) |
| (4) 복도에서 (떠들다) | (10) 학교에 (지각하다) |
| (5) 담배를 (피우다) | (11) 학교에 (결석하다) |
| (6) 술을 (마시다) | (12) 길에서 (놀다) |

제9과. 박동무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

박동무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봉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동무에게 있습니다.

2

최동무는 소포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박동무도 소포를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최동무만 받았습니다.

△ 익혀야 할 토

- 《에게》 할머니에게
- 《에게서》 어머니에게서
- 《만》 최동무만

△ 알아두십시오.

《에게》=《한테》

어머니에게=어머니한테

《에게서》=《한테서》

어머니에게서=어머니한테서

△ 련 습

1) 《에게》 또는 《만》을 넣으십시오.

- (1) 동생... 편지를 씁니다.
- (2) 아버지... 전보를 쳤습니다.
- (3) 은희... 소포를 보냅니다.
- (4) 영수... 편지를 받았습니다.
- (5) 명숙이... 지각하였습니다.
- (6) 오빠는 이것... 가져왔습니다.
- (7) 누구... 사전이 있습니까?
- (8) 나... 원주필이 많습니다.
- (9) 순호... 책이 많습니다.

2) 토 《에게》와 《에게서》중에서 알맞는것을 넣으십시오.

- (1) 어머니는 동생... 과자를 주셨습니다.
- (2) 누구... 전화를 걸었습니까?
- (3) 어머니... 편지를 받았습니다.
- (4) 누구... 편지를 받았습니다?
- (5) 누구... 색연필이 있습니까?
- (6) 어머니... 칭찬을 받았습니다.

(7) 동무들… 비판을 받았습니다.

3) 《예제만, 예만, 로만》중에서 알맞는것을 넣으십시오.

(1) 어머니는 동생… 사과를 주셨습니다.

(2) 나… 소포가 왔습니다.

(3) 겨울… 이 옷을 입습니다.

(4) 이 동무는 원주필… 씩니다.

제10과. 방안에 책상과 책장이 있습니다

1

방안에 책상과 책장이 있습니다.

책상우에는 화보와 신문이 있습니다.

화보나 신문을 주십시오.

2

박동무는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최동무와 이야기합니다.

박동무의 목소리는 나의 목소리와 비슷합니다.

박동무는 체육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박동무는 최동무와 같이 경기장에 갑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와/과》 화보와, 책상과

《나/이나》 화보나

《에 대하여》 체육에 대하여
《와/과 같이》 최동무와 같이

△ 알아두십시오.

대하여=대해=대해서

△ 련 습

1) 빈자리에 토 《와/과》를 넣으십시오.

- (1) 명숙동무○ 정애동무를 만났습니다.
- (2) 책방○ 도서관에 들리겠습니다.
- (3) 소설○ 시집을 샀습니다.
- (4) 윤식동무○ 민철동무가 왔습니다.
- (5) 교실○ 복도를 청소하였습니다.
- (6) 종이○ 연필을 가져오십시오.
- (7) 봉남동무는 희숙동무○ 말합니다.
- (8) 저 동무는 지금 누구○ 전화합니까?
- (9) 동무는 누구○ 탁구를 쳤습니까?
- (10) 이 그림은 저 그림○ 비슷합니다.
- (11) 이 가방은 옥란동무의 가방○ 같습니다.
- (12) 나의 동생은 나○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 (13) 나는 어머니○ 같이 극장에 갔습니다.
- (14) 형님은 누님○ 같이 체육관에 갑니다.

2) 토 《나/이나》를 넣으십시오.

- (1) 학습장… 종이를 주십시오.
- (2) 잡지… 소설을 가져오십시오.
- (3) 책방… 도서관에 갑시다.
- (4)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5) 오후… 래일아침에 또 오겠습니다.

3) 《에 대하여》를 넣으십시오.

(1) 춘복동무는 묘향산... 이야기하였습니다.

(2) 우리는 날씨... 말하였습니다.

(3) 나는 우리 생활... 말하겠습니다.

제11과. 금희는 몇살입니까?

1

금희는 몇살입니까?

열한살입니다.

금희는 나보다 세살 아래입니다.

금희는 몇살에 인민학교를 졸업하였습니까?

열살에 졸업하였습니다.

2

할아버지는 이 공장에서 30년간 일하셨습니다.

어느해부터 어느해까지 일하셨습니다?

1948년부터 1978년까지 일하셨습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부터》 1948년부터

《까지》 1978년까지

《보다》 나보다

《살》 열한살

《년》 1948년

《간》 30년간

△ 알아두십시오.

1

- | | |
|---------------|--------------|
| 1 하나(한), 일 | 2 둘(두), 이 |
| 3 셋(세, 석), 삼 | 4 넷(네, 녀), 사 |
| 5 다섯, 오 | 6 여섯, 륵 |
| 7 일곱, 칠 | 8 여덟, 팔 |
| 9 아홉, 구 | 10 열, 십 |
| 11 열하나, 십일 | 12 열둘, 십이 |
| 20 스물(스무), 이십 | 30 서른, 삼십 |
| 40 마흔, 사십 | 50 쉰, 오십 |
| 60 예순, 륵십 | 70 일흔, 칠십 |
| 80 여든, 팔십 | 90 아흔, 구십 |
| 100 백 | 200 이백 |
| 1,000 천 | 2,000 이천 |
| 10,000 만 | 20,000 이만 |
| 100,000,000 억 | |

2

- | | | | | |
|-----|------|-------|------|------|
| 사람 | 다섯사람 | 다섯명 | 오명 | 백오십명 |
| 토끼 | 다섯마리 | 백오십마리 | | |
| 가방 | 다섯개 | 백오십개 | | |
| 비행기 | 다섯대 | 백오십대 | | |
| 집 | 다섯채 | 백오십채 | | |
| 담배 | 다섯갑 | 백오십갑 | | |
| 종이 | 석장 | 너장 | 백오십장 | |
| 배 | 다섯척 | 백오십척 | | |
| 포 | 다섯문 | 백오십문 | | |

다루	다섯그루	백오십그루
성냥	다섯가치	백오십가치
연필	다섯자루	백오십자루
옷	다섯벌	백오십벌
신	다섯켤레	백오십켤레
쌀	다섯키로그램	백오십키로그램
값	오원	오십오전
온도	오십오도	오부
길이	오십오미터	오센치 오미리
무게	오십오키로그램	오그램

△ 련 습

1) 다음의 수를 아라비아수자로 쓰십시오.

- (1) 예순다섯, 스물일곱, 아흔셋
- (2) 사백천여섯, 백여든둘, 팔백마흔아홉
- (3) 오천륙백이십삼
- (4) 칠만팔천이백칠십구

2)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동무는 몇살입니까?
- (2) 동무는 몇살에 인민학교에 입학하였습니까?
- (3) 동무는 몇살에 인민학교를 졸업하였습니까?
- (4) 동무는 몇살에 고등중학교에 입학하였습니까?
- (5) 지금은 몇학년입니까?
- (6) 동무는 인민학교에서 몇년간 공부하였습니까?
- (7) 동무는 어느해부터 어느해까지 인민학교에 다녔습니까?
- (8) 조선로동당은 어느해에 창건되었습니까?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느해에 창건되었습니까?
- (10) 조선인민혁명군은 어느해에 창건되었습니까?

(11) 우리 나라는 어느 해에 해방되었습니까?

3)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옥화는 열네살입니다. 그의 동생은 옥화보다 두살 아래입니다. 동생은 몇살입니까?
- (2) 명선동무는 열세살입니다. 그의 형은 명선동무보다 세살 우입니다. 형은 몇살입니까?
- (3) 나는 1985년에 인민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우리 형님은 나보다 2년전에 졸업하였습니다. 우리 형님은 어느 해에 인민학교를 졸업하였습니까?
- (4) 동식동무는 1984년부터 이 공장에서 일합니다. 선규동무는 동식동무보다 4년을 더 일하였습니다. 선규동무는 어느 해부터 이 공장에서 일합니까?

4) 다음 문장을 읽으십시오.

- (1) 76명이 왔습니다.
- (2) 돼지 16마리를 잡았습니다.
- (3) 걸상이 전부 32개입니다.
- (4) 적의 땅크를 20대 까부셨습니다.
- (5) 집 7채를 지었습니다.
- (6) 담배가 30갑입니다.
- (7) 종이가 64장 필요합니다.
- (8) 배 8척이 보입니다.
- (9) 적의 포 192문을 로획하였습니다.
- (10) 나무를 76그루 심었습니다.
- (11) 성냥 1가치를 주십시오.
- (12) 동생의 필갑에 연필이 3자루 있습니다.
- (13) 옷장안에 옷이 7벌 있습니다.
- (14) 신장안에 구두가 6켤레 있습니다.

- (15) 쌀이 8킬로그램입니다.
- (16) 이 옷은 16원 73전입니다.
- (17) 방안의 온도가 25도입니다.
- (18) 길이가 68미터 39센치 4밀리입니다.
- (19) 무게가 64킬로 72그램입니다.

5) 다음 단어들로 문장을 지으십시오. 문장속에 토 《보다》를 포함시키십시오.

- (1) 형님, 나, 더, 건강하다
- (2) 성혜동무, 나, 책, 더, 많이, 읽다
- (3) 그 동무, 나, 탁구, 더, 잘, 치다
- (4) 동생, 누이, 키, 더, 크다
- (5) 이 동무, 배구, 탁구, 더, 잘, 치다

제12과. 오늘은 며칠입니까?

1

오늘은 며칠입니까?

9월 14일입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까?

예, 벌써 두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달에 학기말시험을 칩니까?

12월에 칩니다.

2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다.

다음 일요일은 며칠입니까?

9월 17일입니다.

9월 26일은 월요일입니까?

아닙니다. 화요일입니다.

어느 요일에 또 오겠습니까?

다음주 화요일에 오겠습니다.

△ 익혀야 할 단어

《월》 9월

《일》 14일

△ 알아두십시오.

- 1)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류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십이월
- 2) 일일, 이일, 삼일... 륙일... 십일...
- 3)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 4) 석달, 녀달

△ 련 습

- 1) 읽으십시오.

4월 15일, 2월 16일, 9월 9일, 10월 10일, 8월 15일, 5월 1일,
6월 6일

- 2) 달이름을 차례로 말하십시오.
- 3) 요일이름을 차례로 말하십시오.
- 4) 동무의 생일을 말하십시오.
- 5) 집식구들의 생일을 말하십시오.
- 6) 동무의 생년월일을 말하십시오.

1)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동무는 언제 출생하셨습니다?
- (2) 1년은 몇달입니까?
- (3) 1년은 며칠입니까?
- (4) 지금은 어느달입니까?
- (5) 이달은 큼니까, 작습니까?
- (6) 이달은 며칠입니까?
- (7) 한주일은 며칠입니까?
- (8) 오늘은 며칠입니까?
- (9) 어제는 며칠이었습니다?
- (10) 래일은 며칠입니까?
- (11)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 (12)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습니다?
- (13) 래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 (14) 다음 일요일은 며칠입니까?
- (15) 새 학년도는 언제부터입니까?
- (16) 다음주 수요일은 며칠입니까?
- (17) 다음달 5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제13과. 지금 몇시입니까?

1

지금 몇시입니까?

새시 칠분입니다.

기차가 몇시에 도착하셨습니다?

두시 오십삼분에 도착하셨습니다.

몇 시에 떠납니까?
세 시 십팔분에 떠납니다.

2

라디오에서 다섯시를 알립니다.
박동무의 시계는 삼십초 빠릅니다.
최동무의 시계는 일분 뜯니다.

3

박동무는 한시반에 왔습니다.
최동무는 십분전 두시에 왔습니다.
나는 정각 세시에 왔습니다.

△ 익혀야 할 단어

《시》 세시
《분》 칠분
《초》 삼십초

△ 알아두십시오.

몇 시입니까=몇십니까
한 시입니다=한십니다
한시, 두시, 세시... 열한시, 열두시...
일분, 이분, 삼분... 십일분... 이십분...
일초, 이초, 삼초... 십일초... 이십초...

△ 련 습

1) 읽으십시오.

- (1) 1시 18분, 5시 47분, 3시 2분, 6시 19분 24초
- (2) 10분전 6시, 15분전 3시

12분전 1시, 3분전 4시, 5분전 2시, 2분전 11시, 1분전 5시,
4분전 7시

(3) 5시반, 3시반, 1시반, 4시반

2)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지금 몇시입니까?
- (2) 동무는 아침에 몇시에 일어납니까?
- (3) 동무는 밤에 몇시에 자리에 눕습니까?
- (4) 동무는 하루에 몇시간 잡니까?
- (5) 동무는 대체로 몇시에 학교에 도착합니까?
- (6) 첫째 수업은 몇시에 시작됩니까?
- (7) 둘째 수업은 몇시에 시작됩니까?
- (8) 몇분간 휴식합니까?
- (9) 마지막수업은 몇시에 끝납니까?
- (10) 집에서 하루에 대체로 몇시간 공부합니까?

3) 다음 시간을 다르게 말해보십시오.

- (1) 한시 삼십분
- (2) 세시 오십오분
- (3) 두시 사십오분
- (4) 다섯시 오십분
- (5) 십이분전 일곱시
- (6) 삼분전 여덟시
- (7) 아홉시반

4)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지금은 정각 4시입니다. 선옥동무의 시계는 3분 빠입니다. 그의 시계는 몇시입니까?
- (2) 지금은 5시 34분입니다. 순영동무의 시계는 1분 빠입니다. 그의 시계는 몇시입니까?
- (3) 지금은 2시반입니다. 춘화동무의 시계는 2시 35분입니다. 그의 시계는 몇분 빠입니까?
- (4) 지금은 십삼분전 7시입니다. 영란동무의 시계는 6시 43분입

- 니다. 그의 시계는 몇분 틀니까?
- (5) 기차는 정각 6시에 떠납니다. 지금은 5시 52분입니다. 이제 몇분 남았습니까?
- (6) 모임은 2시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분전 3시에 끝났습니다. 모임은 몇분 걸렸습니까?
- (7) 영실동무는 4시 15분에 왔습니다. 복순동무는 2분전 4시에 왔습니다. 복순동무는 영실동무보다 몇분 먼저 왔습니까?

제14과. 우리는 큰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1

우리는 큰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넓은 운동장과 훌륭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2

나는 떨어지는 나무잎을 받아쥐었습니다.
나는 떨어진 나무잎을 밟았습니다.
떨어지던 나무잎이 바람에 날려갑니다.
이제 곧 떨어질 나무잎이 많습니다.

△ 익혀야 할 토

《는》 떨어지는

《니/은》 떨어진, 넓은

《던》 떨어지던

《리/을》 떨어질

△ 알아두십시오.

- 1) 깊다—기운
 짓다—지은
 듣다—들은
 물다—문
- 2) 큰, 넓은, 깨끗한—현재(형용사)
 쓴, 읽은, 말한—과거(동사)

△ 련 습

1) 괄호안의 단어에 토 《는》을 붙이고 거기에 명사를 맞물리십시오.

- (1) (공부하다), (말하다), (일하다)
- (2) 편지를 (쓰다), 책을 (읽다), 그림을 (그리다), 해염을 (치다), 머리를 (빗다), 집을 (짓다), 걸상에 (앉다)

2) 괄호안의 단어에 토 《ㄴ/은》을 붙이고 거기에 명사를 맞물리십시오.

- (1) 텔레비전을 (보다)
 학교에 (가다), 방을 (청소하다)
 노래를 (부르다), 시를 (읽다), 편지를 (받다)
- (2) (푸르다), (붓다), (희다), (작다), (짧다), (넓다), (좁다),
 (높다), (낮다), (깊다), (톡톡하다), (대담하다)

3) 괄호안에 있는 본보기대로 토 《ㄴ/은》을 붙이고 거기에 명사를 맞물리십시오.

- (1) (깊다—기운), 돕다, 아름답다, 춤다, 덩다, 가깝다, 무겁다,
 립다, 쉽다, 맵다, 우습다
- (2) (짓다—지은), 잇다
- (3) (듣다—들은), 묻다, 걷다, 실다
- (4) (물다—문), 들다, 살다, 놀다, 갈다, 빨다, 즐다, 벌다, 벌

다, 길다, 질다

4) 다음의 단어결합을 포함하여 문장을 지으십시오.

- (1) 책을 읽는 학생
- (2) 옷을 다리는 누님
- (3) 학교에 가는 학생
- (4)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 (5) 신문을 읽으시는 할아버지
- (6) 숙제를 검열하시는 선생님
- (7) 1211고지에서 싸운 영웅
- (8) 소설을 많이 읽은 박동무
- (9) 경기에 참가할 선수
- (10) 버스를 탈 사람
- (11) 달리던 자동차
- (12) 교실에서 공부하던 학생
- (13) 아름다운 꽃
- (14) 젊은 군인
- (15) 조용하던 광장
- (16) 오늘보다 더 살기 좋을 래일

제15과. 우리는 부러운것이 없습니다

1

우리는 부러운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좋은것이 어린이들에게 차례집니다.

2

박동무는 최동무가 안오려니 합니다.
그러나 최동무는 꼭 올것입니다.

3

비가 온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것 같습니다.
비가 올것 같습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려니(으려니) 하다》 안오려니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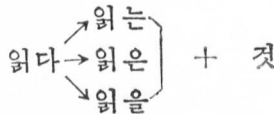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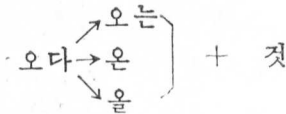
《것》 부러운것

《르(을)것이다》 올것입니다.

《것 같다》 올것 같습니다.

△ 알아두십시오.

1) 는, ㄴ/은, ㄹ/을 + 것



2) 올것입니다=올겁니다, 올쥬니다

△ 련 습

1) 괄호안의 단어에 토 《ㄴ/은》을 붙이고 그것을 《것》과 무어서 문장속에 넣으십시오.

(1) 미옥이는 ... 복습합니다. (배우다)

(2) ... 이야기하십시오. (보다)

- (3) 로동자들에게서 ... 많습니다. (배우다)
- (4) 제일 ... 동생에게 주십시오. (곱다)
- (5) 영애는 한번 ... 잊지 않습니다. (듣다)
- (6) 나는 책상서랍에 ... 도로 넣었습니다. (꺼내다)

2) 괄호안의 단어에 토 《는》을 붙이고 그것을 《것》과 무어서 문장 속에 넣으십시오.

- (1) 마음에 ... 고르십시오. (들다)
- (2) 이 동무는 정말 ... 많습니다. (알다)
- (3) 이 동무는 ... 없습니다. (모르다)
- (4) 오빠는 영남이가 ... 봅니다. (그림그리다)
- (5) 언니는 영수가 ... 들습니다. (읽다)
- (6) 동생은 형님이 토끼우리 ... 돕습니다. (만들다)

3) 괄호안의 단어에 토 《르/을》을 붙이고 그것을 《것》과 무어서 문장 속에 넣으십시오.

- (1) 나는 래일 ... 예습합니다. (배우다)
- (2) ... 많습니다. (묻다)
- (3) 칠수동무, ...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 (4) ... 휴지통에 넣으십시오. (버리다)
- (5) 차에 ... 많습니까? (신다)
- (6) 병찬동무에게 ... 없습니까? (전하다)

4) 괄호안의 단어를 《르(을)것이다》형으로 만드십시오.

- (1) 화순이는 곧 (오다)
- (2) 아버지는 저녁차로 (오다)
- (3) 덕길이는 최우등을 (하다)
- (4) 그 동무는 제시간에 (도착하다)
- (5) 성호는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다)

5) 괄호안의 단어를 《는/니(은), 은(을)+것 같다》형으로 만드십시오.

- (1) 땅이 젖었습니다. 밤에 비가 (오다)
- (2) 하늘이 점차 맑아집니다. 비가 곧 (땀다)
- (3)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산을 펼쳐드립니다. 비가 (오다)
- (4) 발걸음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이 (오다)

6) 괄호안의 단어에 또 《러니/으러니》를 붙여 문장속에 넣으십시오.

- (1) 경찰이는 홍식이가 ... 합니다. (오다)
- (2) 우리는 비가 곧 ... 하였습니다. (땀다)
- (3) 동무들은 나에게 그 책이 ... 합니다. (있다)

제16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1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린이들의 예술공연을 보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하철도를 타고 왔습니다.

2

나는 최동무를 만나려고 합니다.

나는 그 동무를 만나려고 기다리고있습니다.

최동무는 책방에 간지 오 랩니다.
 최동무가 나가자 우리가 왔습니다.
 박동무는 기다리다가 가고말았습니다.

3

나는 할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나의 동생도 할머니를 보고싶어합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 《고》 웅장하고
- 《고있다》 기다리고있습니다.
- 《고말다》 가고말았습니다.
- 《고싶다》 보고 싶습니다.
- 《고싶어하다》 보고싶어합니다.
- 《려고/으려고》 만나려고
- 《려고(으려고) 하다》 만나려고 합니다.
- 《자》 나가자
- 《다가》 기다리다가
- 《지》 간지

△ 알아두십시오.

- 1) 《려고/으려고》=《자고》
 만나려고=만나자고
 읽으려고=읽자고
- 2) 《교》=《구》
 《려고/으려고》=《려구/으려구》
 《자고》=《자구》
 타고=타구
 만나려고=만나려구

읽으려고=읽으려구

만나자고=만나자구

3) <ㄴ /은>+<지>

가다→간
읽다→읽은 } + 지

△ 련 습

1) 괄호안의 단어들을 <고>로 련결하고 문장을 지으십시오.

- (1)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웅장하다, 화려하다)
- (2) 길이 (길다, 곧다)
- (3) 교실이 (크다, 밝다)
- (4) 꽃이 (크다, 아름답다)
- (5) 산이 (높다, 험하다)

2) <고>를 리용하여 두 문장을 련결하십시오.

- (1) — 나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 만석동무는 책방에 갔습니다.
- (2) — 춘수는 잡지를 읽습니다.
— 명선이는 화보를 봅니다.
- (3) — 우리는 탁구를 쳤습니다.
— 그 동무들은 배구를 쳤습니다.
- (4) — 방안은 덥습니다.
— 바깥은 춥습니다.
- (5) — 봄은 따뜻합니다.
— 가을은 서늘합니다.
- (6) — 나무잎은 떨어집니다.
— 연은 올라갑니다.

3) 다음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십시오.

- (1) 성희는 식사를 하고 상점에 갔습니다.

- (2) 나는 숙제를 하고 책방에 갔습니다.
- (3) 이 책을 다 읽고 그 책을 읽겠습니다.
- (4) 일을 끝내고 극장에 가겠습니다.

4) 괄호안의 단어를 리용하여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무엇을 타고 왔습니까? (기차)
- (2) 무엇을 타고 가겠습니까? (버스)
- (3) 아버지는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승용차)
- (4) 영순이는 무엇을 타고 대성산에 갔습니까? (지하철도)
- (5) 동무는 무엇을 타고 경기장에 가겠습니까? (무궤도전차)
- (6) 동선동무는 무엇을 들고 갑니까? (트렁크)
- (7) 복실동무는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체육복)

5) 괄호안의 단어에 《고》를 붙여 문장속에 넣으십시오.

- (1) 저고리를 ... 가십시오 (입다)
- (2) 양말을 ... 가십시오 (신다)
- (3) 운동화를 ... 가십시오 (신다)
- (4) 모자를 ... 가십시오 (쓰다)
- (5) 외투를 ... 가십시오 (벗다)
- (6) 장갑을 ... 가십시오 (끼다)
- (7) 비옷을 ... 가십시오 (가지다)
- (8) 어깨에 ... 가십시오 (메다)
- (9) 이것을 ... 가십시오 (들다)
- (10) 두손으로 ... 가십시오 (쥐다)

6) 괄호안의 동사를 《고있다》형에 놓으면서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혜영이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일기를 쓰다)
- (2) 옥순이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텔레비죤을 보다)
- (3) 영복이는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소설을 읽다)

7) 문장중간에 있는 괄호안의 동사에는 <다가> 또는 <려고>를 붙이고 끝에 있는 괄호안의 동사에는 <고말다> 또는 <려고 하다>를 붙이십시오.

- (1) 영화관에 (가다) 상점에 들렀습니다.
- (2) 공원에 (가다) 혜옥이를 만났습니다.
- (3) 새로 나온 소설을 (사다) 책방에 갔습니다.
- (4) 명식동무를 (만나다) 그의 집에 갔습니다.
- (5) 나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
- (6) 아기는 빨리 (걷다) 그만 (넘어지다)
- (7) 동생은 밤에 (공부하다) 그만 (잠들다)

8) <고싶다>, <고싶어하다>중에서 알맞는것을 고르십시오.

- (1) 나는 동생이 (보다)
- (2) 성옥이는 동생을 (보다)
- (3) 나는 노래를 (부르다)
- (4) 영심이는 노래를 (부르다)
- (5) 나는 형님과 같이 (가다)
- (6) 동생은 형님과 같이 (가다)

9) 괄호안의 단어에 <자> 또는 <니지>를 붙이십시오.

- (1) 종이 (올리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왔습니다.
- (2) 명길동무가 (떠나다) 오랩니까?
- (3) 인민학교를 (졸업하다) 1년이 됩니다.
- (4) 번개가 (치다) 우뢰가 울었습니다.

제17과.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롱구를 하였습니다

1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롱구를 하였습니다.
최동무는 키가 작지만 롱구를 잘합니다.
그 동무는 롱구를 잘할뿐아니라 축구도 잘합니다.

2

우리는 롱구를 한후 수영장에 갔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기전에 체조를 하였습니다.
최동무가 먼저 해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동무는 일상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기때문에 해염을 잘
칩니다.

3

우리가 해염칠 때 박동무가 왔습니다.
박동무는 해염칠줄 모릅니다.
그 동무는 수영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오늘도 박동무는 최동무에게서 수영을 배우느라고 여념이 없
습니다.
박동무는 최동무가 시키는대로 합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면서/으면서》 흘리면서

《지만》 작지만

《뿐아니라》 잘할뿐아니라

《후》 한후

《기》 들어가기

《기전》 들어가기전에

《기 시작하다》 헤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기때문》 하기때문에

《때》 헤엄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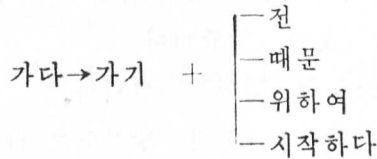
《줄》 헤엄칠줄

《느라고》 배우느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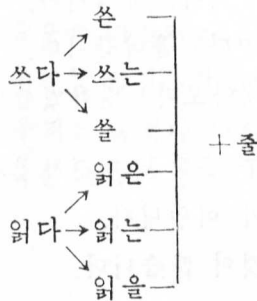
《대로》 시키는대로

△ 알아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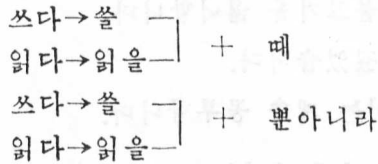
1) 《기》+《전, 때문, 위하여, 시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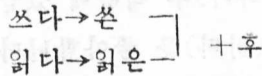
2) 《ㄴ/은, 는, ㄹ/을》+《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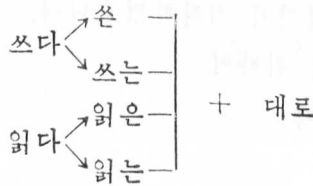
3) 《ㄹ/을》+《때, 뿐아니라》



4) 《ㄴ/은》+《후》



5) <ㄴ/은, 는> + <대포>



- 6) 뿐 아니라 = 뿐만 아니라
 위하여 = 위해, 위해서

△ 연습

1) 괄호안의 단어에 <면서/으면서>를 붙이십시오.

- (1) 순실이는 (웃다) 말합니다.
- (2) 언니는 소설을 (읽다) 웃습니다.
- (3) 동생은 손시늬를 (하다) 말하였습니다.
- (4) 학생들이 (말하다) 걸어갑니다.
- (5) 기차가 기적을 (올리다) 탈립니다.
- (6) 연이 꼬리를 (날리다) 올라갑니다.
- (7) 형님은 창밖을 (내다보다) 말하였습니다.

2) <지만>을 리용하여 두 문장을 연결하십시오.

- (1) —혜옥이는 나이가 어립니다.
 —혜옥이는 아는것이 많습니다.
- (2) —영선은 물고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싫어합니다.
- (3) —밤이 깊었습니다.
 —학철이는 계속 공부합니다.

3) 괄호안의 단어에 알맞는 토를 붙이십시오.

- (1) 우리는 숙제를 (하다)후 책방에 갔습니다.
- (2) 그 동무는 소설 (읽다)를 좋아합니다.

- (3) 우리는 (헤여지다)전에 간단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 (4) 하늘이 (개이다) 시작합니다.
- (5) 이 동무는 (춤추다)를 싫어합니다.
- (6) 이 옷은 (다리다)가 힘듭니다.
- (7) 그 옷이 아주 (보다) 좋습니다.
- (8)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다) 시작합니다.
- (9) 나는 (일하다) 때에는 작업복을 입고 체육을 (하다) 때에는 체육복을 입습니다.
- (10) 우리가 (휴식하다) 때 경애동무가 왔습니다.
- (11) 저 동무는 체육을 정상적으로 (하다)때문에 앓지 않습니다.
- (12) 대학생들은 군중대회에 (참가하다) 위하여 광장에 갑니다.
- (13) 복희는 노래를 (잘 부르다)뿐아니라 춤도 잘 춥니다.
- (14) 나는 차를 (몰다) 압니다.
- (15) 창수는 자전거를 (타다) 모릅니다.
- (16) 우리는 그가 (작업반장)줄 몰랐습니다.
- (17) 우리는 옥희가 영화관에 (가다)줄 알았습니다.
- (18) 나는 철호가 (나타나다)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제18과. 최동무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1

최동무는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누구나 최동무처럼 꾸준히 공부하면 최우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박동무는 모르면서 아는체합니다.

그 동무는 하마트면 락제할번하였습니다.

그 동무도 공부를 열심히 하였더라면 최우등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3

떠들지 말고 책을 읽든지 텔레비전을 보든지 하십시오.

최동무는 옆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책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동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에 결석하지 않습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러/으러》 공부하러

《나》 누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처럼》 최동무처럼

《면/으면》 공부하면

《았(었, 었)더라면》 하였더라면

《든지》 읽든지

《거나》 부르거나

《제하다》 아는체합니다.

《번하다》 락제할번하였습니다.

《수 있다(없다)》 할수 있습니다.

△ 알아두십시오.

1) 《르/을》+《수》+《있다, 없다》

쓰다→쓸 —
읽다→읽을 — } + 수 + 있다(없다)

2) 《는, ㄴ/은》+《체》+《하다》

쓰다 → 쓰는 —
 → 쓴 —
읽다 → 읽는 —
 → 읽은 — } + 체 + 하다

3) 《르/을》+《번》+《하다》

넘어지다→넘어질 —
죽다→ 죽을 — } + 번 + 하다

4) 든지=든, 거나=건

△ 연습

1) 괄호안의 단어에 《러/으러》를 붙이십시오.

- (1) 도서관에 책 (빌리다) 가겠습니다.
- (2) 책방에 책 (사다) 가겠습니다.
- (3) 명순이는 (식사하다) 갔습니다.
- (4) 순옥이는 이 책을 (가지다) 왔습니다.

2) 괄호안의 단어에 알맞는 토를 붙이십시오.

- (1) 우리 힘으로 (하다)수 있습니다.
- (2) 래일까지 (끝내다)수 있습니다.
- (3) 그것보다 더 잘 (만들다)수 있습니다.
- (4) 나는 지금 사진관에 (가다)수 없습니다.
- (5) 나는 거기에 (동의하다)수 없습니다.
- (6) 동생은 (자다)체합니다.

- (7) 혜순이는 나를 못(보다)채하였습니다.
- (8) 나는 깊이 (잠들다)채하였습니다.
- (9) 그 동무는 아무것도 (모르다)채합니다.
- (10) 하마트면 (넘어지다)번하였습니다.
- (11) 나무에서 (떨어지다)번하였습니다.
- (12) 하마트면 (잃다)번하였습니다.

3) 괄호안의 단어에 《면/으면》 또는 《았(었, 었)더라면》을 붙이십시오.

- (1) 경화가 (오다) 이것을 전해주시십시오.
- (2) (도착하다) 곧 편지를 쓰십시오.
- (3) 좀 더 일찌기 (가다) 그 동무를 만날수 있었을것입니다.

4) 괄호안의 단어에 《처럼, 나, 든지, 거나》중에서 알맞는것을 붙이십시오.

- (1) 숙경이도 (우화) 그림을 잘 그립니다.
- (2) 이 꽃도 그 (꽃) 오래 씩니다.
- (3) 비료가 (폭포) 쏟아집니다.
- (4) 어느 (학생) 다 공부를 잘합니다.
- (5) 노래를 (부르다) 시를 (읹다) 하십시오.
- (6) 복도에서 큰소리로 (말하다)(웃다) 하지 마십시오.
- (7) 눈이 (오다) 바람이 (불다) 경기는 계획대로 할것입니다.

제19과. 꾸준히 공부하여 쓸모 있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1

꾸준히 공부하여 쓸모있는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아는것이 많아야 혁명가로 될수 있습니다.

2

교실문이 열리어있습니다.
최동무가 일찌기 와서 교실을 청소하여놓았습니다.
최동무는 박동무와 나란히 앉아 공부하고있습니다.
최동무는 뒤떨어진 동무들을 적극 이끌어줍니다.
지금 두 동무는 수학문제의 답을 맞추어봅니다.

3

전번 경기에서는 왜 졌습니까?
자만하여 졌습니다.
절대로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술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경기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을 세게 하였으니 이길것입니다.

△ 익혀야 할 토와 단어

《아/어/여》, 앓아, 이끌어, 공부하여

《아(어, 여)있다》 열리어있습니다.

《아(어, 여)놓다》 청소하여놓았습니다.

《아(어, 여)주다》 이끌어줍니다.

《아(어, 여)보다》 맞추어봅니다.

《아(어, 여)서는 안되다》 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야/어야/여야》 많아야

《아야(어야, 여야) 하다》 쌓아야 합니다.

《아도/어도/여도》 있어도

《계》 세게

《니/으니》 하였으니

△ 알아두십시오.

공부하여=공부하여서, 공부해, 공부해서

열리어있습니다=열려있습니다

맞추어=맞춰

하였으니=했으니

△ 연습

1) 괄호안의 단어를 알맞는 형태로 바꾸십시오.

(1) 여기에 (앉다) 이야기합니다.

(2) 그 동무의 집에 (가다)(보다) 문이 (잠기다)있었습니다.

(3) 갑자기 흐리는것을 (보다) 소나기가 내릴것 같습니다.

(4) 이 옷을 (입다)보십시오.

(5) 나는 아버지의 일손을 (돕다)드렸습니다.

(6) 우리는 병원에 (가다) 앓고있는 옥실동무를 (위로하다)주었습니다.

(7) 나는 래일 가지고 갈것을 미리 (준비하다)놓았습니다.

(8) 교실에서 (떠들다) 안됩니다.

(9) 체육을 많이 (하다) 키가 빨리 큼니다.

(10) 나는 이제 곧 역에 (가다) 합니다.

(11) 글씨를 더 (곱다) 쓰십시오.

(12) 거리를 (화려하다) 장식하였습니다.

(13) 아무리 바람이 (세다)(불다)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을것임

니다.

(14) 옷사람을 (존경하다) 합니다.

(15) 동생들을 (사랑하다) 합니다.

2) 다음의 동사들에 토 <계>를 붙이고 그것을 포함하여 문장을 지으십시오.

빛나다, 씩씩하다, 아름답다, 크다, 굵다, 깨끗하다, 힘있다,
명확하다, 우렁차다, 성실하다

3) 다음의 표현을 포함하여 문장을 지으십시오.

(1) 이야기하여주다, 도와주다, 일깨워주다, 읽어주다, 써주다,
그려주다

(2) 물어보다, 만져보다, 입어보다, 신어보다, 써보다, 끼여보다

(3) 놓여있다, 찍여있다, 서있다, 앉아있다, 누워있다, 잠겨있다,
열려있다, 닫겨있다, 놀리워있다, 앞드려있다.

(4) 청소하여놓다, 정돈해놓다, 갖추어놓다, 써놓다, 그려놓다,
열어놓다, 펴놓다

(5) 읽어야 하다, 써야 하다, 말해야 하다, 보아야 하다, 있어야
하다, 가야 하다, 참가하여야 하다, 이겨야 하다

제20과. 나는 박동무에게 동물원에 가겠는가고 물었습니다

1

나는 박동무에게 동물원에 가겠는가고 물었습니다.

박동무는 가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박동무는 나에게 먼저 가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박동무에게 《동물원에 가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박동무는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박동무는 나에게 《먼저 가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같이 갑시다.》라고 하였습니다.

박동무는 동물원에 가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박동무는 먼저 가십니까?
 예, 먼저 가겠습니다.
 박동무는 같이 갑니까?
 아닙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 익혀야 할 토

《다고, ㄴ(는)다고, 이라고》 가겠다고

《ㄴ(은)가고, 는가고, 인가고》 가겠는가고

《라(으라)고》 가라고

《자고》 가자고

《라고》 《예, 가겠습니다.》라고

《답니다, ㄴ(는)답니다, 이랍니다》 가겠습니다

《답니까, ㄴ(는)답니까, 이랍니다》 가겠습니까

《랍니다/으랍니다》 가합니다

《랍니다/으랍니다》 가합니까

《잡니다》 가잡니다

《잡니까》 가합니까

△ 알아두십시오.

1) 《다고, ㄴ(는)다고, 이라고》

깨끗하다	—	
↗ 보겠다	—	
보다 → 보았다	—	
↘ 본다	—	
	—	+ 고
↗ 읽겠다	—	
읽다 → 읽었다	—	
↘ 읽는다	—	
학생 → 학생이라	—	

2) 《ㄴ(은)가고, 는가고, 인가고》

깨끗하다 → 깨끗한가	—	
높다 → 높은가	—	
보다 → 보는가	—	
읽다 → 읽는가	—	
학생 → 학생인가	—	+ 고

3) 《라(으라)고》

보다 → 보라	—	
읽다 → 읽으라	—	+ 고

4) 《자고》

보다 → 보자	—	
읽다 → 읽자	—	+ 고

5) 《답니다, ㄴ(는)답니다, 이랍니다》

깨끗하다고 합니다 = 깨끗하답니다

본다고 합니다 = 본답니다

읽는다고 합니다 = 읽는답니다

학생이라고 합니다 = 학생이랍니다

6) 《답니까, ㄴ(는)답니까, 이랍니다》

깨끗하다고 합니까 = 깨끗하답니까

본다고 합니까 = 본답니까

읽는다고 합니까 = 읽는답니까

학생이라고 합니까 = 학생이답니까

7) 《랍니다/으랍니다, 랍니까/으랍니까》

보라고 합니다=보랍니다

읽으라고 합니다=읽으랍니다

보라고 합니까=보랍니까

읽으라고 합니까=읽으랍니까

8) 《잡니다, 잡니까》

보자고 합니다=보잡니다

읽자고 합니다=읽잡니다

보자고 합니까=보잡니까

읽자고 합니까=읽잡니까

9) 《ㄴ(은)가고》=《냐(으냐)고》

깨끗한가고=깨끗하냐고

높은가고=높으냐고

《는가고》=《느냐고》

보는가고=보느냐고

《인가고》=《이냐고》

학생인가고=학생이냐고

△ 연습

1) 다음 문장을 《<다고, ㄴ(는)다고, 이라고>+하다》의 구조로 바꾸십시오.

- (1) 《목란꽃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2) 《진달래를 좋아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3) 《개선문이 보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4) 《집을 아주 빨리 짓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5) 《저것은 창석동무의 집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다음 문장을 《<ㄴ(은)가고, 는가고, 인가고>+하다》의 구조로 바꾸십시오.

- (1) 《음식이 입에 맞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2) 《편히 주무셨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3) 《아침식사를 하였습니다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4) 《방이 마음에 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5) 《우편국이 여기서 멀니까?》라고 하였습니다.
- (6) 《물이 맑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3) 다음 문장을 <<라(으)라>, <자고>+하다>의 구조로 바꾸십시오.

- (1) 《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2) 《노래를 부르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3) 《시를 읊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 (4) 《사진을 찍읍시다》라고 하였습니다.

4) 다음 문장을 《답니다, ㄴ(는)답니다, 이랍니다》로 끝나는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 (1)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 (2)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 (3) 사진을 찍겠다고 합니다.
- (4) 혁명가극을 보았다고 합니다.
- (5) 동무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 (6)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 (7) 짐을 싣는다고 합니다.
- (8) 고향이 원산이라고 합니다.

5) 다음 문장을 《답니까, ㄴ(는)답니까, 이랍니까》로 끝나는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 (1) 물이 깊다고 합니까?
- (2) 래일 떠난다고 합니까?
- (3) 짐을 다 꾸렸다고 합니까?
- (4) 소포를 찾았다고 합니까?
- (5) 전화를 걸겠다고 합니까?

- (6) 옷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까?
- (7) 형이 교통안전원이라고 합니까?
- (8) 시를 짓는다고 합니까?

6) 다음 문장을 《랍니다/으랍니다, 랍니까/으랍니까, 잡니다, 잡니까》로 끝나는 문장으로 바꾸십시오.

- (1) 자주 소식을 알려라고 합니다.
- (2) 전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 (3) 전보를 치라고 합니까?
- (4) 집에 있으라고 합니까?
- (5) 병상관에 가자고 합니까?
- (6) 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회화편

제1과. 기숙사에서

- ××동무의 방은 ×층 ×호실입니다.
- 나는 ××동무와 함께 생활합니다.
- 우리 옆방에서 ××동무가 생활합니다.
- 들어가요 괜찮습니까?
- 공부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 동무의 방은 몇층에 있습니까?
- 3층에 있습니다.
- 봉남동무의 방은 몇호실입니까?
- 325호실입니다.
- 동무는 누구와 함께 생활합니까?
- 경민동무와 함께 생활합니다.
- 동무의 옆방에서 누가 생활합니까?
- 봉남동무가 생활합니다.
- 동무의 방에 어떤 가구들이 있습니까?

• 옷장, 책장, 책상, 걸상, 침대, 텔레비존이 있습니다.

—동무의 방은 춥지 않습니까?

• 춥지 않습니다.

—방안온도가 몇도입니까?

• 21도입니다.

—동무는 몇시에 일어납니까?

• 6시에 일어납니다.

—동무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 아침체조를 하고 간단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합니까?

• 달리기, 철봉을 하고 탁구도 조금 칩니다.

—탁구를 누구와 칩니까?

• 경민동무와도 치고 봉남동무와도 칩니다.

—동무는 아침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 합니다. 나는 아침운동이 끝난 다음 방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삼십분동안 공부합니다.

—아침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 읽기 연습을 하고 단어를 외웁니다.

—동무는 숙제를 저녁에 합니까?

• 아닙니다. (나는 숙제를) 오후에 합니다.

—밤에는 몇시까지 공부합니까?

• 10시까지 공부합니다.

—동무는 10시에 잡니까?

• 아닙니다. 11시에 잡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 텔레비존도 보고 신문도 읽습니다.

※ ※ ※

— 들어가도 좋습니까?

(—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 들어가도 일 없습니까?)

• 어서 들어오십시오.

— 이렇게 찾아와서 공부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 방해되지 않습니다. 어서 앉으십시오.

— 무슨 공부를 합니까?

• 문법책을 읽습니다.

(• 잡지를 읽습니다.

•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 단어를 외우고 있습니다.)

• 무슨 일로 왔습니까?

— 한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 무슨 부탁입니까?

(• 어서 말하십시오.)

— 조선말사전을 잠깐 빌려보려고 합니다.

(— 조선말사전을 빌려볼 수 있겠습니까?

— 조선말사전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 조선말사전을 빌려주십시오.)

• 빌려가십시오.

(• 그렇게 하십시오.

• 가져가십시오.)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 며칠 봐도 되겠습니까?

— 며칠 봐도 일 없겠습니까?)

←며칠 봐도 괜찮겠습니까?

←한 이틀 봐도 일없겠습니까?

←2~3일 볼수 있습니까?)

• 며칠(하루, 이틀, 사흘...) 보십시오.

(• 내가 찾을 때 돌려주십시오.

• 이틀후에 돌려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공부하십시오. 돌아가겠습니다.

• 좀더 노십시오.

(• 좀더 이야기하십시오.)

←놀 시간이 없습니다. 가서 숙제를 하겠습니다.

• 할 일이 많습니까?

←공부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단 어

기숙사, 방, 층, 호실, 생활하다, 들어가다, 가구, 옷장, 책장, 책상, 길상, 침대, 텔레비죤, 온도, 일어나다, 체조, 청소하다, 자다

문 법

《←고있다》(행동의 지속)

• 책을 읽고있다.

• 숙제를 하고있다.

• 노래를 들고있다.

• 편지를 쓰고있다.

• 박동무와 이야기 하고있다.

(※ 동사 <있다>, <서다>, <눕다> 등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 <←아, (어, 여)있다>와 결합한다.)

해: • 걸상에 앉아있다. 복도에 서있다.

• 침대에 누워있다.

《-서(아서/어서/여서)》(이음토: 방식, 원인)

① 방식

- 일어서서 대답합니다.
- 걸상에 앉아서 신문을 봅니다.
-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② 원인

- 더워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는/니》(규정도: 《-는》은 현재, 《-니》은 과거)

- 그가 찾는 단어는 새 단어입니다.
- 본문을 읽는 동무는 철수동무입니다.*
- 우리가 공부하는 교실은 넓고 밝습니다.
- 이것은 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 이것은 박동무가 나에게 준 책입니다.
- 이것은 김동무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터》(도움토: 시작)

- 10시부터 영화를 합니다.
- 아침부터 숙제를 하였습니다.
- 어제부터 새 본문을 배웁니다.

《-까지》(도움토: 어떤 한계의 끝점)

- 12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 래일까지 끝내겠습니다.
- 청진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도》(도움토: 포함)

- 신문을 읽고 잡지도 읽습니다.
- 단어와 본문도 썼습니다.
- 어머니도 공장에서 일합니다.

《-며/으며》(이음토: 행동의 동시성, 뒤행동의 방식)

- 텔레비전을 보며 박동무와 이야기하였습니다.
-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 단어를 학습장에 쓰며 외웁니다.

《-르수 있다/-르수 없다》

- 단어를 외울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 박동무를 만날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 빨리 읽을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르/을》(규정토: 미래)

- 이것은 박동무에게 줄 책입니다.
- 오늘 읽을 책을 준비합니다.
- 동무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려고》(이음토: 의향, 의도)

- 오후에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 학습장을 사려고 상점에 들렀습니다.
- 한가지 물으려고 왔습니다.

《-히 시다》(맺음토: 권유-높임)

- 나와 같이 도서관에 갑시다.
- 학교에서 철수동무를 기다립시다.
- 책상을 깨끗이 닦읍시다.

《-십시오》(맺음토: 명령-높임)

- 어서 들어오십시오.
- 새 단어를 다 외우십시오.
-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현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동무는 아침 몇시에 일어납니까?
- 2) 동무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 3) 동무는 아침체조를 누구와 함께 합니까?
- 4) 동무는 아침체조를 어디에서 합니까?
- 5) 동무는 아침체조를 끝낸 다음 무엇을 합니까?
- 6) 동무는 몇층 몇호실에서 생활합니까?
- 7) 동무는 누구와 함께 생활합니까?
- 8) 동무의 옆방에서는 누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 9) 동무의 방에 있는 가구들을 말하십시오.
- 10) 동무의 방온도는 몇도입니까?
- 11) 동무는 아침에 어떤(무슨) 운동을 합니까?
- 12) 동무는 아침에 무슨 공부를 합니까?
- 13) 동무는 아침에 몇시간동안 공부합니까?
- 14) 동무는 숙제를 언제 합니까?
- 15) 동무는 저녁에 몇시까지 공부합니까?
- 16) 동무가 밤에 자는 시간은 몇시입니까?(동무는 밤에 몇시에 잠
니까?)
- 17) 동무는 조선말사전을 가지고 있습니까?(동무에게 조선말사전이
있습니까?)
- 18) 동무는 조선말사전을 누구에게서 빌려봅니까?
- 19) 동무는 이 책을 언제까지 빌렸습니까?
- 20) 동무는 그의 사전을 언제 돌려주겠습니까?

2.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필요한 단어(또는 토)를 쓰시오.

- 1) 나○ 아침 6시○ 일어나○ ○○를 정돈하○ ○에 나가 아침○○
를 합니다.
- 2) 나는 ○○체조○ ○ 다음 호실○ 깨끗이 ○○○○○.

- 3) 우리는 청소○ 끝내○ 7시○○ 아침○○를 합니다.
- 4) 나는 언제나 봉남동무○ 한상○○ 식사○ ○○○.
- 5) 아침식사○ 끝낸 ○○ 나는 학교○ 갈 준비○ 합니다.
- 6) 나는 7시반○○ 8시 10분○○ 단어○ ○○○○.
- 7) 우리○ 8시 10분○ 기숙사○ 떠나 학교○ 걸어○○○.
- 8) 나는 오후○ 경남동무○ ○○ 기숙사○ ○○ 탁구○ ○○○.
- 9) 나는 언제나 먼저 숙제○ 한 ○○ 텔레비존○ 보○ 휴식○ 합니다.
- 10) 나는 새 단어○ 학습장○ 열번 ○○ 그것○ 모두 ○○○○○.
- 11) 우리○ 어제 도서관○ 가○ 새 잡지○ 신문을 읽○습니다.
- 12) 박동무○ 나○ 교실○○ 공부하○ 다른 동무들○ 기숙사○ 돌아갔습니다.
- 13) 나는 어제 ○○ 단어들○ 다 외울수 ○○○○.
- 14) 나는 오후○ 도서관○○ 소설책○ 빌리○○ 합니다.
- 15) 박동무○ 읽○ 책○ 나는 지난 주일○ 읽○습니다.
- 16) 리동무는 나○○ 옷○○ 말합니다.
- 17) 나는 매일 ○○ 본문○ 열○ 읽○ 다섯○ 학습장○ 썼습니다.
- 18) 우리는 선생님○ 읽○ 문장○ 빨리 학습장○ 받아 ○○있습니다.
- 19) 철남동무○ 사전○ 빌리○○ 오전○ 나○ 방○ 왔습니다.
- 20) 경민동무는 앉○○ 문장을 쓰○ 영철동무는 서○ 선생님○ 물음○ 대답합니다.

3.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우리가 (생활하다) 방은 (크다)(밝다)
- 2) 나는 (필요하다)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다) 학습장에 (쓰다)
- 3) 나는 새로 (배우다) 단어로 (간단하다) 문장을 많이 (만들다)
- 4) 내가 영철동무에게서 (빌리다) 책은 (재미있다) 소설책입니다.
- 5) 나는 박동무가 (부락하다) 책을 도서관에서 (빌리다) 그에게 주

었습니다.

6) 경찰동무가 (읽다)(있다) 책은 소설책입니다.

7) 순희동무는 (앉다) 책을 (읽다) 옥란동무는 (서다) 그림을 봅니다.

8) 고향에서 (돌아오다) 봉남동무는 나에게 (기쁘다)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9) 마당에서 (놀다) 아이들은 (아름답다) 옷을 (입다)

10) 우리는 (재미있다) 이야기를 (하다) 휴식합니다.

4.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1) 책상, 있다, 나, 우, 신문, 주다, 경민동무

2) 나, 빌리다, 박동무, 사전, 어제, 돌려주다

3) 우리, 밝다, 방, 생활하다, 깨끗하다

4) 깨끗이, 우리, 교실, 언제나, 청소하다, 공부하다

5) 나, 가다, 시간, 경찰동무, 약속하다, 그방

6) 나, 간단하다, 쓰다, 어머니, 고향, 어제, 편지

7) 그, 찾다, 단어, 사전, 언제나, 새, 학습장, 쓰다, 외우다

8) 나, 보다, 박동무, 재미있다, 함께, 어제, 영화

9) 선생님, 설명하다, 문장, 칠판, 쓰다, 우리, 뜻

10) 영철동무, 가지다, 나, 연필, 빌려주다, 옥란동무

5. 다음의 밑줄을 그은 말에 반대되는 말을 쓰시오.

1) 기숙사에 달려갔습니다.

2) 앉아서 말합니다.

3) 단어를 외울수 있습니다.

4)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 저녁에 잡니다.

6) 많이 주었습니다.

7) 함께 떠났습니다.

8) 책상우에 놓았습니다.

6. 동무가 생활하는 기숙사와 방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제2과. 식당에서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하러 갑시다.

—동무는 아침식사를 몇시에 합니까?

—동무는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국을 한그릇만 주십시오.

—남철동무, 식사하러 갑시다.

• 지금 몇시입니까?

—1시 15분입니다.

• 벌써 한시가 넘었습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식사시간도 잊고 무엇을 볼니까?

• 오늘 신문을 읽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저도 곧 가겠습니다.

—마저 보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 괜찮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내가 식사를 청하겠습니다.

• 미안합니다.

—남철동무는 빵을 들겠습니까?

• (아니요), 나는 밥을 먹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점심에는 시원한 국수가 제일 좋습니다.

• 경민동무는 국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밥보다는 못합니다. 빵보다는 국수가 좋습니다.

• 그럼 오늘 점심에는 국수와 밥을 먹읍시다.

—동무는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까?

•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과 고기볶음이 매운것 같습니다. 먹을수 있겠습니까?

• 괜찮습니다. 매운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수 있습니다.

—국이 짜지 않습니까?

• 짜지 않습니다. 고기볶음이 조금 싱거운것 같습니다.

—싱거우면 간장을 조금 치십시오. 소금도 있습니다.

• 소금이 필요없습니다. 간장을 치겠습니다.

—김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 좋아합니다. 나는 고기볶음보다도 김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김치를 좋아합니다.

김치맛이 어떻습니까?

• 아주 좋습니다.

—단음식을 좋아합니까?

• 나는 단음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탕, 파자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먹습니다.

—동무는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과를 드십시오. 나는 사과보다 배를 좋아합니다. 배를 먹겠습니다.

• 사과도 한개 드십시오. 아주 맛있는 사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먹겠습니다.

• 차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마시지 않겠습니다.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 사이다보다 신덕샘물이 낫지 않습니까?

—신덕샘물이 있습니까?

- 여기 있습니다. 마시십시오.
- 감사합니다.

단 어

식사, 음식, 국, 그릇, 벌써, 빨리, 곧, 먼저, 빵, 밥, 국수, 점심, 먹다, 맵다, 고기볶음, 짜다, 싱겁다, 간장, 치다, 소금, 김치, 아주, 달다, 사탕, 파자, 과일, 사과, 배, 맛있다, 차, 마시다, 사이다, 샘물

문 법

《-게》(꾸밈토: 방도, 정도, 한계)

-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 (정확하다)
-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아름답다)
- 글자를 크게 썼다. (크다)

(※ 동사가 《-게》 형태로 되었을 때에는 보통 그뒤에 동사 《하다》, 《되다》, 《만들다》가 온다)

례: • 일찌기 돌아오게 하였다.

• 그를 10시에 만나게 되었다.

• 그는 만년필을 못쓰게 만들었다.

《-보다》(도움토: 비교)

- 만년필보다 연필이 길다.
- 봄보다 여름이 더 덥다.
- 자동차보다 비행기가 더 빠르다.
- 듣기보다 말하기가 더 힘들다.

《-면》(이음토: 가정-조건)

- 더우면 창문을 열겠습니다.
-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사전이 있으면 빌려주십시오.

《-러》(이음토: 목적)

- 학습장을 사^리 상점에 갑니다.
- 영수동무를 만나^리 왔습니다.
- 그의 이야기를 들으^리 갔습니다.

(※ 동사의 <ㄹ>형태 다음에는 보통 동사 <가다>, <오다>가 쓰인다.)

<ㄹ-는(은, 니, 을, 르)것 같다>

- 박동무가 만년필을 찾는것 같습니다.
- 강의가 끝난것 같다.
- 동무들이 래일 돌아올것 같습니다.
- 래일 날씨가 추울것 같습니다.
- 저 동무는 대학생인것 같습니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 1) 몇시부터 점심식사시간입니까?
- 2) 동무는 무엇하러 도서관에 갑니까?
- 3) 동무는 사전을 빌리러 어디에 갑니까?
- 4) 동무는 아침식사가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 5) 남철동무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날라옵니까?
- 6) 동무는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 7) 동무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동무의 어머니는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 8) 기숙사식당에서는 무슨 음식을 만들어줍니까?
- 9) 국이 싱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 10) 국에 소금을 많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 11) 김치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 12) 동무는 무슨 과일을 좋아합니까?
- 13) 사랑보다 과자가 더 답니까?
- 14) 동무는 단물보다 사이타를 더 좋아합니까?

2. 빈자리에 필요한 단어(또는 토)를 쓰시오.

- 1) 철남동무○ 식사○○도 ○○ 공부하○ 학생입니다.
- 2) 우리는 ○○ 일요일○ 거리○ ○○○ 열음보숭이를 사먹○습
니다.
- 3) 우리 기숙사○ 수도○○○ 언제나 찬물과 ○○○ 물이 나오
니다.
- 4) 영수동무○ 경선동무○ ○○○ 한상○ 앉아서 ○있게 식사합
니다.
- 5) 상○○○ 여러○○ ○○과 꽃병이 놓여○○○○○.
- 6) 옥란동무○ 국수○ 좋아하○○ 순희동무는 밥○ 좋아합니다.
- 7) 우리는 식당○○ ○○○ 사이다와 단물을 ○○○ 재미있○ 이야
기를 나누었습니다.
- 8) 침대○○○ ○○ 깨끗한 하불○ 퍼있습니다.
- 9) 경민동무는 사전○ 책장○○ 넣○ 교과서는 책상○○ 놓았습
니다.
- 10) 나는 식사할 ○ 국이 ○○○○ 소금을 조금 ○○○○.
- 11) 그는 사과○ 깎○○ 나○○ 주○습니다.
- 12) 이 그림은 저 그림○○ ○게 그렸습니다.
- 13) 봉남동무는 불○ 연필을 깎아 동생○○ 주었습니다.
- 14) 선생님이 본문○ 읽으시○ 우리는 ○○읽습니다.
- 15) 우리는 한 문장○ ○○읽○○ 발음연습을 합니다.
- 16) 봄○ 오면 꽃○ 피○ 시작합니다.
- 17) 우리는 5시○○ 숙제를 하○ ○○○○○○○○.
- 18) 바깥날씨는 추운것 같지○ 방안○ 춥○ ○○○○.

3.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국이 (싱겁다) 소금을 (치다)
- 2) 그는 내가 (날라오다) 국을 (반다) 상우에 놓았습니다.
- 3) 수도에서는 언제나 (뜨겁다) 물과 (차다) 물이 함께 나옵니다.
- 4) 나는 침대에 이불을 (퍼다) 자리에 누웠습니다.

- 5) 그는 (맷다) 음식을 (좋다)(않다)
- 6) 우리는 (시원하다) 사이다를 (마시다)(즐겁다) 이야기하였습니다.
- 7) 나는 박동무가 (좋아하다) 사과를 (사다) 상점에 갑니다.
- 8) 그는 우리가 (칭하다) (시원하다)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 9) 경민동무는 신문을 (펴다) 책상위에 (놓다) 읽습니다.
- 10) 그는 책방에서 (사다) 책을 가방에 (넣다)(들다) 갑니다.

4. 다음의 부사들을 필요한 자리에 넣으시오.

가끔, 아직, 그냥, 어서, 새로, 벌써, 특별히, 마주, 곧, 먼저, 아주, 매우, 꼭

- 1) 박동무는 탁구를 잘 칩니다.
- 2) 경남동무는 다른 동무들보다 공부를 잘합니다.
- 3)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새 영화를 봅니다.
- 4) 나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가겠습니다.
- 5) 우리는 책을 빌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 6) 나는 텔레비존을 보고 다음에 신문을 읽습니다.
- 7) 남철동무는 숙제를 다 하였습니다.
- 8) 저 훌륭한 집은 지난해에 지었습니다.
- 9) 나는 이번 시험에서 최우등을 하겠습니다.
- 10) 앉으십시오. 함께 영화를 봅시다.
- 11) 우리들가운데서 남철동무가 숙제를 먼저 끝냈습니다.
- 12) 나와 봉남동무는 언제나 한상에 앉아서 식사합니다.
- 13) 경희동무는 노래를 잘 부릅니다.
- 14) 박동무가 돌아오면 고향소식을 들을수 있습니다.
- 15) 나는 조선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5. 다음의 단어들에 알맞는 단어들을 결합시키시오.

본보기: 맛이—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맛이 좋다, 맛이 들다,

맛을—맛을 보다, 맛을 알다

사과가

사과를

사이다가	사이다를	
국이	국을	국에
꽃병이	꽃병을	꽃병에
상보가	상보를	
그릇이	그릇을	그릇에

6. 다음의 단어들을 알맞게 결합시키시오.

사랑	매우	마시다
맛	많이	깨다
차	상	퍼다
그릇	담다	
국	있다	먹다
소금	맛있게	짜다
국수	그릇	맛있다
사과	병	달다
사이다	칼	아름답다
파자	아주	뜨겁다
닭알	조금	넣다
검치	아직	시원하다
싱겁다	깨끗하다	

제3과. 교실에서

- 학교는 기숙사에서 멀지 않습니다. (가깝습니다)
- 우리 교실은 ×호교사 ×층에 있습니다.
- 우리는 교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 첫 강의는 8시에 시작됩니다.

—동무네 교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1호교사 3층에 있습니다.

—1호교사는 기숙사에서 멀니까?

• 멀지 않습니다.

—철수동무네 교실도 1호교사에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교실옆입니다.

—동무네 교실에는 창문이 몇개 있습니까?

• 큰 창문이 두개 있습니다. 우리 교실은 아주 밝습니다.

—동무네 학급은 모두 몇명입니까?

• 여섯명입니다.

—모두 남동무들입니까?

• 아닙니다. 남자 네명, 여자 두명입니다.

—철수동무네 학급은 몇명입니까?

• 다섯명입니다. 그 학급에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 다섯명입니다. 모두 남자들입니다.)

—동무네 학급에서는 한책상에 몇사람씩 앉습니까?

• 두사람씩 앉습니다.

—책상이 모두 세개입니까?

• 아닙니다. 여섯개입니다. 책상 세개가 남습니다. (세개의 책상이
빈니다.)

—동무는 누구와 같이 앉습니까?

• 남철동무와 같이 앉습니다.

—동무는 제일 앞줄에 앉습니까?

• 아닙니다. 두번째 줄에 앉습니다. 제일 앞줄에는 녀동무들이 앉
습니다. (첫 줄은 녀동무들의 자리입니다.)

—동무는 오른쪽에 앉습니까?

• 아닙니다. 왼쪽에 앉습니다. 오른쪽은 남철동무의 자리입니다.
(오른쪽에는 남철동무가 앉습니다.)

—동무네 교실에는 전등이 몇 개 있습니까?

• 네 개 있습니다.

—동무들은 오후에도 교실에서 공부합니까?

• 아닙니다. 오후에는 기숙사에서 공부합니다. 때때로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공부합니다.

단 어

학교, 교실, 교사, 청소하다, 강의, 시작되다, 바로, 창문, 밝다, 학습, 남자, 여자, 책상, 줄, 오른쪽, 왼쪽, 자리, 전등, 오후, 공부하다

문 법

《—시》(존경토)

- 아버지는 신문을 보십니다.
- 선생님이 철판에 쓰신 단어
-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물으시였습니다)

《—기》(바꿈토: 용언을 체언형으로 만들어준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수법의 뜻을 나타낸다.)

- 그는 숙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 이 문장은 리해하기 어렵습니다.
- 그는 책을 읽기 좋아한다.

(※ 동사가 《—기》형태로 되면 그뒤에 일반적으로 《시작하다》, 《어렵다》, 《쉽다》, 《좋다(좋아하다)》, 《나쁘다(나빠하다)》와 같은 동사, 형용사들이 온다.)

《—히》(상토: 입음상, 시킴상의 뜻. 줄기가 《기, 니, 스》와 같은 받침으로 끝났을 때 쓰인다.)

- 바람에 창문이 닫혔다. (닫히였다)
- 어머니는 아이를 침대에 놓칩니다.

(※ 아이가 침대에 놓습니다.)

-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본문을 읽힌다. (학생들이 본문을 읽는다.)

《—라고》(전달법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어준다.)

“그는 나에게 도서관에 빨리 가라고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빨리 가십시오.》 그는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우리에게 읽기 연습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읽기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었습니다.)

• 나는 박동무에게 사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사진을 빌려 주십시오.》 나는 박동무에게 부탁하였다.)

(※《-라고》는 전달내용이 시키는 내용일 때에 쓰인다.)

《-아(어, 여)있다》(어떤 행동, 상태가 이루어져 계속 진행됨을 나타낸다.)

• 박동무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 벽에 옷이 걸려 있다. (걸리여 있다)

• 필통에 연필, 만년필, 지우개, 원주필이 들어 있었다.

연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어제는 날씨가 어떠하였습니까?
- 2) 오늘은 어제보다 춥지 않습니까?
- 3) 여덟시에 동무는 누구의 방에 찾아갔습니까?
- 4) 동무는 봉남동무의 방에 가서 그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 5) 동무들의 교실은 어느 교사 몇층에 있습니까?
- 6) 교실에는 책상과 걸상이 몇개가 있으며 그것들은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 7) 교탁우에 무엇이 있으며 그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 8) 동무들은 교실청소를 언제 어떻게 합니까?
- 9) 교실바닥과 책상, 걸상을 무엇으로 닦습니까?
- 10) 바깥에 있는 물은 어지럽지 않습니까?
- 11) 첫 강의는 몇시에 시작됩니까?
- 12) 강의를 시작되기전에 동무들은 무엇을 합니까?

- 13)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 14) 새 본문을 배우기전에 선생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 15) 학생들은 모두 숙제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 16) 선생님이 새 본문을 읽으실 때 학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 17) 따라읽기를 할 때 어떤 단어들을 여러번 따라읽습니까?
- 18) 학생들은 새 단어로 문장을 몇개씩 지어습니까?
- 19) 어떤 단어의 발음이 제일 어렵습니까?
- 20) 읽기보다 쓰기가 더 힘듭니까?
- 21)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어느것이 제일 힘듭니까?
- 22) 학생들은 조선말시간에 무슨 연습을 제일 많이 합니까?
- 23) 학생들은 조선말을 빨리 배우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 24)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 25) 학생들은 숙제를 어느 시간에 합니까?

2. 빈자리에 필요한 단어(또는 토)를 쓰시오.

- 1) 나는 봉남○○○ 한자리○ 앉○○ 공부합니다.
- 2) 우리는 강의○ 시작○○전○ 조용히 앉○○ 새 ○○를 ○○○○.
- 3) 봉남동무○ 새 본문을 읽○○ 나는 조용히 ○ 습니다.
- 4) 첫 강의○ 8시○ 시작○○ 둘째 강의는 10시 10분○ 시작됩니다.
- 5) 학생들은 강의○ 시작되기○○ 교실○ ○○○ 청소합니다.
- 6) 봉남동무는 창유리를 ○○ 철민동무○ 책상○ 걸상○ ○○○ 닦 습니다.
- 7) 학생들은 자기들이 지○ 문장○ 칠판○ 쓰○ 선생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 8) 학생들은 새 본문 따라○○○ 세○ 하○ 새 단어○ 학습장○ ○ ○○.
- 9) 강의○ 끝나○ 선생님은 학생들○○ 숙제○ ○○○○.
- 10) 기숙사○○ 대학○○ 멀○ ○○○○.
- 11) 학생들은 매일 걸○○ 학교○ 다닙니다.

- 12) 학생들은 그날 ○○ 새 단어들○ 그날 다 ○○○○.
- 13) 우리는 두강의○ 끝나○ 곧 기숙사○ 돌아○○○.
- 14) 우리는 오후○ 기숙사○○ 읽○련습, 쓰○○○, 말○○련습,
듣○련습을 많이 합니다.
- 15) 우리는 새 단어들○ 사전○○ 찾○○ ○○○에 씁니다.
- 16) 말○○는 듣기○○ 더 힘듭니다.
- 17) 따라○○를 많이 해○ 정확히 읽○수 있습니다.
- 18) 우리는 언제나 ○○ 조선말○ 말하○○ 합니다.

3. 묶음표안의 단어를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봉남동무는 (비다) 자리에 (앉다) 책을(읽다)있습니다.
- 2) 교실에 (남다) 학생들은 창유리와 책상, 걸상을 (깨끗하다) 닦
았습니다.
- 3) 학생들은 (맑다)(개이다) 날씨에 바다가로 나갑니다.
- 4) 우리는 언제나 (맑다)(깨끗하다) 교실에서 서로 (돕다) 공부합
니다.
- 5) 밖에서 문을 (두드리다) 소리가 (가볍다) 들립니다.
- 6) (넓다) 방안에 햇빛이 (밝다) 비칩니다.
- 7) 봉남동무는 먼저 교실바닥을 (쓸다) (깨끗하다) 걸레로 책상과
걸상을 닦았습니다.
- 8) 내가 창유리를 (닦다) 때에 봉남동무가 바깥쪽을 (들다) 들어왔
습니다.
- 9) 선생님은 숙제를 (검열하다) 칠판에 새 단어들을 (쓰다) 뜻을 설
명하십니다.
- 10) 종이 (울리다)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오다) 자기 자리에 앉습
니다.
- 11) 선생님은 (어렵다) 단어들을 여러번 (읽다) 그 뜻을 설명하십
니다.
- 12) 걸상은 책상보다(가볍다) 책상은 걸상보다 큼니다.

13) 여름에는 창문으로 (뜨겁다) 햇빛이 비칩니다.

14) 내가 바닥을 (밀다)(시작하다) 다른 동무들은 책상과 걸상을 닦았습니다.

15) 철민동무는 책상위에 (놓다)(있다) 사전을 책상안에 (넣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4. 다음의 부사들을 필요한 자리에 넣으시오.

바로, 천천히, 가득, 조용히, 때때로, 아직, 그냥, 먼저

1) 그는 창유리를 닦지 않았습니까.

2) 봉남동무는 분필통에 분필을 담았습니다.

3) 나는 봉남동무의 방에 가서 그와 함께 숙제를 합니다.

4) 종이 울리면 우리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5) 선생님은 새 단어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6) 우리는 교실바닥을 쓸고 책상과 걸상을 닦습니다.

7) 점심시간이 되어도 철민동무는 책을 읽고있었습니다.

8) 그는 학습장을 책상위에 놓고 단어들을 씩니다.

9) 나의 옆자리는 빕니다.

5. 다음의 단어들로 문장을 지으시오.

1) 교실, 우리, 읽기 연습, 남다, 하다

2) 학생, 운동, 넓다, 하다, 마당

3) 있다, 오른쪽, 창문, 왼쪽, 있다, 출입문

4) 앞줄, 앉다, 나, 철민동무, 옆줄, 그, 박동무, 앉다

5) 가다, 공원, 개이다, 날씨, 래일, 우리

6) 걸상, 책상, 가볍다, 교탁, 가볍다, 책상

7) 청소하다, 언제나, 맑다, 우리, 교실, 물

8) 쓸다, 바닥, 밀대, 다음, 밀다, 닦다, 걸레, 책상

9) 천천히, 본문, 선생님, 따라읽다, 먼저, 읽다, 우리

10) 종, 우리, 울리다, 자리, 앉다, 자기, 조용히, 공부하다

11) 물, 깨끗하다, 바깥, 차다, 가득, 있다

- 12) 경남동무, 밀다, 사이, 바닥, 텃다, 나, 책상
 13) 설명하다, 단어, 어렵다, 선생님, 쓰다, 학습장, 학생
 14) 학생, 놓다, 만년필, 책상, 듣다, 조용히, 설명, 선생님
 15) 교실, 책상, 다섯줄, 한책상, 앉다, 두, 학생, 놓여있다

6. 다음의 표현들과 반대되는 표현을 쓰시오.

- 1) 천천히 가다.
- 2) 가벼운 짐을 들다.
- 3) 오른쪽벽에 붙이다.
- 4) 밝은 색이 좋다.
- 5) 자동차는 멀리 가다.
- 6) 책상이 두개 모자라다.
- 7) 흐린 날씨에 떠나다.
- 8) 좁은 길로 사람이 오다.

제4과. 도서관에서

- 나는 매일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합니다.
 — 우리 도서관은 아침 ×시부터 밤 ×시까지 문을 엽니다.
 — 이 책을 며칠동안 빌려볼수 있습니까?
 — 이 책들을 다 바치겠습니다.

— 칠남동무는 지금 어디에 갑니까?

• 그는 도서관에 갑니다.

— 도서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학교 뒤에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몇시부터 일을 봅니까?

(도서관은 몇시부터 일을 시작합니까? 도서관은 몇시에 문을 엽니까?)

• 여덟시부터 일을 봅니다.

(×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시에 문을 엽니다.)

—대출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층에 있습니다.

—무슨 책을 빌리겠습니까?

• 소설을 빌리겠습니다. (소설을 빌리려고 합니다.)

—한번에 여러 권을 빌릴수 있습니까?(한번에 여러 책을 빌려볼수 있습니까?)

• 세권까지 빌릴수 있습니다. (세책까지 빌려볼수 있습니다.)

—며칠동안 빌려볼수 있습니까?

• 한달동안 빌려볼수 있습니다.

—사전은 어디에서 빌려줍니까?

• ×층 대출실에서 빌려줍니다.

—사전도 여러날 빌려갈수 있습니까?

• 사전은 빌려갈수 없습니다. 열람실에서만 빌려볼수 있습니다.

—잡지를 여기에서 빌려볼수 있습니까?

• 잡지는 여기에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신문잡지열람실이 ×층에 따로 있습니다.

—잡지도 열람실에서만 빌려볼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예)

—요사이 새 책들이 들어왔습니까?

• 새 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 책 목록을 볼수 있습니까?

• 보십시오. 이 《새 책 안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함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몇시까지 일을 봅니까?(몇시에 문을 닫습니까?)

• 11시까지 (일을) 봅니다.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에도 문을 열니까?

• 열니다.

단 어

도서관, 열다, 책, 빌려보다, 바치다, 일을 보다, 대출실, 층, 소설, 권, 며칠, 사전, 열람실, 잡지, 신문잡지열람실, 요사이, 새 책, 목록, 새 책 안내, 목록함

문 법

《—다가》(이음토: 이미 하던 행동을 끝냈거나 중도에 그만두고 다른 행동으로 넘어감을 나타낸다.)

• 숙제를 하다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 본문을 읽다가 단어를 외웠습니다.

• 우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 외투를 입었다가 벗었습니다.

• 준비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면서》(이음토: 두가지 행동이 동시에 진행, 앞의 행동이 뒤의 행동의 방식으로 된다.)

•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로 갑니다.

•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 그는 본문을 읽으면서 단어를 외웁니다.

《—만》(도움토: 제한, 강조)

• 철민동무만 교실에 남았습니다.

• 학습장을 세권만 사다주십시오.

• 학생들은 한강의만 받고 견학을 갔습니다.

• 우리는 강의가 시작되기만 기다렸습니다.

• 그는 새 책만 보면 다 사려고 합니다.

《—지만》(이음토: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뒤의 사실에 맞세움)

• 바람이 불지만 춥지 않습니다.

• 번역하는 것도 좋지만 말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 발음이 어렵지만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에 대하여》(어떤 행동이 향해지는 대상을 가리킨다.)

• 새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새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 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 그는 이 문제를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 그는 조선에 대하여 아는 것을 다 말하였다.

《—을/를 비롯하여》(여러 대상, 사실을 말할 때 첫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

•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책을 샀다.

• 철남동무를 비롯하여 여러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비롯하여 좋은 가극을 많이 보았습니다.

런 슷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1) 학교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2) 도서관은 몇시에 문을 엽니까?

3) 동무는 누구와 함께 도서관에 다닙니까?

4) 신문, 잡지들은 어디에서 읽을 수 있습니까?

5) 새 책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6) 책을 며칠 동안 빌려볼 수 있습니까?

7) 한번에 여러 권의 책을 빌려갈 수 있습니까?

8) 동무는 요사이 도서관에서 무슨 책을 빌려봅니까?

9) 신문, 잡지들을 모든 열람실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 10) 동무는 어느 시간에 도서관에 갑니까?
- 11) 동무는 요사이 무슨 책을 읽습니까?
- 12) 학교도서관에는 어떤 열람실들이 있습니까?
- 13) 동무는 지난주에 빌린 책을 바쳤습니까?
- 14) 목록실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 15) 대출실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 16) 경민동무는 목록실에서 무엇을 하였습니다?
- 17) 경민동무가 열람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 18) 옥란동무는 도서관에 가서 먼저 어디에 들렀습니까?
- 19) 학생들은 3층열람실에서 무슨 책을 읽고있었습니까?
- 20) 경민동무와 옥란동무는 어디에서 봉남동무를 만나 기숙사로 돌아왔습니까?
- 21) 봉남동무는 왜 3층열람실에 왔다가 2층열람실로 내려가 공부하였습니까?
- 22) 경민동무와 그의 친구들은 기숙사에 돌아오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 23) 도서관에서 몇시까지 공부할수 있습니까?

2. 빈자리에 필요한 단어(또는 토)를 쓰시오.

- 1) 기숙사○○ 도서관○○ ○니까?
- 2) 도서관○ 몇시○○ ○을 ○니까?
- 3) ○○는 ○○와 ○○ 도서관○ 다닙니까?
- 4) 학생들은 열람실○○ ○○○ 공부○○○.
- 5) 신문, 잡지 열람실○○○ 신문, ○○○ 읽○○ 있습니다.
- 6) ○○○에는 크○작○ 여러○○ 열람실이 있습니다.
- 7) 도서관○○○ 언제나 많○ 학생들○ 열심히 공부○○○있습니다.
- 8) 새 책○ ○○에서 찾○볼○ 있습니까?
- 9) 도서관○○○ 책○ 한번○ 세권○○ 빌려○○ 있습니다.

- 10) 동무○ 요사이 ○○ 책○ ○○봅니까?
- 11) 도서관○ 열람실○모두 깨끗하○ ○습니다.
- 12) ○○실은 책○ 빌려○○곳입니다.
- 13) 나○ 지난주○ 세○○ 책○ 빌렸습니다.
- 14) 봉남동무는 지난주 ○○○에 빌린 ○을 바치○ 새 책을 ○○
○○○.
- 15) 우리○ 매일 강의○ 끝나○ 도서관○ 가○ 공부합니다.
- 16) 우리는 도서관○ 다닐 ○ 재미있○ 말을 주교○○○○.
- 17) 도서관은 밤 열한○○○ 일○ ○니다.
- 18) 도서관○○○ 아침○○ ○○까지 많○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3. 다음의 두 문장을 《-면서》 형태로 이으시오.

- 1) 철남동무는 본문을 읽습니다. 새 단어를 외웁니다.
- 2)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학습장에 씁니다.
- 3) 그는 걸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 4) 그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맛있게 식사합니다.
- 5) 눈이 옵니다. 바람이 불니다.
- 6) 철남동무는 교실에 들어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 7) 그들은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 8) 옥란동무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4. 다음의 두 문장을 《-다가》 형태로 이으시오.

- 1) 영희동무는 책을 읽습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 2) 그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습니다. 단어의 뜻을 몰았습니다.
- 3) 학생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 4) 영철동무는 경민동무를 기다립니다. 먼저 기숙사에 갔습니다.
- 5) 우리는 거리에 나갑니다.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 6) 나는 새 단어를 외웁니다. 문장짓기를 하였습니다.
- 7) 나는 봉남동무의 사전을 빌렸습니다. 약속한 날자에 돌려주었습니다.

8) 우리는 책방에 들렀습니다. 역전에 나갔습니다.

5. 다음의 두 문장을 《—지만》 형태로 이으시오.

1) 극장이 멀니다. 우리는 걸어갑니다.

2) 설명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3) 박동무는 탁구선수입니다. 박동무는 축구도 잘합니다.

4) 바람이 불니다. 춥지 않습니다.

5) 이야기를 듣는것이 좋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것이 더 좋습니다.

6) 경민동무를 만났습니다. 고향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7) 순희동무는 세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8) 본문을 열번 읽었습니다. 아직 더 읽어야 합니다.

9)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10) 지금은 봄입니다. 아직 날씨가 춥니다.

6. 묶음표안의 단어를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1) 박동무가 (번역하다) 문장이 (정확하다) 되었습니다.

2) 우리는 아래층에(내려가다) 탁구를(치다)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3) 나는 창문곁에 (다가가다) 밖을 (내다보다) 동무들을 생각하였습니다.

4) 나는 그의 주소를 (적다) 수첩을 기숙사에 (두다)왔습니다.

5) 나는 지난주에 (빌리다) 책을 (바치다) 새 책을 빌렸습니다.

6) 우리는 (공부하다) 내용을 (토론하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7) 우리는 극장에 (들어가다) 안내원동무가 (안내하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8) 창문을 (열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9) 그는 교실문을 조용히 (닫다) 복도에 (나가다) 봉남동무를 만났습니다.

- 10) 나는 래일 시간표를 (모르다) 철남동무에게 물었습니다.
- 11)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다) 학교에 갑니다.
- 12) 우리는 극장에 (가다) 거리에서 옥란동무를 만났습니다.
- 13) 옥이학생은 춤을 잘 (추다) 노래는 잘 (부르다) 못합니다.
- 14) 나는 박동무를 여러곳에서 (찾다)(만나다)수 없었습니다.

제5과. 거리에서

- ××거리에 책방이 있습니까?
 —××거리에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천리마거리에 평양체육관이 있습니다.
 —××거리에 가려면 ×번정류소에서 버스(무궤도전차)를 타십시오.

- ××동무, 거리에 나갑시다.
 • 좋습니다. 갑시다.
 —동무(손님),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물읍시다.
 • 어서 말씀하십시오.
 —평양체육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천리마거리에 있습니다.
 —천리마거리에 가자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 저기 3번정류소에서 무궤도전차를 타고가다가 다섯번째 정류소에서 내리면 됩니다.
 —지하철도 전우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 2.8문화회관앞 큰길 건너에 있습니다.

—이 버스가 동평양으로 건너가는 버스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 버스를 타면 동평양경기장으로 갈수 있습니까?

• 동평양경기장으로 가려면 이 버스를 타고가다가 음악대학앞에서 내리십시오.

—창광산려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천리마거리에 있습니다.

—평양체육관에서 됩니까?

• 아닙니다. 바로 체육관옆에 있습니다.

—창광원도 창광산려관가까이에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창광산려관옆에 있습니다. 창광원앞 길건너편에 빙상관이 있습니다.

—개선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 개선문은 김일성경기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락원거리에 영화관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락원영화관입니다.

—대동문영화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학생소년궁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학생소년궁전에 가보았습니까?

—가보았습니다.

• 그러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학생소년궁전앞 큰길옆에 있습니다. 영화관오른쪽에 15층합식아파트가 있습니다.

—외국문책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제1백화점 왼쪽 큰길건너편에 있습니다.

—인민대학습당이 김일성광장에서 됩니까?

• 아닙니다. 김일성광장 주석단 바로 뒤에 있습니다.

—보통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보통문은 천리마거리와 창광거리의 어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문까지 멀니까?

- 멀지 않습니다. 15분 걸으면 갈수 있습니다. (걸어서 15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에 공중전화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여기서 곧추 150미터쯤 가면 큰길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우편국까지 멀니까?

- 조금 멀니다. 여기서 지하철도를(전동차를) 타고가서 봉화역에서 내리십시오. 그 역 왼쪽 큰길을 따라 곧추 200미터쯤 가면 있습니다.

단 어

거리, 책방, 가다, 천리마거리, 평양체육관, 정류소, 버스, 무궤도 전차, 말씀, 물다, 지하철도, 2.8문화회관, 큰길, 건너가다, 동평양경기장, 음악대학, 내리다, 관광산려관, 창광원, 빙상관, 개선문, 김일성경기장, 바로, 락원거리, 락원영화관, 대동문영화관, 학생소년궁전, 맞은편, 15층탑식아파트, 외국문책방, 인민대학습당, 김일성광장, 보통문, 공중전화, 국제우편국, 조금, 곧추

문 법

《—니》(이음토: 원인, 근거)

- 동무를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 선생님이 찾으시니 가보시오.
- 청소를 자주 하니 교실이 아주 깨끗합니다.

《—던》(규정도: 과거지속)

- 이 책은 그가 읽던 책입니다.
- 동무가 보던 신문을 봅시다.
- 노래를 부르던 옥회동무가 춤을 춥니다.

《—려면》(이음토: 의도하는것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내세운다.)

- 그 동무를 만나려면 기숙사에 찾아가십시오.
- 사진을 보려면 우리 방에 오십시오.
-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보려면 대극장에 가야 합니다.

《—처럼》(도움토: 비교되는 대상)

- 겨울이지만 봄날처럼 따뜻합니다.
- 그는 외국인이지만 조선사람처럼 조선말을 합니다.
- 그의 눈은 셋별처럼 빛났다.

《—기로 하다》(계획, 약정)

- 우리는 12시까지 박동무를 기다기로 하였습니다.
- 나는 도서관에서 경민동무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 10시부터 새로 나온 영화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야(어야, 여야) 하다》(요구, 의무성)

- 학생은 공부를 잘하아야 합니다.
- 우리는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 언제나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천리마거리에는 어떤 큰 건물들이 있습니까?
- 2) 체육관앞에 인민문화궁전이 있습니까?
- 3) 창광원은 어느 거리에 있습니까?
- 4) 김일성경기장에서 개선문은 멀니까?
- 5) 창광거리에는 몇층 아파트들이 있습니까?
- 6) 외국문책방이 천리마거리에 있습니까?
- 7) 인민대학습당 근방에 어떤 큰 건물이 있습니까?
- 8) 보통문은 어디에 있으며 언제 건설된 건물입니까?
- 9) 국제우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 10) 봉남동무와 경민동무가 거리구경을 한 날은 날씨가 어떠하였습니까?
- 11) 봉남동무와 경민동무는 먼저 어디를 구경하기로 하였습니까?
- 12) 봉남동무와 경민동무는 어느 역에서 전동차를 탔습니까?

- 13) 전동차에서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 14) 전동차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 15) 봉남동무와 경민동무는 어느 역에서 내렸습니까?
- 16) 락원거리를 구경한 봉남동무와 경민동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 17) 천리마거리는 언제 건설하였습니까?
- 18) 창광거리는 언제 건설되었습니까?
- 19) 창광거리의 살림집들은 어떻게 꾸려져있습니까?
- 20) 봉남동무와 경민동무는 창광거리를 구경하고 어디에서 휴식하였습니까?
- 21) 동무는 어느 공원을 구경하였습니까?
- 22) 공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 빈자리에 필요한 단어(또는 토)를 쓰시오.

- 1) 우리○ ○○ 일요일○ 천리마○○를 구경하○습니다.
- 2) 천리마거리○ ○○ 아름다○ 거리○○○.
- 3) 천리마거리○○ 크○ 아름다○ 건물들이 ○○○○.
- 4) 천리마거리 가까이○ ○○○ 창광거리가 있습니다.
- 5) 창광거리의 ○○집들은 ○○ 아주 ○○합니다.
- 6) 사람들은 ○○에서 가족들○ ○○ 즐겁○ 휴식합니다.
- 7) 공원○○ 여러가지 나무들○ ○○○○ 꽃들이 ○○○○.
- 8) 봉남동무○ 그○ ○○들은 지하○○를 타○ 거리구경을 떠났습니다.
- 9) 우리○ 거리○○을 하○○ 사진○ 찍었습니다.
- 10) 만수대○○극장앞○○ 아름다○ 공원이 있습니다.
- 11) 인민대학습당은 매우 크○ 아름답○ 훌륭한 ○○입니다.
- 12) 천리마거리○ 1970년○ 건설○ 아름다○ 거리입니다.
- 13) 거리○○ 언제나 많은 사람들○ 자동차들이 ○○○○.
- 14) 우리는 승리거리○ ○○ 외국문책방○ 가○○ 합니다.
- 15) 거리○ 큰 ○○들이 많○○ 공기가 깨끗합니다.

3.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박동무는 나에게 자기가 (모다) 신문을 주었습니다.
- 2) 나에게는 아버지가 (쓰다) 만년필이 있습니다.
- 3) 어제 동무의 방에 (오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 4) 어제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다) 사람은 배우입니다.
- 5) 그는 이전에 도서관에서 (빌리다) 책을 다시 빌렸습니다.
- 6) 오늘 이렇게 동무를(만나다) 정말 기쁩니다.
- 7) 창문을 (열다) 시원하여 좋습니다.
- 8) 동무의 이야기를 (들다) 그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 9) 우리가 사흘후에 (돌아오다) 그때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 10) 우리가 철남동무네 집에 (들리다) 그는 먼저 떠났습니다.
- 11) 경민동무를 (만나다) 도서관에 가십시오.
- 12) 최우등을 (하다) 공부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 13) 경기에서 (이기다) 연습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 14) 새 영화를 (구경하다) 락원영화관에 가십시오.
- 15) 전보를 (치다) 우편국에 가십시오.

4. 다음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기로 하고》 형태로 고치시오.

- 1) 우리는 봉남동무를 (만나다) 그의 집에 들렸습니다.
- 2) 나는 한주일후에 (돌려주다) 그의 사전을 빌렸습니다.
- 3) 그는 2시까지 (돌아오다) 8시에 기숙사를 떠났습니다.
- 4) 그들은 10시차를(타다) 9시에 역전에 나갔습니다.
- 5) 우리는 오후에 거리구경을 (하다) 숙제를 오전에 다 하였습니다.
- 6) 나는 다음날 새벽차로 (떠나다) 저녁 일찌기 왔습니다.
- 7) 그들은 철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다) 철이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 8) 학생들은 저녁에 다시 (모이다) 헤어졌습니다.

5. 다음 문장들의 필요한 자리에 묶음표안의 단어를 써넣으시오.
 (약간, 몹시, 어느새, 잠시, 곧추, 맨마지막, 새벽, 쫘, 중심, 어구, 량편, 근방, 탐식)

- 1) 영남동무는 뒤줄에 앉아서 공부합니다.
- 2) 우리는 휴식하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 3) 옥란동무는 첫 강의에 늦어졌습니다.
- 4) 오늘은 더운 날씨입니다.
- 5) 나는 아침 다섯시에 일어나서 읽기련습을 합니다.
- 6) 대학앞 큰길로 가면 지하철도역이 있습니다.
- 7) 천리마거리에 보통문이 있습니다.
- 8) 창광거리에는 살림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 9) 그들은 숙제를 다 하고 텔레비존을 봅니다.
- 10) 그는 문장을 잘 짓지 못했습니다.
- 11) 거리의 큰길에 나무들이 서있습니다.
- 12) 우리 학교에는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 13) 그들은 다음날 15일에 돌아올것 같습니다.

6. 아래의 단어들을 서로 어울리는것끼리 결합하시오.

가까이	감탄하다	살림집
어느새	솟다	비
몹시	오르다	자동차
높이	멎다	산
잠시	내리다	편지
빨리	보내다	공원
조용히	부러워하다	공장
홀륭히	휴식하다	사람
많이	홀륭하다	그림
완전히	건설하다	아침 해

제6과. 상점에서

- 저 책가방을 보여줄수 있습니까?
- 저 남자구두를 좀 보여주십시오.
- 학습장 다섯권과 만년필을 하나 주십시오.
- 값이 얼마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책가방을 어디에서 팝니까?

- 3층에서 팝니다.

—저 책가방을 보여줄수 있습니까?

- 무슨 색을 보시겠습니까?

—검은 색을 보여주십시오.

-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듭니다. 모양도 곱고 잘 만들었습니다.

- 사시겠습니까?

—사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져도 되겠습니까?

- 좋도록 하십시오.

—저 남자구두를 좀 보여주십시오.

- 몇문을 요구합니까?

—38문을 주십시오. 신어보아도 괜찮겠습니까?

- 신어보십시오. 맞습니까?

—조금 작은감이 있습니다. 39문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예, 한켠레 보여주십시오.

- 39문입니다. 신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꼭 맞습니다. 39문을 사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학습장 다섯권과 만년필을 하나 주십시오.

• 얼마짜 리를 요구하십니까?

—학습장은 30전짜리, 만년필은 5원짜리를 주십시오.

• 그렇게 합시다.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돈(값)을 직접 여기에 물어야 합니까?

• 예, 여기에 무십시오.

잔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십원짜리뿐입니다.

• 십원짜리를 주십시오.

거스름^돈 3원 50전입니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또 오십시오.

단 어

책가방, 보여주다, 남자구두, 학습장, 만년필, 주다, 값, 얼마, 팔다, 색, 검다, 사다, 문, 신어보다, 맛다, 켈레, 전, 원, 돈, 물다, 잔돈, 거스름

문 법

《—도록》(꾸밈토: 한계, 정도)

- 그는 매일 밤이 깊^{도록} 공부합니다.
-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십니다.
- 모든 학생들이 숙제를 철저히 해오^{도록} 하였습니다.

《—나》(도움토: 강조, 선택)

- 주체사상탑은 어디에서나 보입니다.
- 어느 거리나 다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 어제보다 열사람이나 더 모였습니다.

- 만년필이나 연필을 빌려주십시오.
 - 상점에 들리면 사과나 배를 사다주십시오.
- 《—마다》(도움 토: 하나하나, 모두)
- 교실마다 밝고 깨끗합니다.
 - 학생들마다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갑니다.
 - 벽시계는 시간마다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 《—아(어, 여)보다》
- 모를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 새로 배운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보십시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구두를 어느 상점에서 살 수 있습니까?
- 2) 동무는 구두를 몇문 신습니까?
- 3) 학습장 한편에 값이 얼마입니까?
- 4) 동무는 무슨 색깔의 가방을 사려고 합니까?
- 5) 남자구두는 여자구두보다 값이 눅습니까?
- 6) 상점에서 구두를 살 때 신어볼 수 있습니까?
- 7) 30원짜리 학습장이 다섯권이면 값이 얼마입니까?
- 8) 10원짜리를 내고 8원짜리 만년필을 사면 거스름을 얼마 받아야 합니까?

2. 빈자리에 단어(또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칠남동무○ 만년필값으로 10원을 ○○ 거스름을 5원 ○○습니다.
- 2) 매대○○에는 여러○○ 홀룡○ 상품들이 가득 ○여있었습니다.
- 3) 나는 구두○ ○○보고 발○ 맞는것을 ○습니다.
- 4) 한 학생○ ○○○매대에서 학습장 두○○ 만년필○ 사○있었습니다.
- 5) 가방상점○○ 여러가지 ○○들이 ○습니다.

3. 다음의 문장에서 묶임표안의 단어들을 해당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걷다) 책가방을 (들다) 가는 학생은 봉남입니다.
- 2) 옥이는 (곱다) 꽃신을 (사다)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 3) 나는 구두를 (신다)보고 발에 (맞다)것을 샀습니다.
- 4) 수남동무는 백화점에서 (팔다) 레코드판을 (사다) 고향의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 5) 현철동무는 학습장값을 (물다) 거스름을 (받다) 앓았습니다.
- 6)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오다) 길에 책방에 (들리다) 책을 샀습니다.

4. 다음의 단어들을 이어서 문장을 만드시오.

- 1) 백화점, 우리, 타다, 전동차, 구경, 가다
- 2) 많다, 사다, 사람, 있다, 신발매대, 신발
- 3) 구경하다, 우리, 1층, 올라가다, 2층
- 4) 할머니, 놀이감매대, 손자, 사주다, 놀이감자동차
- 5) 판매원동무, 보다, 우리, 주다, 여러가지, 레코드판
- 6) 현철동무, 사다, 학습장, 2권, 받다, 잔돈
- 7) 아주머니, 천매대, 꿸다, 천, 사다, 곱다
- 8) 우리, 돌아보다, 3층, 모든, 다음 층, 매대, 올라가다
- 9) 만나다, 4층, 우리, 신발, 남호동무, 사고있다.
- 10) 우리, 돌아보다, 다, 모든 층, 나오다, 백화점

5. 다음의 단어들을 아래 문장들의 적당한곳에 넣으시오.

(거스름, 갖가지, 곱다, 현대적, 놀이감, 질, 계단식, 직접, 가득, 친절히, 각각, 본래, 넓다, 편리하다, 걷다)

- 1) 수남동무와 현철동무는 학습장을 다섯권씩 샀습니다.
- 2) 천매대에는 좋은 천들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 3) 백화점에서 파는 모든 상품들은 좋습니다.
- 4) 수남동무는 만년필을 사고 2원 받았습니다.
- 5) 2층을 돌아본 우리는 승강기를 타고 다음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 6) 제1백화점은 모든 시설들이 잘 꾸러졌습니다.
- 7) 신발매대에는 구두와 운동화, 장화를 비롯한 신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 8) 우리는 학습장과 만년필 값을 판매원동무에게 물고 받았습니다.
- 9) 사람들은 백화점의 모든 층을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릴수 있습니다.
- 10) 매대마다에 우리 나라 상품들이 쌓여있습니다.
- 11) 봉남동무는 신발매대에서 구두와 운동화를 샀습니다.
- 12) 어느 매대에서나 판매원들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 13) 할머니는 어린 손자에게 자동차와 비행기를 사주었습니다.

제7과. 병원에서

-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픉니다.
- 밤이 되면 열이 더 오릅니다.
- 며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과에 접수하여주십시오.

• 처음 오십니까?

—아닙니다. 몇번 왔했습니다.

• 몇번입니까?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언제 왔습니까?

—며칠전에 왔다갔습니다.

• 이름이 무엇입니까?

—리오성입니다.

• 조금 기다리십시오. 건강관리부를 찾으시다.

125번입니다. 번호를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 안과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곧 건강관리부를 거기에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리오성동무,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앉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머칠째 눈물이 계속 나면서 눈이 몹시 아픕니다.

• 이전에 눈을 앓은 일이 있습니까?

—앓은 일이 없습니다.

•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 눈을 봅시다. 크게 뜨십시오. 눈알을 아래우로 굴리십시오. 량옆으로 돌려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몇번 감았다떴다해보십시오. 됐습니다.

—무슨 눈병이 생겼습니까?

•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눈약을 페드릴테니 자기전에 한방울씩 눈에 넣고 자십시오. 계속 아프면 다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 *

—안녕하십니까?

• 앉으십시오.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열이 나면서 머리가 아픉니다.

•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사흘전부터 그렇습니다.

• 종일 머리가 아픉니까?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밤이면^더 심합니다. 밤이 되면 열이 더 오릅니다.

• 기침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씩 납니다.

• 옷을 벗으십시오. 밥시다. 숨을 크게 들이쉬십시오. 내쉬십시오. 다시한번... 입을 벌리십시오. 혀를 앞으로 내보내십시오. (내미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소화가 잘 됩니까?

—잘되지 않습니다.

• 잠은 잘 잡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 열을 재봅시다. 38도 5부입니다.

—밤에는 39도까지 올라갑니다.

• 며칠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 이 약을 타가지고 가서 하루에 세번씩 잡수십시오. 곧 나올 겹니다.)

•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십시오. 뒤주일 입원치료를 받으면 일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단 어

열, 나다, 머리, 아프다, 오르다, 치료, 입원하다, 치료받다, 안파, 접수하다, 번호, 한주일, 이름, 건강관리부, 눈, 앓다, 뜨다, 눈병, 피곤하다, 눈약, 계속, 다시, 종일, 오전, 심하다, 기침, 숨, 들이쉬다, 내쉬다, 다시한번, 혀, 소화, 도, 부, 약, 낫다, 입원치료

문 법

○ 《-됐》(과거에 잇달아있던 행동, 사실을 나타낸다.)

- 우리는 책을 사러 책방에 들렀됐습니다.
- 봉남동무가 찾아왔을 때 나는 숙제를 하됐습니다.(=하고있었습니다.)
- 어제 도서관에 갔됐는데 거기서 경민동무를 만났습니다.

㉠ 《-는데》(이음토: 어떤 사실의 계기, 환경, 전제를 나타낸다. ※형용사뒤에서는 《-ㄴ데》로 된다.) *riabog nryeg nocitka*

- 기차시간이 다 되었는데 빨리 떠납시다.
- 나는 어제 새 영화를 보었는데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 나에게 재미있는 소설책이 있는데 읽어보십시오.
- 내가 숙제를 하는데 철남동무가 찾아왔습니다.

《-자》(이음토: 한 행동이 끝나고 곧 다른 행동이 잇달림을 나타낸다.)

- 영희동무가 교실에서 나가자 옥란동무가 들어왔습니다.
- 기차가 역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 비가 몇자 인차 개이기 시작하였습니다.
- 봉남동무는 나를 만나자 고향소식부터 물어보았습니다.

(※ 이음토 《-자》앞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토들이 놓이지 않는다.)

㉡ 《-ㄴ/는지》(이음토: 의문의 관계로 앞의 사실을 뒤의 사실과 이어준다.)

-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 동무들이 오늘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가 지금도 의사로 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도서관에 내가 읽으려고 하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규정형 다음에 불완전명사 《지》가 온것과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례: 강의가 시작된지 30분이 지났다.

《-지 말다》(금지 의 뜻)

- 강의가 끝나면 기숙사에 들리지 말고 도서관에 갑시다.
- 늦지 말고 제시간에 와야 합니다.
- 떠들지 말고 조용히 설명을 들으십시오.
- 깨끗이 청소한 교실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 강의시간에 옆동무와 말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 못하다»(다른 원인, 사정때문에 할수 없음을 나타낸다.)

-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오지 못하였습니다.
- 그는 봉남동무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 우리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 이번에 보지 못하면 다음번에 꼭 봅시다.

(※ «—지 못하다»의 앞에 시간토가 쓰이지 않는다.)

«—다고 하다»(다른 사람에게서 들은것을 전달할 때에 쓴다.)

- 텔레비전에서 새 영화를 한다고 합니다.
- 그는 오늘 배운 단어들을 다 외웠다고 말했습니다.
- 봉남동무는 래일 책방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경민동무는 오늘 저녁에 나를 만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고 하다»(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이 할것을 요구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 쓴다.)

- 현철동무는 오늘 저녁에 숙제를 같이 하자고 하였습니다.
- 그는 10시에 기숙사에서 떠나자고 하였습니다.
- 수남동무는 나에게 거리구경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 경민동무는 기숙사에 돌아갈 때 병원에 들리자고 하였습니다.

련 습

①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오성동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왜 자리에 누웠습니까?
- 2) 동무가 오성동무의 머리를 짚어보니 어떠하였습니까?
- 3) 동무에게서 체온계를 받은 오성동무는 그것을 어떻게 하였습

니까?

- 4) 오성동무의 체온은 몇도였습니까?
- 5) 병원에 가자고 했을 때 오성동무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 6)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7) 병원에 가면 먼저 무엇부터 하여야 합니까?
- 8) 오성동무는 간호원동무와 함께 어느 과에 갔습니까?
- 9) 오성동무가 내과에 갔을 때 거기에 환자가 몇사람 있었습니까?
- 10) 오성동무는 언제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까?
- 11) 의사선생님은 오성동무를 진찰하면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 12) 오성동무를 진찰한 의사선생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니까?
- 13) 병을 빨리 고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2.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단어(또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오성동무○ 머리○ 아프○ ○○나서 ○○에 갔습니다.
- 2) 접수실○○ 간호원○ 환자들○ ○○○ 맞아주었습니다.
- 3) 환자들은 ○○○에서 접수하○ 진찰실○ 갑니다.
- 4) 의사선생님은 환자○○ ○○가지를 물○○○ 진찰합니다.
- 5) 의사선생님은 환자○ ○○○○에 체온계를 끼웠습니다.
- 6) 환자○ ○○은 39도○○ 올라갔습니다.
- 7) 의사선생님은 환자○○ 입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③ 다음 문장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옥이가 (아프다) 누워있을 때 어머니는 (걱정하다) 병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 2) 누구나 몸이 (아프다) 병원에 (다니다) 합니다.
- 3) 병원입원실에는 입원환자가 (많다) 앉아서 (비다) 침대가 많았습니다.
- 4) 의사는 환자의 열을 (재다)(보다) 39도라고 말하였습니다.
- 5) 의사는 환자에게 (입원하다) 빨리 (치료하다)수 있다고 말하였

습니다.

- 6) 환자들은 (접수하다) 차례로 진찰실에 (가다) 진찰을 받습니다.
- 7) 병이 (심하다) 진찰을 (받다) 입원하여야 합니다.
- 8) 사람들은 몸을 (단련하다)(얹다) 얹습니다.
- 9) 환자는 옷을 (벗다) 진찰을 (받다) 다음 약국에 가서 약을 탔 습니다.
- 10)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끼우다) 열을 (재보다) 39도입니다.

④ 다음의 단어들을 주어진 문장들의 적당한 자리에 넣으시오.

전혀, 제대로, 마침, 갑자기, 계속, 방금, 별로, 너무, 종일, 좀더

- 1) 봉남동무와 철민동무는 공부하다가 저녁식사를 하고 거리에 나 갔습니다.
- 2) 내가 철민동무의 방에 찾아갔을 때 그는 방에 있었습니다.
- 3) 봉남동무가 우리 방에 찾아와서 영화구경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 4) 그는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 5) 옥란동무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습 니다.
- 6) 우리는 이때까지 조선말문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 7) 우리가 역전에 도착하니 기차가 떠났습니다.
- 8) 탁구를 연습하면 아주 잘 칠수 있습니다.
- 9) 정확하게 읽으려면 읽는 연습을 하여야 합니다.
- 10) 오늘 바람이 불지만 날씨는 춥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단어들을 어울리는것끼리 결합하시오.

—눈알, 약, 주사, 숨, 눈, 눈물, 감기, 폐염, 하불, 환자, 번 호, 열, 입

—찾다, 앉다, 퍼다, 쉬다, 뜨다, 먹다, 돌리다, 놓다, 흘리다, 걸 리다, 치료하다, 재다, 벌리다

제8과. 우편국에서

—보통우표 두장과 등기우표 한장을 주십시오.

—전보지 한장을 주십시오.

—시외전화를 걸수 있습니까?

—소포를 ××에 부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등기편지 한장을 부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받습니까?

• 등기편지는 5호구에서 받습니다.

—등기우표 한장과 보통우표 두장을 주십시오. 이 편지를 등기로 부쳐주십시오.

• 받을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정확히 썼습니까?

—정확히 썼습니다. 항공우편으로 보내는 편지도 여기에서 받습니까?

• 항공우편은 1호구에서 취급합니다.

—이 편지를 항공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령수증을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전보를 치려고 합니다. 전보지 한장을 주십시오.

• 어디에 치시겠습니까?

—청진(원산, 함흥, 베이징, 모스크바...)에 치겠습니다.

• 어느 나라 말로 치겠습니까?

—조선어(중국어, 로어, 영어...)로 치겠습니다.

• 이 전보지에 전보내용을 쓰십시오.

—과 썼습니다.

•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써야 합니다.

—썼시다. 됐습니까?

• 예, 됐습니다. 령수증을 받으십시오.

—시외전화를 걸수(할수) 있습니까?

• 걸수 있습니다.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원산국제려관에 걸겠습니다.

• 조금 기다리십시오. 찾아드리겠습니다. 손님, 원산국제려관이 나왔습니다. 3호전화를 리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호전화를 리용한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 세 통화입니다.

—(전화료를)얼마를 물어야 합니까?

• ×원 ×전입니다.

—소포를 원산에 부치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받습니까?

• 4호구에서 받습니다.

—(4호구에서)이 소포를 보내주십시오.

• 받을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 이름을 정확히 썼습니까?

—예, (썼습니다.)

• 주십시오. (저울우에 올려놓고 무게를 단다.) 두키로 오백입니다.

—얼마를 물어야 합니까?

• ×원 ××전을 무십시오.

단 어

우표, 장, 등기우표, 전보지, 시외전화, 소포, 부치다, 등기편지, 보통우표, 편지, 등기, 받을 사람, 주소, 항공우편, 취급하다, 명수중, 전보치다, 중국어, 로어, 영어, 보내는 사람, 전화걸다, 전화하다, 국제려관, 통화, 전화료, 저울, 무게, 달다

문 법

《—는지》(맺음토: 의혹의 뜻을 나타낸다. 같은 말차림)

• 수남동무가 자기 방에 있겠는^지?

• 동무들이 모두 우리를 기다리고있지 않^는지?

• 도서관에 간 경민동무가 기숙사에 돌아왔^는지?

• 래일 날씨가 좋겠^는지?

(※ <—는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겠는가>, <그리하겠는가>에 대하여 알수 없음을 혼자말처럼 의혹을 나타낼 때에 많이 쓴다.)

<—기 위하여>(목적의 뜻을 나타낸다.)

-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 우리는 현철동무를 만나기 위하여 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 그들은 이번 학기시험에서 최우등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합니다. (=최우등을 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 조선인민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영남동무는 누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까?
- 2) 영남동무는 어디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 3) 영남동무의 너동생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있습니까?
- 4) 영순이는 어버이수령님을 어디에서 만나뵈웠습니까?
- 5) 선봉협동농장의 농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6) 영순이는 편지에서 오빠에게 무엇을 부탁하였습니까?
- 7) 영남동무는 동생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 8) 영남동무는 동생이 부탁한 책들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였습니까?
- 9) 영남동무는 왜 우편국에 갔습니까?
- 10) 영남동무가 우편국에 갔을 때 거기에 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11) 할머니는 영남동무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 12) 할머니의 손자는 무엇을 합니까?
- 13) 할머니는 손자에게 보내는 축하전보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 14) 영남동무는 왜 동생에게 축하전보를 썼습니까?

- 15) 영남동무는 동생에게 전보를 치고 무엇을 하였습니다?
- 16) 영남동무가 동생에게 보내는 소포의 무게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17) 영남동무는 소포를 부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 18) 소포를 부친 영남동무는 3호구에서 무엇을 얼마나 샀습니까?

2.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필요한 단어(또는 토)를 쓰시오.

- 1) 영남○○○ 오늘 아침○ 고향○ 동생○○○ 편지를 받았습니다.
- 2) 동생○ 편지○○ 새로○ 소식과 기쁜 소식○ 많이 찍여있었습니다.
- 3) 영남동무○ 동생은 협동○○ ○○작업반장○○ 일하○있습니다.
- 4) 영남동무의 동생○ 자기 오빠○○ 책을 보내○○○ 부탁하였습니다.
- 5) 영남동무의 ○○은 농촌○○ 일하○○ 공부를 많이 합니다.
- 6) 영남동무는 동생○ 부탁○ 책을 ○○로 부치○○ 우편국○ 갔습니다.
- 7) 영남동무는 동생○○ 소포를 ○○고 령수증을 ○○습니다.
- 8) 영남동무는 우편국○○ ○○의 아버지○○ 전보를 ○○습니다.
- 9) 우편국○○ 사람들○ 편지도 ○○고 전화도 ○○ ○○도 썼습니다.
- 10) 한 손님○ 3호전화○ 어디○ 전화를 ○○있었습니다.
- 11) 우편국○○○ 시내전화도 ○수 있고 시외○○도 걸수 ○○ 국제전화○ ○○있습니다.
- 12) 등기○○는 보통편지○○ 빨리 그리고 정확○○ 갑니다.
- 13) 등기편지○ 부치○○ 봉투○ 10전짜리 ○○를 너장 붙여야 합니다.
- 14) 편지를 부칠 때 ○○에 반○ 사람○ ○○를 정확히 써○ 합니다.
- 15) 보통○○는 10전○○ 등기○○는 40전입니다.

- 16) 우표는 반드시 ○○봉투○ 오른쪽 윗부분○ ○○야 합니다.
- 17) 사람들은 ○○○에서 ○○○도 부치고 소포도 ○○○고 전화도 ○○○고 ○○○도 칩니다.

3. 다음의 문장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해당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봉남동무는 전화를 (걸다) 우편국에 갔습니다.
- 2) 손자의 편지를(받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리다)있었습니다.
- 3) 철민동무는 동생에게 소포를 (부치다) 소포취급원이 (주다)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 4) 옥란동무는 최우등을 (하다) 모든 힘을 (다하다) 공부합니다.
- 5) 내가 동생에게 (부치다) 책을 종이로 (싸다) 경민동무가 찾아왔습니다.
- 6) 우리는 지난 일요일을 (리용하다) 대성산유원지에 (가다) 즐겁게 놀았습니다.
- 7) 우리는 졸업시험에서 최우등을 (하다) 경민동무를 (축하하다) 그를 (찾다)갔습니다.
- 8) 동무들은 나라의 (홍릉하다) 일군이 (되다) 위하여 열심히 (배우다) 하겠습니까.
- 9) 최우동생의 영예를 (지니다) 철남동무는 일요일에도 (쉬다)(앉다)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 10) 봉남동무는 편지봉투에 주소를 (쓰다) 우표를 (붙이다) 다음 그것을 편지통에 넣었습니다.
- 11) 다른 나라에 전보를 (치다) 국제우편국에 (가다) 합니다.
- 12) 봉남동무가 동생에게 (부치다) 소포는 무게를 (달다)보니 한키로 오백그램이었습니다.

4.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 1) 철민동무는 동생에게 전보를 치다. 철민동무는 우편국에 가다.
- 2) 봉남동무가 전화를 걸다. 철민동무가 찾아오다.

- 3)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부치다. 그는 전보를 치지 못하다.
- 4) 봉남동무는 고향에서 편지가 왔다고 하다. 봉남동무는 편지를 나에게 보여준다.
- 5) 경민동무는 우편국에 같이 가자고 하다. 경민동무는 나를 찾아 오다.
- 6) 영남동무는 철수동무와 우편국에서 만나기로 하다. 영남동무는 우편국에 찾아가다.
- 7) 경민동무는 동생이 부탁한 책을 사다. 경민동무는 책을 동생에게 부치지 못하다.
- 8) 영남동무는 우편국에 가다. 영남동무는 누나에게서 온 소포를 찾다.
- 9) 박동무가 편지를 쓰고있다. 경민동무가 박동무의 방에 찾아오다.
(우의 문장들을 자리를 바꾸어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5.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경민동무, 우표, 사다, 편지봉투, 우편국
- 2) 옥희동무, 부치다, 어머니, 등기편지, 고향
- 3) 나, 치다, 경민동무, 우편국, 전보, 가다
- 4) 비싸다, 보통우편, 값, 항공우편
- 5) 우표, 반드시, 부치다, 오른쪽, 봉투, 우
- 6) 국제우편국, 치다, 외국, 전보, 가다, 하다
- 7) 사람들, 치다, 편지, 걸다, 부치다, 우편국, 전보, 전화
- 8) 옥란동무, 받다, 어머니, 편지, 고향, 기뻐하다, 매우
- 9) 옥란동무, 지배인, 과자, 어머니, 공장, 로력영웅
- 10) 어머니, 시외전화, 옥란동무, 우편국, 걸다, 리용하다, 3호 전화

제9과. 사진관에서

- 《새날사진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 만경대를 배경으로 넣어주십시오.
- 이 필름으로 사진 석장을 뽑아주십시오.
- 천연색사진을 찍을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몇시부터 사진을 찍습니까?

• 10시부터 찍습니다. 사진을 찍으시겠습니까?

—친구를 5년만에 만났는데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 찍읍시다. 접수하십시오. 어느 규격으로 찍겠습니까?

—보통규격으로 찍어주십시오.

• 배경은 무엇을 넣겠습니까?

—만경대를 배경으로 넣어주십시오.

• 서서 찍겠습니까, 앉아서 찍겠습니까?

—한장은 서서 찍고 한장은 앉아서 찍으려고 합니다. 앉은 사진은

《국제친선전람회》을 배경으로 넣고 찍어주십시오.

• 찍읍시다. 먼저 서서 찍읍시다. 배경판앞에 서십시오.

오른쪽동무, 안으로 약간 몸을 돌리십시오. 왼쪽동무는 머리를 조금 드십시오. 좋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찍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찾을수 있습니까?

• 래일 오후에 오십시오.

—사진에 오늘 날자와 《평양에서 만난 기념》이라고 써넣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 필름으로 사진 석장을 뽑아주십시오.

•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합니까?

—필름의 세배 정도 크게 만들어주십시오. 오늘 찍은 사진과 함께
래일 찾을수 있도록 만들어주실수 있겠습니까?

•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래일 오후 5시쯤에 찾으러 오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이 사진관에서 천연색사진을 찍을수 있습니까?

• 찍을수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사진을 찍습니까?

• 찍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학급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 오십시오. 요구대로 찍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또 오십시오.

단 어

사진관, 가족사진, 찍다, 배경, 필름, 천연색사진, 기념사진, 규
격, 보통규격, 찾다

문 법

《—고싶다》(희망, 욕망)

• 나는 예술영화 《달매와 범다리》를 보고싶습니다.

• 나는 철민동무와 이야기하고싶습니다.

• 우리는 노래를 듣고싶을 때 전축을 틀어놓습니다.

• 옥란동무는 보고싶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답니다》(맺음토: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거나 자기가 똑똑히 알고
있는 사실을 감동적으로 나타낸다.)

• 창광거리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답니다.

• 그들은 래일 금강산으로 떠난답니다.

- 철민동무는 오후에 도서관에 가겠다고 합니다.
- 옥란동무는 순희동무보다 노래를 더 잘 부른다고 합니다.
- 《—아/어/여주다》(《상대편을 위하여 그 동작을 함》을 나타낸다.)
- 할머니는 우리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이 사진을 경찰동무에게 전하여주십시오.
- 선생님은 학생들의 숙제를 하나하나 보아주셨습니다.
- 그는 나에게 자기의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연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동무들은 만경대견학기념사진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 2) 은별동무는 고향집앞에서 찍은 사진을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 3) 은별동무의 사진첩에 있는 귀중한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 4) 사람들은 어떤 때에 사진을 찍습니까?
 - 5) 사진은 어떤곳에서 찍는것이 좋습니까?
 - 6) 동무에게 있는 뜻깊은 사진들은 어떤 사진입니까?
2.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를 필요한 형태로 고치시오.
 - 1) 성민동무는 만경대에서 (찍다) 사진을 (뽑다) 동무들에게(나누다)주었습니다.
 - 2) 우리가 만경대를 (견학하다)(찍다) 사진은 (영원하다) 기념으로 될것입니다.
 - 3) 은별동무는 사진첩을 (번지다) 만경대에서 (찍다) 사진을(붙이다) 다음 그밑에 《만경대견학기념》이라고 썼습니다.
 - 4) 경민동무는 아버지에게서 (받다)(귀중하다) 책을 나에게(보이다)주었습니다.
3. 다음 문장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또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우리는 지난 일요일○ 학급○○들과 ○○ 기념○○을 ○○ 습니다.

- 2) 옥란동무는 어머니○○ 대학입학○○사진을 편지○ 함께 보냈습
니다.
- 3) 성민동무는 사진○ 찍기○ 잘하○ ○○기도 잘합니다.
- 4) 은별동무○ 어머니는 은별동무○○ ○○사진을 ○○주었습니다.
- 5) 우리는 ○○ 일요일○ 아름다○ ○○○ 편 공원○○ ○○을 여
리○ 찍었습니다.
- 6) 봉남동무는 어제 나○○ 자기○ 어릴 ○ 사진을 보여○○○○○.
- 7) 옥란동무는 ○○운 어머니○○ 가족사진을 보내○○○ 부탁○○
○○○.
- 8) 명절날○ 일요일○○ 어느 공원○○○ 사진을 찍○ 사람들을 ○
수 있습니다.
- 9) 나는 옥란동무○ 어머니○ 만나○○ 못했○○ 사진은 보았
습니다.
- 10) 사진은 좋○ 기념물○ 되기○○에 사람들은 뜻깊○ 날○ 가족
들, 친구들○ ○○ 사진을 찍습니다.

4. 다음의 단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성민동무, 찍다, 좋아하다, 사진, 잘, 매우
- 2) 명절날, 많다, 사진, 사람, 사진관, 어느, 찍다
- 3) 나, 있다, 찍다, 사진, 대학시절, 경민동무, 함께
- 4) 견학하다, 찍다, 사진, 만경대, 기념, 귀중하다

5. 다음의 단어들에 알맞는 단어를 결합시켜 단어결합을 세 개이상씩
만드시오.

조이다	그립다	달리다
불이다	펼치다	어리다
호르다	안다	번지다

6. 다음의 단어들과의 결합형태를 세 개이상씩 쓰시오.

—끼리	—대로	—쯤
—씩	—짜리	—가지

제10과. 극장과 영화관에서

—관람권 두장을 주십시오.

—오늘저녁 락원영화관에서 무슨 영화를 합니까?

—오늘저녁 관람권은 다 팔렸습니다.

—밤표를 낮에 살수 있습니까?

—자리번호가 몇입니까?

—오늘저녁 락원영화관에서 무슨 영화를 합니까?

• 예술영화 《달매와 범다리》를 합니다.

—그 영화는 천연색입니까?

• 천연색입니다.

—동무는 그 영화를 보았습니까?

•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저녁에 그 영화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 가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영화를 몇시에 시작합니까?

• 7시에 시작합니다.

—관람권 두장을 주십시오.

• 오늘저녁 관람권은 다 팔렸습니다.

—밤표를 낮에 살수 있습니까?

• 살수 있습니다.

—안내원동무, 이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자리번호가 몇입니까?

—요새 대극장에서 무엇을 공연합니까?

• 혁명가극 《피바다》를 공연합니다.

—혁명가극 《피바다》의 주인공역을 누가 합니까?

- 공훈배우 ×××동무가 합니다. 그는 배우생활을 한지 오래지 않지만 연기를 아주 잘합니다.

혁명가극 《피바다》를 보았습니까?

—한번 보았습니다. 사상예술성이 아주 높은 작품입니다.

- 노래들도 아주 좋습니다. 배우기도 쉽고 부르기도 좋은 노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혁명가극 《피바다》의 노래가 들어있는 소리판을 여러장 가지고있습니다.

- 혁명연극 《성황당》을 보았습니까?

—두번이나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극입니다.

- 나는 세번이나 보았는데도 또 보고 싶습니다.

—요새도 연극극장에서 혁명연극 《성황당》을 공연하고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함께 구경가지 않겠습니까?

- 좋습니다. 함께 갑시다. 그때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단 어

극장, 영화관, 관람권, 영화, 발표, 자리번호, 예술영화, 천연색, 시작하다, 팔리다, 안내원, 요새, 공연하다, 혁명가극, 주인공, 공훈배우, 연기, 사상예술성, 작품, 노래, 소리판, 혁명연극

문 법

《—리》(상토: 시킴상, 입음상)

① 시킴상

- 옥이네 학교에서 래일 1학년 학생들을 놀립니다. (놀다)(※ 학생
들이 놀니다—휴식하다)
- 어머니는 옥이에게 고운 책가방을 들려보냅니다. (들리어보냄니
다)(※ 옥이는 고운 책가방을 들고갑니다.)

② 입음상

- 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뚫리였습니다)(※ 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 길에 모래가 깔렸습니다.(깔리였습니다)(※ 길에 모래를 깔았습니다.)

《-르/을가요》(맺음토: 물음을 나타낸다—높임말차림)

- 경기가 5시에 끝날가요?
- 도서관에서 철민동무를 만날수 있을가요?
- 다음주 일요일에 대성산유원지에 갈가요?

《랑/이랑》(구격토: 나란히 이어짐을 나타낸다)

- 옥란동무는 상점에서 학습장이랑 만년필이랑 샀습니다.
- 어제 저녁에 할머니랑 어머니랑 극장에 갔습니다.
- 어제 철이동무네 집에서 사진이랑 보았습니다.

《-자》(맺음토: 권유—낮춤말차림)

- 옥이야, 어서 집에 돌아가자. (※돌아가십시오)
- 여기에서 너의 어머니를 기다리자. (※ 기다리십시오)
- 오늘 저녁에 텔레비죤으로 새로 나온 영화를 보자. (※ 봅시다)

《-세요》(맺음토: 명령, 의문—높임말차림. 주로 여성들의 말에서 쓰인다.)

- 비가 올것 같은데 비옷을 가지고 가세요. (명령)
 - 12시까지 교실에 다 모이세요. (명령)
 - 오늘 밤차로 떠나세요? (의문)
 - 옥이네 학급이 최우등학급으로 된것을 아세요? (의문)
- (※ 《-세요》는 시간토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

《-아요/어요/여요》(맺음토: 알림, 의문, 명령—높임말차림)

- 옥이는 옷방에서 신문을 보아요(알림)
- 옥희동무가 지금 숙제를 하고있어요? (의문)
- 운동장에 10시에 모여요? (의문)
- 집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떠나요(명령)
- 어머니가 기다리겠는데 빨리 가보아요(명령)

《—을/를 통하여》

- 옥이를 통하여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 옥이에게서)
- 조선말을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말표현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배우는 과정에)
- 이번 회의를 통하여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을/를 위하여(위한)》

-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에 언제나 앞장섰습니다.
- 외국손님들을 위하여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손님들을 위한 영화감상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극장과 영화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2) 사람의 생활과 예술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 3)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 힘을 주는 예술은 어떤 예술입니까?
(어떤 예술이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혜, 힘을 줄 수 있습니까?)
- 4) 처음에 무대에 오른 종목은 무엇입니까?(무슨 종목이 처음에 무대에 올랐습니까?)
- 5) 이날 공연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6) 사람들은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하였습니다?
- 7) 이날 저녁 출연한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입니까?
- 8) 배우들의 연기는 어떠하였습니다?
- 9) 교예는 어떠한 예술입니까?
- 10) 공연이 끝났을 때 관람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다?
- 11) 배우들은 관람자들에게 어떻게 인사를 보냈습니까?

2. 다음 문장들의 빈자리에 해당하는 단어(또는 토)를 쓰시오.

- 1) 옥이네 ○○은 어느 ○ ○○극장에 교예를 구경하○ 갔습니다.
- 2) 혁이는 어리○○ 예술가운데○ 교예를 ○○○ 좋○합니다.
- 3) 많○ 사람들이 극장앞○○ ○○표를 사○있었습니다.
- 4) 교예는 사람들○○ ○○○을 키워○○ 좋○ 예술입니다.
- 5) 배우들은 ○○를 아주 훌륭○○ 하여 사람들○ ○○시켰습니다.
- 6) ○○ 7시○ ○이 오르○ 배우들이 ○○에 나옵니다.
- 7) 옥이○ 춤을 좋아○○○ 잘 ○지 않습니다.
- 8) 순미는 노래를 아주 잘 ○○○때문에 ○○가 되○○ 합니다.
- 9) 철민동무는 가극○ 좋아○○○ 경호동무○ 연극을 더 ○○합니다.
- 10) 공연○ 끝나○ ○○○들은 일어○○ 열렬히 ○○를 칩니다.
- 11) 극장○○○ 가극을 ○○하고 ○○○에서는 영화를 ○○합니다.
- 12) 사람들은 극장○ ○○○에서 ○○파 영화를 감상○○○ 즐겁○ 휴식합니다.

3.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다음 문장들의 적당한 자리에 넣으시오.

(널리, 진정하다, 편이어, 열렬하다, 날로, 제대로, 전혀, 고급, 활짝)

- 1) 한 종목이 끝나면 다음 종목이 무대에 오릅니다.
- 2) 인민배우 ○○동무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 3) 경민동무는 회의에서 학교와 기숙사들을 잘 거들데 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
- 4) 수남동무는 창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 5) 발전하는 현실은 새로운 예술을 낳습니다.
- 6) 경민동무는 리발소에서 머리를 깎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7) 철민동무는 마사진 책상을 고쳐놓았습니다.
- 8) 봉남동무는 자기가 야영가게 되데 대하여 모르고있었습니다.
- 9) 인민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며 배울수 있습니다.

- 10) 사람들은 극장과 영화관을 리용하여 문화생활을 합니다.
- 11) 승용차들이 고속도로로 달리고있습니다.
- 12)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이 높아지고있습니다.
- 13) 회화시간이 끝나면 강독시간이 계속됩니다.
- 14) 복회동무는 몇개 문장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 15) 기숙사앞 꽃밭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4. 다음의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 1) 배우들은 (열렬하다) 박수를 (치다)관람자들에게 손을 (흔들다) 인사를 보냈습니다.
- 2) 무대에 (출연하다) 배우들가운데서 (이름있다) 배우들도 (보다) (있다)
- 3) 공연이 (끝나다) 관람자들은 (일어서다) 배우들에게 (열렬하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 4) 극장식당에는 교예를 (구경하다)(오다) 사람들이 가득(차다) (비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 5) 옥이네 가족은 한상에 (들러왔다) 사이다도 (마시다) 파자도 (먹다) 공연시간을 기다렸습니다.
- 6) 옥이는 할머니의 고뿌에 사이다를 (붓다) 어서 (마시다)(권하다) 아버지의 고뿌에 부었습니다.
- 7) 인민의 (친정하다) 예술만이 사람에게 힘을 (주다) 그들을 투쟁에로 (이끌다) (있다)
- 8) 요사이 극장과 영화관들에서 (공연되다) (상영되다) 가극과 영화들은 모두 (새롭다) 작품들입니다.
- 9) 경민동무는 옥이동무에게 예술영화 《달매와 범다리》의 (간단하다) 내용을 (이야기하다)(주다)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 10) 배우들의 공연을 (보다) 몹시 (감동되다) 관람자들은 모두 (일어서다) 박수를 쳤습니다.

5.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대극장, 공연하다, 요사이, 가극, 새롭다
- 2) 일요일, 구경하다, 지나다, 나, 락원영화관, 예술영화 《청춘의 십장》
- 3) 우리, 텔레비죤, 구경하다, 어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저녁
- 4) 끝나다, 관람자, 공연, 올라가다, 배우, 무대, 주다, 꽃다발
- 5) 공연, 출연하다, 배우, 많이, 이름있다, 오늘, 저녁
- 6) 옥이, 좋아하다, 순회, 가극, 연극
- 7) 간단하다, 가극, 나, 말하다, 내용, 주다, 공연, 전, 시작하다
- 8) 예술, 나오다, 생활, 사람, 로동, 진정하다
- 9) 배우, 높다, 교예, 기술, 보여주다

제11과. 체육관과 경기장에서

—요새 체육관에서 어떤 경기들이 진행됩니까?

—지금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에서는 ×××팀이 이겼습니다.

—《압록강》팀이 3대 1로 이겼습니다.

—선수들이 모두 기술이 높습니다.

—5번 선수는 이름난 선수입니까?

—요새 체육관에서 어떤 경기들이 진행됩니까?

• 배구, 룡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경기들이 진행됩니다.

—동무는 어떤 경기를 좋아합니까?

• 구기는 모두 좋아합니다.

—오늘 배구경기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 갑시다. 경기를 5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전반전입니까?

• 아닙니다. 후반전입니다.

—어느 팀이 이겼습니까?

• 전반전에서는 ×××팀이 이겼습니다.

—두 팀이 모두 기술이 높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은 국제경기에도 여러번 참가하였습니다.

—체육관에서 국제경기도 자주 합니까?

• 자주 합니다. 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이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장에서는 《압록강》팀과 《기관차》팀간의 축구경기가 있습니다.

• 어느 팀이 더 기술이 높습니까?

—두 팀이 비슷합니다. 개인기술은 《기관차》팀이 조금 나은것 같습니다.

• 지난번 경기에서는 어느 팀이 이겼습니까?

—《압록강》팀이 3대 1로 이겼습니다.

• 오늘 경기에서는 두 팀이 비길것 같습니다.

—결과를 봅시다.

• 공격수들이 아주 빠릅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방어가 강하기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 《압록강》팀의 11번공격수가 아주 잘합니다.

—《기관차》팀에서는 문지기와 5번방어수가 기술이 높은것 같습니다.

• 심판원은 누구입니까?

—국제심판원 ×××동무입니다.

• 수영경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광원수영장에서 합니다.

• 그 수영장에 관람석이 얼마나 됩니까?

—2천석입니다. 아주 잘 꾸려진 수영장입니다.

• 동무는 어떤 해염을 잘 칩니까?

—나는 수영선수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해염을 칠줄 압니다.

• 경기에 참가한 일이 있습니까?

—국내경기에 한두번 참가해보았습니다.

단 어

체육관, 경기장, 경기, 진행되다, 후반전, 전반전, 팀, 이기다, 대, 선수, 배구, 룡구, 구기, 국제경기, 여러번, 참가하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축구경기, 비슷하다, 개인기술, 비기다, 공격수, 빠르다, 상대편, 방어, 강하다, 문지기, 방어수, 심판원, 국제심판원, 수영경기, 수영장, 관람석, 석, 해염, 해염치다

문법

《-ㄹ / 을 뿐(만)아니라》

- 경민동무는 공부를 잘할뿐아니라 운동도 잘합니다.
- 금강산은 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물도 맑습니다.
- 기차는 자동차보다 빠를뿐만아니라 짐도 많이 실습니다.
- 나는 혁명소설 《근거지의 봄》을 샀을뿐아니라 벌써 다 읽었습니다.

런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몸을 단련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2) 몸이 튼튼하면 왜 좋습니까?
- 3) 철이동무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 4) 철이동무는 아침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 5) 달리기는 왜 좋은 운동입니까?
- 6) 철이동무는 비오는 날에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 7) 철이동무의 하루 첫 일과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 8) 철이동무는 무슨 체육을 제일 즐기니까?
- 9) 철이동무는 언제 탁구를 칩니까?
- 10) 철이의 동무들가운데서 누가 탁구에서 그를 이깁니까?
- 11) 철이네가 체육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선수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12) 배구장에서는 어느 팀과 어느 팀사이에 친선경기가 있었습니까?
- 13) 철이네는 룡구장에서 어느 팀의 경기를 구경하였습니까?
- 14) 탁구장에서 철이네를 반갑게 맞아준것은 누구입니까?
- 15) 철이동무는 누구와 탁구를 쳤습니까?
- 16) 철이동무는 5회전경기에서 몇번 이겼습니까?
- 17) 철이네는 9시부터 텔레비존에서 축구경기를 보기 위하여 어떻

게 하였습니까?

- 18) 텔레비존에서는 어느 팀들사이의 경기를 보여주었습니까?
- 19) 텔레비존에서는 축구를 시작하기전에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 20) 《압록강》팀선수들은 어떤 운동복을 입었습니까?
- 21) 방송원은 경기에 앞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 22) 경기에서 높은 기술을 보여준 선수들은 몇번 선수들입니까?
- 23) 경기의 전반전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 24) 후반전에서 《기관차》팀은 왜 1대 0으로 졌습니까?
- 25) 동무가 좋아하는 운동과 체육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2. 다음 문장들의 빈자리에 알맞는 단어(또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몸○ 단련○○○ 여러가지 운동○ ○여야 합니다.
- 2) 체육관○ 경기장들○○○ 여러○○ 경기들이 자주 진행○○○.
- 3) 달리기, 철봉, 평행봉, 뽀출운동○ ○○나 다 할○ ○○ 운동
입니다.
- 4) 축구○○에는 두 ○에서 각각 11명○ ○○합니다.
- 5) 철이○○○ 대학○ ○○선수이며 최우등생입니다.
- 6) 철이동무○ 탁구○ 잘 칠뿐○○○ 공부○ 아주 잘합니다.
- 7) 우리○ 다음 일요일○ ○○관에 ○서 국제탁구○○를 ○○하겠
습니다.
- 8) 방송원○ 경기○ ○○ 선수들을 하나하나 ○○하였습니다.
- 9) 텔레비존○○○ 국제○○경기 소식○ 자주 ○○줍니다.
- 10) 체육○○는 텔레비존○○ 보는것○○ 경기장○ 가서 보는○이
더 좋습니다.
- 11) 달리기, 뽀출운동은 몸○ ○○하는 아주 간단○ 운동○○○.
- 12) 비○ 오○ 날○○ 방안○○ 간단한 ○○을 ○수 있습니다.
- 13) 국제○○를 할 ○에는 ○○표를 사○가 아주 ○듭니다.
- 14) 철민동무○ 형님○ 이름○○ 축구 ○○입니다.
- 15) 예술은 사람들○○ 아름다○ 생활○ 주지만 운동○ 체육은 ○

○한 체력을 줍니다.

3.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 1)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옵니다. 방송원이 선수들을 한사람씩 소개합니다.
- 2) 《압록강》팀은 《기관차》팀과 축구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압록강》팀은 2대 1로 이겼습니다.
- 3) 이번 경기에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선수들가운데에는 공훈체육인, 인민체육인들도 있습니다.
- 4) 두 팀 선수들의 기술이 서로 비슷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이 비길것 같습니다.
- 5) 《기관차》팀은 《압록강》팀보다 방어가 강합니다. 《기관차》팀은 공격이 약합니다.
- 6) 봉남동무는 탁구를 아주 잘 칩니다. 봉남동무는 배구도 잘합니다.
- 7) 나는 경기장에 갈 준비를 합니다. 경민동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 8) 경민동무는 매일 운동을 하여 몸을 단련합니다. 경민동무는 몸이 아주 튼튼합니다.
- 9) 나는 축구구경을 가고 싶습니다. 나는 숙제를 하지 못했기때문에 축구구경을 갈수 없습니다.
- 10) 경민동무는 오후에 나와 탁구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경민동무는 거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4.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진행되다, 체육관, 여러가지, 경기, 매일
- 2) 학생들, 하다, 운동, 체육, 정상적, 단련하다, 몸
- 3) 하다, 있다, 운동, 방안, 아령, 당김줄, 얼마든지
- 4) 매일, 단련하다, 운동, 하다, 몸, 앓다, 앓다

- 5) 우리, 약속하다, 주일, 창광원, 다음, 보다, 수영경기, 가다
- 6) 은별동무, 참가하다, 언니, 국제경기, 여러번, 수영선수, 이름 있다.
- 7) 진행되다, 세계, 평양체육관, 선수권대회, 탁구, 제35차
- 8) 선수들, 입다, 빨갱다, 희다, 《압록강》팀, 샷뜨, 뺨뜨, 사람들
- 9) 비슷하다, 경민동무, 기술, 봉남동무, 탁구, 비기다, 자주
- 10) 자주, 텔레비죤, 우리, 보다, 국제체육경기, 여러가지
- 11) 운동장, 체육기구, 여러가지, 있다, 하다, 운동, 체육, 언제나
- 12) 단련하다, 몸, 정상적, 앓다, 앓다, 자주

5.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문장안에 맞추어넣으시오.

(남달리, 반갑다, 한참, 가볍다, 스스로, 빨갱다, 온, 아주)

- 1) 경민동무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순동을 합니다.
- 2) 옥이는 큰 사과를 팔라서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 3) 경기장에는 축구경기를 구경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 4) 순미동무는 공부도 잘하지만 노래를 잘 부릅니다.
- 5) 우리가 수남동무를 찾아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 6) 모든 동무들이 공부를 잘하여 학급이 최우등을 하였습니다.
- 7) 우리는 탁구경기를 구경하다가 축구경기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 8) 옥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 9) 우리는 철민동무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 10) 철남동무는 언제나 공부를 부지런히 하기때문에 아는것이 많습니다.

제12과. 정거장과 비행장에서

—청진까지 가는 급행차가 몇시에 떠납니까?

—침대표 두장을 주십시오.

—신의주행렬차가 ××역에 섭니까?

—×××에서 오는 비행기가 도착했습니까?

—차표(비행기표)를 준비하십시오.

—차표를 몇시부터 팝니까?

• 12시부터 팝니다.

—청진까지 가는 급행차가 몇시에 떠납니까?

• 밤 10시에 떠납니다.

—침대표를 살수 있습니까?

• 지금 팝니다.

—침대표 두장을 주십시오. 이 렬차가 ××역에 몇시에 도착하게 됩니까?

• 새벽 4시반에 도착합니다.

—신의주행 렬차가 ××역에 섭니까?

• 서지 않습니다. ××역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예,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 ××역에 내리려면 두시간후에 떠나는 65렬차를 타십시오.

—지금 그 차표를 살수 있습니까?

• 팔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장만 주십시오.

• 차표를 사실분들은 빨리 사십시오. 문을 닫겠습니다.

—저녁차표도 지금 팝니까?

• 저녁차표는 두시간후부터 팔아드리겠습니다.

—안내원동무, ×××에서 오는 비행기가 몇시에 도착합니까?

• 12시 40분에 도착합니다.

—×××로 가는 비행기는 몇습니까?

• 아직 뜨지 않았습니니다.

—몇시에 뜹니까?

• 30분후에 뜹니다. 비행기표는 샀습니까?

—샀습니니다.

• 손집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니다. 트렁크 두개뿐입니니다.

• 무거운 짐이면 부쳐야 합니니다.

—승무원동무, ×××역에 몇시에 내립니까?

• 저녁 8시에 내립니니다.

—이 비행기가 그 비행장에서 오래 머무릅니까?

• 한시간동안 머무릅니니다. 내려서 비행장안의 식당, 상점도 리용할 수 있습니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어디를 날고있습니까?

• ×××우를 날고있습니니다.

단 어

정거장, 비행장, 급행차, 떠나다, 침대표, 열차, 역, 서다, 비행기, 도착하다, 차표, 비행기표, 반, 행, 내리다, 뜨다, 손집, 트렁크, 승무원, 오래, 머무르다, 날다

문 법

《—나》(맺음토: 물음—갈음말차림)

• 축구경기가 몇시부터 시작되^나?

• 벌써 영화가 끝났^나?

• 동무의 아버지는 어느 공장에서 일하^나?

• 날씨가 몹시 춥^나?

《-오》(맺음토: 알림, 의문, 명령—갈음말차림)(※ 말뚝리가 처음으로
끝날 때에는 《-소》)

-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하오(알림)
- 경기가 오전에 끝나오?(의문)
- 학습실이 조용하오?(의문)
- 동무는 오늘밤차로 철남동무와 같이 떠나오(명령)

《-네》(맺음토: 알림—갈음말차림)

- 나는 어제 거리에서 박동무를 만났네.
- 첫 강의는 10시에 끝나네.
- 바깥날씨가 봄날처럼 따뜻하네.
- 나는 다른 동무들보다 책을 많이 읽네.

《-지》(맺음토: 알림, 명령, 의문—갈음말차림)

- 동무가 못하겠다면 내가 하지(알림)
- 경찰동무, 나를 좀 도와주지(명령)
- 첫 강의가 10시에 끝나다지?(의문)
- 수남동무가 래일 떠나지?(의문)

《-답니까?》(맺음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묻는 뜻)

- 공장견학을 다음주일에 간답니까?
- 경민동무가 역전에 나갔답니까?
- 순희동무가 저녁에 영화를 보겠답니까?
- 수남동무는 그 책을 도서관에서 언제 빌렸답니까?
- 금강산에 갔던 동무들이 래일 아침차로 온답니까?

련 습

1.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시오.

- 1) 철이동무는 평양역에 왜 나갔습니까?
- 2) 철이동무의 아버지는 어디에 갔다음니까?
- 3) 표파는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표를 사고있었습니까?

- 4) 차표를 산 사람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 5) 사람들은 기다림칸에서 무엇을 하고있었습니까?
- 6) 철이동무는 안내원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 7) 철이동무의 아버지는 몇시차로 돌아오니까?
- 8) 기다림칸에서 빈자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 9) 할아버지는 왜 역에 나왔습니까?
- 10) 할아버지의 손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 11) 철이동무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나간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 12) 철이동무는 몇시에 기다림칸에서 나왔습니까?
- 13) 원산에서 들어오는 열차는 몇시에 도착하였습니까?
- 14) 철이동무의 아버지는 몇번째 차칸에서 내렸습니까?
- 15) 아버지를 찾은 철이동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 16) 제일 마지막차칸에서 누가 내렸습니까?
- 17) 두번째 플랫폼홈에서 차를 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 18) 신의주방향으로 가는 열차는 어느 플랫폼홈에서 떠납니까?
- 19) 정거장과 비행장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 20) 동무는 무엇을 타고 조선에 왔습니까?

2. 다음의 문장들의 빈자리에 단어(또는 토)를 써넣으시오.

- 1) 오늘 아침차○ 수남○○ 어머니○ 돌아○○○.
- 2) 철이동무○ 고향○ 가○ 학급동무들○ ○○○러 역전에 나왔습니다.
- 3) 많○ 손님들○ 기다림○○○ 기차○○을 기다리고○었습니다.
- 4) 옥이는 휴양○ 끝마치○ ○○오는 어머니○ 마중○ 나왔습니다.
- 5) ○○들은 ○○○칸에서 차○○을 기다리○○ 책을 읽○었습니다.
- 6) 경민동무○ 오늘 저녁○ 급행○○○ 청진○ 갑니다.

- 7) 할아버지는 렬차원○○ 렬차○ 몇○○ 원산○ 도착하○○○ 물
있습니다.
- 8) 차표파○곳○○ 여러 ○○들이 차례○ 차표○ 사○있었습니다.
- 9) 청진○급행○○는 평양○○ 밤 10○○ 떠납니다.
- 10) ○○들은 안내실○ 가서 안내원○○ 차○○을 물어○○○.
- 11) 차○ 떠날 ○○까지는 아직 40분○○ 남아○○때문에 기다림칸
○ 가서 신문○ 봅시다.
- 12) 정거장○ 비행장○ 언제나 가○ 사람들과 ○는 사람들, 바래우
○ 사람들과 마중○○ 사람들○ 복잡합니다.

3. 다음의 문장들에서 뷰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형태로 고치시오.

- 1) 렬차가(머무르다) 시간이(짧다) 때문에 역전에 (내리다) 없습
니다.
- 2) 차가 역에(멎다)(무겁다) 짐을(들다) 사람이 먼저 내렸습니다.
- 3) 수남동무가 (가리키다)곳을 (보다) 거기에는 철민동무가 (앉
다)있었습니다.
- 4) 정거장에는 아침차로(오다) 손님들을 (마중하다) 나온 사람들과
그 차로 떠나는 손님들을 (바래우다)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 5) 비행기에서 (내리다) 손님들을 (살피다)(보다) 그속에는 옥이
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 6) 봉남동무는 차에 (오르다) 뒤에서 자기를 (부르다) 소리를 (듣
다)돌아보았습니다.
- 7) 철수동무는 다음날 저녁차에 (돌아오다)(하다) 아침차로 (떠나
다)준비를 하였습니다.
- 8) 비행기가 (도착하다) 시간이(가깝다)(오다) (마중하다) 나온 사
람들이 (많아지다) 시작하였습니다.
- 9) 철남동무가 기다림칸에서 8시에 (도착하다) 차를 (기다리다)(있
다) 한 손님이 (찾다) 와서 기차시간을 물었습니다.
- 10) 그는 10시에 비행기로 (떠나다)(하다)때문에 동무들을 (만나다)

시간이 없습니다.

11) 옥이는 고향으로 (떠나다) 동무들을 (바래우다)주고(싶다) 시간이 (없다) 정거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12) 철이동무는 어머니를 (기다리다) 비행기가 (떠나다) 시간이(되다) 그를 (만나다)(못하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아버지, 돌아오다, 옥이, 10시, 차, 레일밤, 청진
- 2) 비행장, 바래우다, 사람, 떠나다, 손님, 많다, 있다, 오다
- 3) 철남동무, 가다, 휴가, 고향, 반다, 오늘밤, 차
- 4) 옥이, 내리다, 마중나오다, 가운데, 사람, 차, 보다, 어머니, 자기
- 5) 급행렬차, 봉남동무, 타다, 청진행, 오늘밤, 가다, 함흥, 어머니
- 6) 밋다, 많다, 오르다, 차, 내리다, 역, 사람들, 들다, 짐, 손
- 7) 원하다, 오르다, 젊다, 로인, 애기어머니, 사람들, 자리, 차
- 8) 돌아오다, 옥이, 역전, 나가다, 학교, 마중하다, 아버지, 곧장
- 9) 기다림칸, 차시간, 사람들, 기다리다, 보다, 읽다, 책, 신문, 나누다, 이야기
- 10) 비행장, 사람들, 떠나보내다, 역전, 맞아들이다, 하루, 어느, 일하다, 쉬다, 않다

5.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적당한 문장에 넣으시오.

(곧장, 한참, 더러, 내내, 련이어, 급행, 손짐, 혼자, 안내원, 기다림칸)

- 1) 철이는 안내실에 가서 원산으로 가는 차시간을 물었습니다.
- 2) 사람들은 차시간을 기다리다가 차가 도착하자 모두 마중나갔습니다.
- 3) 버스가 정류소에 밋자 한 젊은이가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 4) 봉남동무는 오후 4시에 기숙사를 떠나서 아무데도 들리지 않고 정거장으로 나갔습니다.

- 5) 옥이의 아버지는 휴양을 마치고 오늘밤 열차로 돌아옵니다.
- 6) 봉남동무는 다른 동무들이 먼저 갔기때문에 비행장으로 나갔습니다.
- 7) 평양역에는 신의주쪽에서 오는 차, 원산쪽에서 오는 차, 청진쪽에서 오는 차들이 도착하였습니다.
- 8) 봉남동무는 철이동무와 한책상에서 공부하지만 그의 취미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 9) 본문의 문장들을 외워보았는데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본문편

제1과. 조 선

조선은 맑은 아침의 나라이다.

조선은 주체의 조국이고 천리마의 나라이다.

조선은 아세아의 동쪽에 있는 나라이다.

조선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반도의 나라이다.

조선의 땅덩어리의 넓이는 22만평방키로메터이다.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소련, 중국과 국경을 하고 있으며 동쪽, 서쪽, 남쪽은 바다로 둘러싸여있다.

조선은 북쪽과 동쪽이 높은 산줄기로 되어있고 서쪽과 남쪽은 낮은 산지대와 넓은 벌로 되어있다.

조선에는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지리산, 한나산 등 이름난 산들이 많다.

조선에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락동강 등 이름난 강들이 많다.

조선은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다. 어디 가나 아름다운 산들이 있고 그 골짜기로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

조선에는 크고작은 호수들도 많으며 수많은 온천과 약수들이 있다.

조선에는 섬도 많다. 제주도처럼 큰 섬도 있고 작은 섬들도 있다.

조선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땅에는 4천여종의 식물들과 5천여종의 동물들이 살고있으며 땅 밑에는 매우 쏟아있는 광물만 하여도 2백여종이나 묻혀있다.

바다와 강과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있는데 그것은 850여종이나 된다.

이처럼 조선은 경치가 아름다워서 명승의 나라로 불리어고있으며 자원이 많아서 보물의 나라로 알려져있다.

그리하여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조선을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불려온다.

조선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조선은 5천여년전에 생겨났다.

예로부터 한피줄을 타고 한강도우에서 살아온 조선인민은 참으로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다.

이 땅을 삼키려던 외래침략자들은 언제나 이 나라 인민들의 뭉친 힘앞에 부딪쳐 쫓겨나고말았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레의가 밝은 인민이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인민이다.

지난날 일본놈들은 조선을 총칼로 빼앗고 조선에서 주인노릇을 하여왔다.

조선인민은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어리신 나이에 나라를 찾기 위한 혁명투쟁에 나서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시고 영웅적 투쟁을 벌려 조국해방의 새 봄을 안아오시였다.

조선에는 조선로동당이 령도하는 인민의 나라가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조선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무릎을 꿇고말았다.

조선은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지난날 가난하고 천대받던 조선인민은 오늘 인민의 락원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조선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다. 남조선에는 미제침략자들이 등지를 틀고있다.

조선인민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단 어

조선	넓이	펼짜기	식물	금수강산
아침	국경	물	동물	력사
나라	바다	호수	광물	자랑
주체	산줄기	온천	물고기	피줄
천리마	산지대	약수	경치	강토
아세아	벌	섬	명승	외래침략자
동쪽	산	자원	보물	폐의
반도	강	땅	령도	아름답다
문화	락원	용감하다	전쟁	풍부하다
창조	행복	삼키다	무릎	오래다
총칼	통일	부딪치다	인민	슬기롭다
주인	등지	쫓겨나다	현명하다	가난하다
투쟁	맑다	밝다	천대받다	갈라지다
혁명	넓다	찬란하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조선의 위치와 땅생김새에 대하여 말하시오.

- 2) 조선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 3) 조선의 북쪽은 어느 나라와 맞닿아있으며 무엇으로 국경을 하고있습니까?
- 4) 조선에서 높은 산줄기와 넓은 벌은 어디에 있습니까?
- 5) 조선의 땅우에는 어떤 자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 6) 사람들은 왜 조선을 금수강산이라고 부릅니까?
- 7) 조선은 언제 생겨났습니까?
- 8) 조선인민은 왜 슬기롭고 용감한 인민이라고 합니까?
- 9) 지난날 일본놈들이 조선을 빼앗았을 때 조선인민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 10)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 11) 조선인민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까?

2. 다음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시오.

- 1) 조선, 반도, 나라, 아름답다, 맑다, 물, 산
- 2)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압록강, 두만강, 쓰련, 중국, 두다, 사이, 둘러싸여있다, 하고있다, 국경, 바다
- 3) 온천, 약수, 호수, 조선, 크다, 작다, 수많다, 있다, 많다
- 4) 물고기, 강, 바다, 호수, 살고있다, 그것은, 850여종, 많다, 된다
- 5) 가난하다, 천대받다, 행복하다, 지난날, 오늘, 살다, 인민, 조선인민, 락원

3.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시오.

- 1) 조선에는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하여...
- 2) 평양에는 주체사상탑, 개선문을 비롯하여...
- 3) 영남이는 몸단련을 위하여...
- 4) 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 5) 조선에서는 어린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6) 육이는 교과서나 학습장에 이르기까지...

4.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다음 문장들의 알맞는 자리에 넣으시오.

(하루빨리, 한아름, 예쁜, 촌살같이, 참으로)

- 1) 산 좋고 물 맑은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이다.
- 2)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있다.
- 3) 상점에 갔던 어머니는 맛있는 과일을 사들고 들어왔다.
- 4) 만경대유회장을 향해 떠난 승용차는 넓은 길로 달려갔다.
- 5) 나는 어머니가 사준 구두를 신고 학교로 갔다.

제2과. 장군님과 소년들

1947년 8월 어느날이었다.

중앙민청에서 학생소년사업을 맡아보고있던 나는 그날 온 나라의 여러곳에서 뽑혀온 100여명의 모범소년단원들을 데리고 금강산에 갔다가 야영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야영을 마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13명의 소년들이 차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잠시 우리 집에 머물러있었다.

그들은 우리 집에 짐을 내려놓기 바쁘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을 뵙게 해달라고 졸라대는것이였다.

창성에서 온 열세살나는 소년은 눈물까지 글썽해서 나를 쳐다보며 «선생님, 먼데서라도 좋아요. 장군님을 뵙게 해주세요.»하고 애원하듯 싶어 조르는것이였다.

소년들은 내 팔을 붙들고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하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정을 못이겨하는 구김새없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소년들의 것처럼 간절한 소원을 해설 몇마디로 딱 막아버릴수는 없었다.

나는 문득 그들의 소원대로 먼데서라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올수 있도록 해볼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하여 나는 그들을 데리고 중앙당으로 갔다.

당중앙위원회청사 앞길에 이르자 나는 정문 맞은켠에 소년들을 줄지어세웠다.

얼마동안 기다렸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어린이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아닌가고 묻곤하였다.

이리던차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달려왔다.

나는 흥분된 가슴을 억누르면서 소년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차라는것을 알려주었다.

차는 곧바로 오다가 중앙당정문으로 돌아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순간, 차나깨나 마음속에 그리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을 뵈게 된 아이들은 질서를 지키겠다던 굳은 약속도 잊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차가 방금 지나간 길 한복판으로 왁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나는 급히 그들을 길옆으로 불러세우고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좀처럼 그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고 청사만 바라다보고있었다.

이때 군관 한 동무가 나오더니 어디서 온 학생들이며 무슨 일로 왔는가를 알아보고 정문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얼마후 다른 간부동지가 나왔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장군님께서 동무들을 만나주시겠습니까.》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소년들은 일제히 《야!》하고 환성을 울리며 서로 손을 마주잡고 깡충깡충 뛰는 것이었다.

소년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무실앞까지 갔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문앞에까지 나와계셨다.

《아, 어린 동무들이 용케 왔구만, 어서들 들어오너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하신 눈길로 어린이들을 바라보시며 어서 앉으라고 자리까지 권하시었다.

소년들은 제각기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첫 줄에 앉은 소년부터 차례로 어데서 왔으며 이름은 무엇인가, 아버지는 뭇하시는가, 식구는 몇인가 등 그들의 집형편을 하나하나 물으시었다.

어린이들은 모두가 활발하고 레절바르게 대답을 올렸다.

맨끝에 앉았던 꼬마의 차례가 되었다.

《학생은 어데서 왔지?》

《창성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무얼하시교?》

《농사를 짓습니다.》

《음, 창성에서 왔다?》

꼬마의 웅골찬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바른손등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었다.

《해방전에 우리가 빨찌산투쟁할 때 창성에도 다녔는데 그때는 소금이 아주 귀했다. …그래 집에서 소금을 어느달에 공급받았지?》

《3월달에 받았습니다.》

소년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양복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시어 무엇인가 적어넣으시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드시고 산업국을 찾으시고는 계속하시여 교통국을 부르시더니 창성군에 소금을 더 보내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다정하신 웃음을 띠우시고 소년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어린 동무들은 모두다 우리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구만 …그래 학생들은 여기가 어딘지 알아?》

《당중앙위원회입니다.》

《웁아, 그런데 로동당은 무엇을 하는 당이지?》

《로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투쟁하는 당입니다.》

《웁아, 웁아! 학생들은 모두 잘 아는군, 참 용해, 그래 이번에 금강산에 가서 잘들 놀고 왔나?》

《예, 잘 놀았습니다.》

소년들의 야영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금강산에는 어디서 보내주었는가고 다정하게 물으시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년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큰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이 다 로동당의 덕분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노래를 들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소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불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박수를 쳐주시며 칭찬을 해주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계를 보시더니 부관을 불러 영화를 두어가지 마련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것이였다.

소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좋아서 어쩔줄을 몰라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가서 영화구경을 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소년들을 량팔에 끼안으시고 회의실로 들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소년들을 곁에 앉히시고 그들을 다정히 쓰

다듬어주시며 무어라 말씀도 하군하시었다.

뒤쪽에 앉았던 나는 영화보다도 소년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친부모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모습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영화가 끝났다.

소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과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도 소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곁을 떨어질줄 몰라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소년들과 헤어지기 아쉬워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오래오래 손을 흔드시며 우리를 바래주시었다.

이날밤 소년들은 밤깊도록 자지 않고 일기장애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은 꿈같은 행복에 대하여 적어넣는 것이었다.

그들은 금강산야영생활의 15일간에 쓴 량보다 더 많은 내용을 썼던 것이다.

소년단원들이 평양을 떠난지 얼마 안되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 그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어떤 편지는 참으로 감격없이 읽을수 없었다.

나는 이미 헤어져간 소년단원들을 향하여, 아니 전체 우리 나라 어린이들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웨쳤다.

(너희들은 마음껏 자랑하여라. 어머니의 품보다 더 따뜻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품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너희들의 앞길은 창창하다!)고.

단 어

야영	모습	수첩	덕분	좋다
집	질서	수화기	노래	간절하다
선생님	청사	로동자	박수	생각하다
애원	군관	농민	영화	기다리다
팔	간부	리익	행복	달려오다

깜사	사무실	대표	고향	타이르다
해설	농사	투쟁	돌아가다	나오다
가슴	소금	약속	머무르다	묻다
따뜻하다	창창하다			

연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소년들은 어디 갔다 돌아오는 길입니까?
- 2) 13명의 아이들은 무엇이라고 즐겼습니까?
- 3) 학생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 4)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무엇부터 물으셨습니까?
- 5)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산업국과 교통국을 찾아 전화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 6)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과 무슨 담화를 하셨습니까?
- 7)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 어떤 사랑을 베풀어주셨습니까?

2. 다음 단어들로 문장을 만드시오.

- 1) 소년, 소원, 없다, 간절하다, 막아버리다, 몇마디, 것처럼, 딱, 해설
- 2) 경애하는 장군님, 금강산, 세상, 아름답다, 보내주다, 묻다, 제일, 어데서, 다정하다
- 3) 경애하는 장군님, 소년들, 일기책, 꿈, 행복, 적어넣다, 이날 밤, 자다, 만나뵈다, 밤깊도록, 앓다, 대하여
- 4) 평양, 소년단원, 고향, 얼마, 자기, 안되다, 떠나다, 나는, 돌아가다, 받다, 그들, 편지

3. 다음 문장들을 완성하십시오.

- 1) 그는 조국에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 2) 나는 어제부터 재미있는 소설책을...

- 3) 나는 어머니와 함께 거리구경을 하면서 천천히...
 - 4) 영철이는 앞선 동무를 따라가기 위하여 주먹을 쥐고...
 - 5) 《같이 가자!》하고 그는 앞서가는 누나를...
4. 이 과를 배우고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시오.

제3과. 혁명의 수도 평양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평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 계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가 있다.

평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가 있다.

평양은 영웅의 도시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침략자들은 평양에 40여만발의 폭탄을 떨어 구어 모든것을 마스코 불태워 재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나 평양시민들은 미제침략자들과 영웅적으로 싸워이겼으며 전쟁이 끝난 그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미국놈들이 100년 걸려도 일어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평양을 몇해안에 아름다운 현대적인 도시로 일떠세웠다.

오늘 평양에는 주체사상탑, 개선문,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2.8문화회관, 만수대예술극장,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 창광원, 빙상관, 청류관, 대성산유원지, 만경대유원지, 평양지하철도 등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수많이 건설되어 영웅도시 평양의 모습을 더욱 새롭게 하고있다.

평양은 과학문화의 도시이다.

해방전에는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평양에 오늘은 수많은 대학들과 과학연구기관이 있으며 화려한 극장들과 영화관, 문화기관들이 있다.

또한 평양에는 가는곳마다 근로자들이 마음껏 즐길수 있는 공원과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려지고있다. 그러기에 평양을 방문한 한 외국사람은 평양을 보고 《도시안에 공원이 있는것이 아니라 공원속에 도시가 있다.》고 말하였다.

평양에는 김종래전기기관차공장,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공장들이 많다. 수도근로자들은 여기에서 자기의 기술, 자기의 원료로 여러가지 기계와 천, 생활필수품을 자기의 손으로 만들고있다.

평양에는 큰 백화점들과 상점, 식당과 양복점, 리발소와 빨래집그리고 병원과 약국 등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위한 시설들이 충분히 꾸려져있다.

평양은 1,500여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이다.

평양에는 대동문, 보통문, 칠성문, 을밀대를 비롯한 고구려의 옛건물들과 고적, 역사유물이 많으며 외래침략자들을 용감히 물리친 인민들의 투쟁력사도 깃들여있다.

오늘 평양시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창광거리, 천리마거리, 락원거리, 문수거리, 비파거리를 비롯한 새 거리들이 일떠서고 현대적 고층건물들의 해빛밝은 창문마다에서는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우리러보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은 국제적 도시이다.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혁명적인 벗들, 여러 분야의 대표단들이 끊임없이 평양에 찾아오고있다.

오늘 평양에서는 국제적인 회의들과 토론회들, 체육경기들이 자주 진행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오늘 주체조국의 수도, 혁명의 수도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있다.

단 어

민주주의	요람	연구
공화국	폭탄	기관
정치	재더미	근로자
경제	부르심	외국사람
중심지	기념비	전기
중앙	건축물	기관차
위원회	모습	방직공장
정부	과학	원료
천	벗	걸리다
필수품	분야	떠벌이다
시설	대표단	일떠서다
옛 건물	회의	새롭다
고적	토론회	부럽다
력사유물	꾸러지다	물리치다
세상	떨구다	따사롭다
통일	마스다	진행되다
지도자	블타다	앞당기다
우러러보다	떨쳐나서다	끊임없다
	힘차다	마음껏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1) 평양은 어떤곳입니까?

2)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침략자들은 평양을 어떻게 파괴하였습니까?

- 3) 평양에는 어떤 기념비적 건물들이 있습니까?
- 4) 평양을 본 한 외국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 5) 수도근로자들은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고있습니까?
- 6)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위한 시설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7) 평양을 왜 력사적 도시라고 합니까?
- 8) 평양에 있는 현대적 거리들은 어떤 거리들입니까?
- 9) 평양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있습니까?
- 10) 평양을 왜 국제적 도시라고 합니까?

2.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다음 문장들의 알맞는 자리에 넣으시오.

(마음껏, 커다랗다, 씩씩하다, 따사롭다, 웅장하다, 기념비적, 용감히, 혁명적)

- 1) 오늘 세계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의 전쟁과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2)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세상에 부러운것 없이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고있다.
- 3)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 4) 평양에는 해마다 웅장한 건물들이 일떠서 수도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있다.
- 5) 평양의 한복판에 건설된 인민대학습당은 매우 화려한 조선식 건물이다.
- 6)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것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한다.
- 7)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품을 그리며 조국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다.
- 8) 우리는 거리에서 노래부르며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대렬을 매일 같이 볼수 있다.

3. 다음 단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조국해방전쟁때, 만들다, 미제침략자, 평양, 재더미, 승리하다, 전쟁, 평양시민, 건설하다, 몇해안에, 도시, 현대적
- 2) 혁명, 수도, 흐르다, 대동강, 아름답다, 한복판, 평양, 들어가다, 조선, 서해
- 3) 중심, 평양, 건설하다, 인민대학습당, 현대적, 제1백화점, 새로, 건물, 수도근로자, 위하다
- 4) 일떠서다, 대동강기슭, 주체사상탑, 새로, 가장, 세계, 높다, 기념탑, 아름답다
- 5) 력사, 평양, 을밀대, 대동문, 1,500여년, 많다, 비롯하다, 있다, 고적, 력사유적, 가지다

4. 평양을 보고 받은 인상에 대하여 말하시오.

제4과. 조선의 네철

조선은 공기와 물이 맑고 날씨가 좋은 맑은 아침의 나라이다.

조선의 한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철로 나누인다.

3월, 4월, 5월은 봄이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과 들에서는 눈이 녹으며 강에서는 얼음이 풀린다.

산과 들에서는 새 싹이 돋아나고 나무가지들에서는 움이 트며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진달래와 개나리꽃이 피고 편이어 살구꽃, 복숭아꽃, 사과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꽃들이 핀다.

꽃들이 한창 필 때면 여러가지 나비들과 벌들이 꽃을 찾아 날아들며 온갖 새들이 즐겁게 봄을 노래한다.

농장원들은 넓은 농장벌에서 트랙또르로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그들은 현대적 농기계로 논에 벼모를 내고 밭에 강냉이모를 옮긴다.

조선인민은 해마다 봄이 오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을 가장 큰 민족적 명절로 맞이하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한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온다. 여름은 6월부터 시작하여 8월까지 계속된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해벌이 내리쬐이고 산과 들에는 나무와 풀들이 무성해지며 넓은 농장벌에서는 벼와 강냉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곡식들이 푸르싱싱 자란다. 그리고 과일나무들에는 과일들이 많이 열린다.

7, 8월이 되면 모든 학교들에서 여름방학이 시작된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은 공장과 농촌을 견학하며 혁명전적지도 답사한다. 그리고 야영소에 가서 즐겁게 휴식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한다.

여름철에는 자주 비가 내린다. 그래서 예로부터 7, 8월은 장마철이라고 하였다.

7월중순부터 8월중순까지는 제일 더운 때이다. 8월중순이 지나면 아침저녁은 선선해지기 시작한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다. 가을은 9월, 10월, 11월이다.

가을이 되면 날씨는 서늘해지고 공기와 시내물은 더욱 맑아진다. 그리고 하늘은 더 높고 푸르러진다.

나무잎들은 누렇게 되었다가 한잎두잎 떨어지기 시작하고 파수원의 과일나무들에는 여러가지 과일들이 무르익는다.

9월중순부터 농장원들은 기계로 가을걷이를 시작한다. 온 들판에 풍년을 맞이한 농장원들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9월 1일부터 온 나라의 모든 학교들에서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고

학교갈 나이가 된 어린이들은 빠짐없이 학교에 들어간다.

조선인민은 해마다 풍년을 맞이한 기쁨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우신 9월 9일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10월 10일을 뜻깊게 기념한다.

10월부터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농장원들은 난알떨기를 다그친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다.

겨울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속된다.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눈이 온다. 거리와 마을, 산과 들에는 흰눈이 덮이고 강물에는 얼음이 언다. 얼음이 두터워지면 학생들은 그우에서 스케트를 타고 눈우에서 스키를 타며 몸을 단련한다.

농장원들은 새해 농사차비를 한다.

12월하순부터 1월하순까지는 1년중 제일 추운 때이다.

1월 1일은 즐거운 설명절이다.

설날아침에 사람들은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여 설인사를 드린다.

새해를 맞이한 근로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하신 새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자기앞에 맡겨진 일을 더 잘할 결의를 굳게 다지며 일터로 나간다.

단 어

네칠	복숭아	씨	풀	야영소
얼음	나비	모	과일	견학
씩	별	벼	민족	답사
가지	숲	강냉이	만수무강	자주
움	농장원	명절	삼가	장마철
진달래	뜨락또르	해별	방학	중순
개나리	논	농장빌	기간	날씨
살구	밭	곡식	전적지	공기

시내물	마을	갈다	설레이다
있	스케트	뿌리다	창건하다
하늘	스키	옮기다	다그치다
과수원	차비	축원하다	덮다
가을걷이	설	무성하다	얼다
들판	결의	열리다	가장
풍년	눅다	떨어지다	푸르싱싱
학년도	풀리다	선선하다	그리고
서리	돈다	단련하다	온갖
난알털기	트다	무르익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왜 조선을 맑은 아침의 나라라고 합니까?
- 2) 봄은 어느달부터 시작되며 봄이 되면 날씨는 어떻습니까?
- 3)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은 무슨 꽃이며 어떤 꽃들이 연이어 피니까?
- 4) 농장원들은 봄에 무슨 일을 합니까?
- 5) 조선인민은 봄에 무슨 명절을 뜻깊게 기념합니까?
- 6) 여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여름에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 7) 여름에는 나무와 풀, 곡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 8) 농장원들은 여름에 무슨 일을 합니까?
- 9) 학생들의 방학은 언제이며 방학때 학생들은 무엇을 합니까?
- 10) 조선에서 제일 더울 때는 언제이며 언제부터 날씨가 선선히 집니까?
- 11) 가을은 언제부터이며 가을이 되면 자연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12) 겨울이 되면 자연은 어떻게 달라지며 학생들은 겨울에 무엇을 합니까?

2. 다음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말로 고치시오.

예:

—농장원들은 기계로 밭을 (갈다) 씨를 (뿌리다) 김을 (매다) 가을걷이를 (하다)

—농장원들은 기계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가을걷이를 합니다.

- 1) (춡다) 겨울이 (가다)(따뜻하다) 봄이 (오다) 산과 들에는 새싹들이 (돋어나다) (아름답다) 꽃이 썩는다.
- 2) 봄에는 눈이 (녹다) (얼다) 강이 (풀리다) 관개수는 (기름지다) 농장벌에 (홀러들다)
- 3) 여름이 (되다) 날씨가 (무덥다) 비가 자주 (내리다) 나무와 풀들이 (무성하다) (자라다)
- 4) (서늘하다) 가을이 (오다) 농장원들은 (무르익다) 과일들과 곡식들을 (거두다)들입니다.
- 5) (춡다) 겨울이 (되다) 농장원들은 다음해 농사차비를 (하다) 학생들은 스케트와 스키를 (타다) 몸을 (단련하다)

3. 다음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오다, 썩, 산, 들, 피다, 아름답다, 농장벌, 농장원, 기계, 밭, 갈다, 하다, 모내기
- 2) 봄, 따뜻하다, 지나가다, 무덥다, 오다, 여름, 비, 내리다, 자주, 산, 들, 나무, 풀, 자라다, 무성하다
- 3) 농장원, 일하다, 여름, 되다, 기름지다, 농장벌, 부지런히, 매다, 주다, 김, 비료, 기계
- 4) 떨어지다, 단풍들다, 되다, 가을, 나무잎, 날씨, 선선해지다, 농장원, 시작하다, 가을걷이
- 5) 눈, 바람, 내리다, 불다, 겨울, 얼다, 강물, 되다, 학생, 스키, 스케트, 눈우, 얼음우, 타다, 단련하다, 몸

4. 본문에서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을 모두 찾아쓰시오.
(예: 덥다—춡다)

5.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적 특징을 말하시오.

제5과. 기쁨

주먹을 부르치고 내달리던 은철은 돌부리에 채워 넘어졌습니다.

《아아—》

그러나 은철이는 땅우에 빠죽 내민 돌을 뽑아 휙 던지고는 다시 냐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자기가 부른 독창이 이제 30분후면 텔레비죤수상기에 소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던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텔레비죤에 나온단말이지.》

눈앞에는 벌써 화면앞에 척 나선 이 은철이를 바라볼 동무들의 부러워하는 얼굴이 떠오릅니다. 너무 기뻐 입을 다물지 못할 할머니의 모습도 보입니다.

들먹이는 가슴을 누르며 뛰어가던 은철이는 그만 개울가에서 멈춰서고말았습니다.

《웬 소리일가?》

졸졸...쪼로록, 쪼로록...

분명 물흐르는 소리입니다.

은철이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니?》

은철이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포전의 논두렁이 조금 무너져 벼포기가 몇대 상하고 그사이로 논물이 개울가로 흐르는것이였습니다.

《어떻게 할가? 저 논두렁을 손질하는 사이면 텔레비죤시간이 지나겠는데...》

저멀리 문화주택의 창가마다에 붉은 석양이 곱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은철이의 마음은 급해났습니다.

《일없어, 농장원아저씨들이 지나가다가 고쳐놓겠지.》

은철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개울을 건너려다가 저도 모르게 주춤서고말았습니다.

졸졸 물소리가 애처롭게 들리는것 같았습니다.

천만톤 알곡고지 높이 쌓아서
나라의 쌀독을 채워가자요.

자기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던 축전무대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다니, 안돼, 축전무대에서 내가 채워가자던 쌀독이 새고 귀중한 낱알들이 흐르는데 그냥 가다니.》

은철이는 졸졸 흐르는 물이 그냥 물같지 않고 쌀알이 흘러 없어지는것처럼 보였던것입니다.

은철이는 눈두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기벼모들아, 내가 잠시나마 잘못 생각했어!》

은철이는 바지를 싹 걷어올리고 논판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온몸이 선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빙긋 웃으며 눈두렁을 고쳐나갑니다. 흙에 묻혔던 아기벼모들도 바로세워주었습니다.

《고마와요. 정말 고마와요.》

바람결에 한들거리는 아기벼모들이 속삭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마의 땀을 문지르는 은철이의 얼굴에는 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렌레비혼은 보지 못했어도 나라의 쌀독을 채워가는 일에 보탬을 주었다는 기쁨이 가슴에 차넘쳤습니다.

단 어

주먹	가슴	노래	던지다
돌	개울	낱알	시작하다
소년	눈두렁	땀	참가하다
예술	벼포기	이마	반갑다

축전	문화주택	웃음	부러워하다
독창	창가	기쁨	보이다
텔레비존	석양	내달리다	둘러보다
화면	쌀독	넘어지다	

연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달리던 은철이는 왜 넘어졌습니까?
- 2) 은철이는 왜 달려갑니까?
- 3) 은철이는 개울가에서 무슨 소리를 들습니까?
- 4) 은철이는 물소리를 듣고 왜 주춤거립니까?
- 5) 은철이는 논두렁의 물이 새는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 6) 은철이는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합니까?
- 7) 논두렁을 다 고쳐놓고난 은철이는 왜 기뻐합니까?

2. 다음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독창, 은철이, 텔레비존수상기, 소식, 부르다, 날아오다, 소개되다, 30분후
- 2) 가슴, 은철이, 개울가, 누르다, 뛰어가다, 서고말다, 들먹이다, 멈칫, 그만
- 3) 창가, 문화주택, 석양, 저멀리, 곱다, 붉다, 시작하다, 물들다
- 4) 축전무대, 은철이, 노래, 쌀독, 나라, 부르다, 씩씩하게, 채워가다

3.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다음 문장들의 알맞는 자리에 넣으시오.

(얼른, 반짝거리다, 호주머니, 무릎, 퍼그나, 꼭, 한아름, 잘)

- 1) 은철이는 축전무대에서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 2) 철이는 할머니가 준 파자를 넣고 동무들과 함께 뛰놀았다.
- 3) 봉남동무는 놓았던 가방을 들고 옷방으로 올라가 숙제를 하였다.
- 4)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거리에 나갔던 동무들이 돌아왔다.

- 5) 철이는 글짓기숙제를 끝내고 동생과 함께 공원에 나갔다.
- 6) 영이는 어머니가 사다준 구두를 신고 학교로 갔다.
- 7) 할머니는 몇년만에 만난 손자의 손을 잡고 너무도 반가워서 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 8) 옥이가 안고 온 꽃묶음속에는 빨간꽃, 노란꽃, 흰꽃 등 여러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다.

4.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시오.

제6과. 영웅의 어머니를 찾으시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어느날 학생들을 이끄시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었다.

기념관은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학생들은 감동에 휩싸여 영웅들의 피묻은 당중앙에 서기도 하고 수많은 별이 새겨진 영웅고사포와 영웅해안포앞에 서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19살의 나 어린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리수복영웅의 사진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레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이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영웅이 남긴 그 불타는 글발을 몇번이나 외워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참 훌륭한 말을 남기었다고 하시면서 참으로 충성심이 집약된 표현이다, 제아무리 명성높은 시인이라도 책상머리에서는 이런 글을 쓸수 없을것이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그속에 참된 영웅전사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그대로 담겨있다고 말씀하시었다.

리수복영웅의 사진앞에서 떠날줄 모르는 학생들에게 강사는 정전직후 영웅의 어머니가 이곳에 찾아왔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다.

영웅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보자 마치 살아돌아온 자식을 만난듯 그 사진을 쓸어만지며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결에서 사람들이 위로하자 영웅의 어머니는 《나를 위로할 생각은 마시우. 나는 슬퍼서 우는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 그게 너무 장하고 기뻐서 읍니다.》라고 말하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울렸다는것이다.

강사의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었다.

리수복영웅이 전선으로 나간것은 우리와 같은 나이때였다. 우리는 농촌의 평범한 고중학생이던 리수복영웅이 어떻게 것처럼 훌륭한 조선의 아들로 자라났는가를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영웅의 어머니도 얼마나 훌륭한 조선의 어머니인가. 우리는 영웅의 어머니를 찾아가 수많은 조선의 아들들이 곁에 있으니 결코 외롭지 않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시면서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을 방문하자고 하시었다.

그리하여 1958년 봄 어느날에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학생들을 이끄시고 리수복영웅의 고향집이 있는 순천군 금천리 송개마을을 찾아가시었다.

영웅의 고향집마당에 들어서니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리수복영웅의 어머니가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영웅의 어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
시며 평양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어머니는 면전에서 이렇게 찾아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서둘러 학생들
에게 방안에 들어가자고 권하였다.

어머니와 마주앉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니의 손을
정답게 꼭 잡으시고 리수복영웅이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배우러 왔으니
우리 동무들에게 영웅의 지난날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시였다.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품이 의젓하고 레질바른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풍모에 이끌려 한동안 우러르다가 《우리 수복이한테 뒤
배울게 있겠수. 그저 보통농촌학생이었다우.》 하면서 영웅이 자라던
시절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해방이 되어 아들이 우리 글을 배우게 되었다고 너무 기
뻐 어쩔줄 몰라하던 이야기며 밤을 밝히며 공부하여 언제나 최우등을
하고 민청사업에도 늘 앞장서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운데서도 특히 학생들을 크게 감동시킨것은 영웅
이 전선으로 떠나던 날에 있었던 사실이었다.

이날 어머니는 해방전 어느해 여름 국수를 사달라고 조르는 철없는
아들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고 쥐여박았던것이 가슴에 맺혀 국수를 사
주려고 했으나 아들은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와서 온 가족과 함께 먹겠
다고 하면서 그대로 기차에 올랐다는것이다.

감동에 잠겨 어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난 학생들은 영웅이 심
어놓았다는 과일나무밑에 가서 우거진 잎새들을 쳐다보기도 하고 전선
으로 떠나던 날 아침에 말끔히 쓸어놓고갔다는 트랙을 조심히 밟아보기
도 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영웅의 고향집 안팎을 차근차근 살펴
보시다가 학생들을 부르시고는 우리가 아들을 대신하여 집을 거두어 어
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남먼저 손수 비자루를 드시고 마당을 쓰시였다.

다른 학생들도 제가끔 일손을 잡았다. 어떤 학생은 울바자를 손질하고 어떤 학생은 삽을 들고 물도랑을 치냈으며 녀학생들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다.

잠깐사이에 벌어진 이 광경에 영웅의 어머니는 줄곧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 시선을 보내며 저 학생은 어찌면 저리도 인정이 깊고 어른스러운가 하고 탄복하였다.

어머니는 뜰안에 들어서시는 첫 순간부터 환하신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으시고 남달리 극진히 대해주시는 그이가 아무래도 보통학생 같지 않았다.

마침내 어머니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에 들어서는 녀학생의 손목을 꼭 잡고 마당을 쓰시는 저 학생이 뉘때 자제분인가고 가만히 물었다.

녀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이었다.

《어머니, 저분은 김일성원수님의 자제분이시예요.》

순간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 어쩔바를 모르다가 《이 늙은것이 눈이 멀었지.》하고 허둥지둥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로 다가가 손에 드신 비자루를 덥석 잡았다.

《이런 변이라고… 귀한분을 내 집에 모셔놓고 마당을 쓰시게 했으니…》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두손을 꼭 감싸잡으시고 말 씀하시었다.

《어머니, 우리는 우리 인민의 자랑인 리수복영웅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친자식처럼 여겨주십시오.

어머니의 집에 왔다가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보고가야 우리 마음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에서 아침마다 마당을 씁니다. 여기와서 이렇게 마당을 한번 쓸어보고 가면 래일아침부러는 마당을 쓸면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한없이 다정한 말씀에 어머니는 끝내 눈

물을 쏟고야말았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그러지 마시라고 거듭 말씀하시었으나 어머니는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건잡지 못하였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너무도 고맙고 분에 넘쳐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어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웅의 어머니라고 만사람앞에 내세워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자제분께서 몸소 찾아오시어 이렇듯 다함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니 이 세상 어떤 어머니가 이런 영광, 이런 행복을 누리랴!

어머니는 자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어머니라고 마음속으로 되이고 또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헤어지시기에 앞서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어머니, 리수복영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 대신 우리가 어머니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의 아들딸들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곳곳이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수령님만을 믿고 더 굳세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신도 아들이라시는 그 뜨거운 말씀에 어머니는 더욱 감격하여 또 다시 눈물을 흘리었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영웅의 집을 나서시었다.

어머니는 동구밖까지 따라나가 바래드리었다. 들길 저멀리 걸어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뽀뽀한 모습을 점도록 바라보는 영웅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가슴벅찬 행복이 어리어 끝없이 물결쳤다.

단 어

기념관	최후	충성심	고향집
감명	걸음	영웅	최우등
감동	청년	사진	소원
당중	생명	웃고름	전선

별	희망	눈굽	뜨락
고사포	행복	강사	올바자
해안포	운명	총격	삼
화구	글발	아들	물도랑
물동이	베풀다	우리르다	더욱
우물	름름하다	귀담아듣다	굳세게
감격	조용히	어른스럽다	망설이다
귀중하다	덤석	속삭이다	의젓하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기념관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큰 감동을 준것은 무엇입니까?
- 2)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리수복영웅이 남긴 글발을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었습니까?
- 3) 기념관을 찾은 영웅의 어머니는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 4) 영웅의 어머니를 만나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었습니까?
- 5)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영웅의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 6) 위대한 수령님의 자제분이심을 뒤늦게 알고 감격한 어머니의 두 손을 감싸잡으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었습니까?
- 7) 영웅의 어머니는 어떤 영광과 기쁨을 받아안았습니까?
- 8)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헤어지기에 앞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 다음 단어를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학생, 감동, 당중, 영웅고사포, 영웅해안포, 별, 영웅, 섰다, 휩싸이다, 새겨지다, 서기도 하다, 수많은, 피물은

- 2) 걸음, 영웅, 사진, 최후, 리수복, 적, 진격로, 부대, 화구, 몸, 학생, 19살, 특히, 나어린, 막다, 열다, 멈추다, 오래도록
- 3) 어머니, 학생, 찾아주다, 방안, 권하다, 먼데서, 서둘러, 들어가다, 이렇게, 고맙다, 하다
- 4) 울바자, 삼, 물도랑, 물동이, 우물, 물, 학생, 녀학생, 어떤, 들다, 이다, 가다, 긴다, 쳐내다, 손질하다

3.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1)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학생들을 이끄시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 2) 영웅의 어머니는 학생들을 반갑게...
- 3)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남먼저 손수 비자루를 드시고 마당을...
- 4)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서는 어머니의 두손을 꼭 감싸잡으시고...

4. 다음 내용을 교과서에서 찾아 골라 쓰시오.

- 1)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어머니와 헤어지면서 하신 말씀
- 2) 리수복영웅이 남긴 말

제7과. 행복한 가정

충남이는 고등중학교 학생이다. 그의 집은 천리마거리 15층아파트에 있다.

창문을 열면 인민문화궁전과 평양체육관이 눈앞에 보이고 보통강 건너편에는 고층살림집들이 우뚝우뚝 솟아난 보통벌이 보인다.

방들에는 현대적 가구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으며 거울같은 방바닥은 골고루 따뜻하다. 그리하여 총남이네 식구들은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추운줄 모르고 산다.

부엌에는 랭동기를 비롯한 부엌세간들이 다 갖추어져있다. 수도에서는 언제나 찬물도 나오고 더운 물도 나오기때문에 부엌일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다.

목욕탕과 위생실도 쓰기 편리하게 잘 꾸려져있다.

총남이네 여섯식구는 이 훌륭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있다.

총남이의 할아버지 나이는 올해 예순여섯이다. 할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가 훨씬 넘었지만 아직 일하신다.

총남이의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 해방전에는 일본놈의 자그마한 공장에서 힘겨운 로동을 하여왔다. 공장의 주인인 일본놈은 할아버지에게 아무런 기술도 배워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하루종일 힘겹게 망치질을 하고 무거운 쇠덩이를 날랐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일본놈들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흘러갔다.

총남이 할아버지는 나라가 해방되자 어느 한 공장의 선반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훌륭하게 일한 그는 공장에서 언제나 칭찬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일하면서 야간기술학교와 공장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배워 훌륭한 기술자로 되었다.

아들과 손자들은 할아버지에게 이제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사랑과 배려에 만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떻게 일을 그만두겠는가고 하면서 매일 공장에 나가신다. 그는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것을 큰 기쁨으로, 자랑으로 생각하고있다.

총남의 할머니는 왜놈의 제사공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

때 충남의 아버지는 세상에 태어난지 한해밖에 안되었다.

어머니를 잃은 그는 고생하면서 자랐다.

충남의 아버지는 매일 먹을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다가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된 조국은 그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충남의 아버지는 건설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건축기사로 되었다.
지금은 도시설계사업소 기사장으로 일하고있다.

충남의 아버지의 가장 큰 희망은 인민들에게 훌륭한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는 수많은 고층살림집들을 설계하였고 건설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날 집이 없어 고생하던 토성량사람들을 위하여 보통강기슭에 훌륭한 천리마거리를 건설하도록 하여주시었을 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충남의 어머니는 어린이옷공장 지배인이며 시대의원이다. 어머니도 해방전에는 머슴군의 딸로 태어나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지주 집 아이보개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다.

해방과 함께 배우기 시작한 그는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한 공장의 지배인이 되었다.

충남의 누이는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한다. 그는 최우등생이며 노래도 잘 불러서 텔레비죤방송에도 여러번 나왔다.

충남의 막내동생은 고등중학교 1학년생인데 최우등생이고 체육을 즐긴다.

충남이네 가정은 온 식구가 모범일군, 모범학생이다.

저녁때면 온 가족이 즐겁게 모여 텔레비죤도 보고 노래도 부른다.

충남이네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다.

단 어

가정 랭동기 멸시 품 경공업

아빠트	부엌세간	선반공	남	최우등생
고층	불편	야간기술학교	젓	모범
살림집	목욕탕	배려	희망	막내
거울	위생실	기계	사업소	행복
방바닥	년로보장	기쁨	지배인	갖추다
식구	시절	제사공장	대의원	느끼다
부엌	천대	목숨	머슴군	편리하다
나르다	태어나다	자라다	듬다	끌고루
보답하다	해마다	고생하다	가득	아무리
언제나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시오.

- 1) 충남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 2) 창문을 열면 무엇이 보인다고 하였습니까?
- 3) 방들은 어떻게 꾸려져있습니까?
- 4) 부엌에는 무엇이 갖추어져있습니까?
- 5) 충남의 집에는 몇식구가 삽니까?
- 6) 할아버지는 나이가 몇입니까?
- 7) 해방전에 할아버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습니까?
- 8) 할아버지는 해방후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여 기술자로 되었습니까?
- 9) 할아버지는 왜 일을 그만둘수 없습니까?
- 10) 할머니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까?
- 11) 충남의 아버지는 몇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까?
- 12) 아버지의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 13) 충남의 어머니는 무슨 대학을 나왔으며 무슨 일을 합니까?
- 14) 충남의 누이와 막내동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오.

2.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다음 문장의 알맞는 자리에 넣으시오.

(월선, 풀고루, 가득, 아무리, 빠짐없이, 이, 언제나, 부엌세간,
위생실, 존경, 모범)

- 1) 로동자인 옥이의 아버지는 하루일을 남먼저 끝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 2) 현대적 거리의 모든 살림집들에는 훌륭한 가구들이 갖추어져 있다.
- 3) 분이의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불러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 4) 살림집들에는 여러개의 방과 목욕탕이 훌륭히 꾸려져있기때문에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 5) 할아버지는 놀러 온 동네어린이들에게 사탕과 과자를 나누어주었다.
- 6) 학급동무들이 참가하였기때문에 짧은 시간에 학교안팎을 깨끗이 청소할수 있었다.
- 7) 용이동무는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다른 동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있다.
- 8) 우리가 수남동무네 집에 찾아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사과를 담은 그릇을 우리앞에 내놓았다.
- 9) 철민동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5시가 지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 10) 학생들은 숙제가 많아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3. 다음의 단어들을 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 1) 어머니, 해방전, 이름자, 모르다, 졸업하다, 해방후, 대학, 한, 지배인, 공장, 지금, 일하고있다, 은덕, 동무
- 2) 충남동무, 학생, 최우등생, 그, 모범, 동생들, 즐기다, 체육, 노래
- 3) 나이, 일하다, 충남동무, 넘다, 월선, 함께, 젊은이, 오늘, 할 아버지, 공장, 나가다, 가르쳐주다

4) 고생하다, 없다, 집, 해방전, 토성랑사람들, 행복하다, 천리마
거리, 살고있다, 고층살림집, 혼롱하다, 오늘

5) 아버지, 잃다, 한살, 어머니, 중남동무, 어머니, 젖, 남, 빈어
먹다, 자라다, 해매다, 거리, 맞이하다, 해방

4. 본문에서 다음의 단어들과 뜻이 반대되는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을 찾으시오.

자기, 불행하다, 시작하다, 일어서다, 얻다, 과거, 좋다, 슬픔,
적다, 알다, 가볍다, 쉽다

5. 본문내용을 간단히 자기 말로 이야기하고 학생의 가정에 대하여 말
하여보시오.

제8과. 심장의 나팔소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친히 지휘하신
당수하자전투때의 일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미친듯이 달려드는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부
대를 당수하자 북쪽산에 배치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지휘하시는 전투에 참가하게 된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가슴은 승리의 신념으로 가득찼다.

그들은 사령부가 자리잡은 산언덕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보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바쳐싸우리라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날이 밝자 수백명의 적들이 당수하자의 외곽길을 따라 자동차와 말
을 타고 미친듯이 기여들고있었다.

유격대원들은 긴장된 속에서 놈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산속의 징적을 깨치며 신호총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요란한 사격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뜻밖의 불벼락을 맞은 적들은 허둥지둥 덤비다가 무리로 쓰러졌다.

유격대의 나팔수는 그것을 내려다보며 환희에 넘쳐 승전의 나팔을 불었다.

산골짜기에는 잠깐동안에 놈들의 시체가 언덕을 이루었다.

그런데 그가운데서 살아남은 적의 기관총이 미친듯이 불을 뿜는 것이었다. 놈들은 나팔소리가 울린 곳을 사령부로 알고 무턱대고 사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사령부에서 적기관총이 있는 곳까지는 불과 200미터가 되나 마나 하였다. 대원들은 일제놈의 기관총을 목표로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위뒤에 숨어 불을 토하는 적기관총은 험사리 소멸되지 않았다. 저주로운 적탄은 그냥 사령부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나팔수의 가슴에는 불덩어리같은 적개심이 뒤번저 올랐다.

(놈들이 우리 사령부를 겨누는구나!)

불던 나팔을 잠시 멈추고 적들을 쏘아보던 나팔수는 땅을 차고 일어났다.

그는 탄우속을 뚫고 사령부 반대쪽 산등성이를 향해 뛰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가 무사하기를 바라는 한마음뿐이었다.

한 200미터 뛰여오니 거기에는 적탄이 날아오지 않았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나팔을 힘차게 불었다.

나팔소리가 산고지에서 랑랑히 울려 퍼지자 적의 기관총탄이 다시 그쪽으로 쏘리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나팔소리가 울리는 곳을 사령부로 안 것이 틀림없었다.

우박치듯 날아오는 적탄은 나팔수가 서있는 그 들레의 솔방울들을 떨구고 나무가지들을 찌어 늘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산등성이에 서있는 굵은 로송나무뒤에 몸을 숨긴 채 그냥 나팔을 불었다.

적탄은 점점 더 맹렬히 달아왔다.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힘을 돋구어 나팔을 불었다. 너무나 숨이 차 가슴이 터져나갈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적탄이 멈춰지기전에는 나팔을 멈추지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사령부에 쏠렸던 적탄이 나팔수 한사람에게만 쏠렸다고 생각하니 숨이 찬 가운데서도 통쾌하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골짜기를 뒤흔드는 만세소리가 터졌다. 어느덧 기관총소리도 멎었다.

나팔수는 그제야 몸을 일으키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미친듯이 불을 뿜던 적기관총은 이미 입을 다물고 골짜기에서는 마지막섬멸전이 벌어지고있었다.

나팔수는 사령부쪽으로 줄달음쳤다.

(사령부가 어찌되었을까?)

그의 머리에는 근심이 사라질줄 몰랐다. 그는 얼마후에 사령부가 무사하다는것을 알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질서하게 도망치는 적들을 모조리 소멸하라고 명령을 내리고계시었다.

그는 온몸에 기운이 뻗치는것을 느끼며 또다시 나팔을 입에 댔다.

나팔소리가 다시 울리며 산골짜기에 메아리쳤다.

대원들은 땀투성이가 된 나팔수를 알아보았다.

《나팔수동무가 살아있었구나!》

대원들은 모두가 얼싸안으며 기뻐하였다.

순간 나팔수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는 나팔을 틀어잡은채 사령부쪽을 우리러보았다.

소나무가지사이로 사령부가 바라보였으며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거연히 서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나팔수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단 어

부대	정적	목표	메아리	천히
배치	총소리	가슴	쓰러지다	미친듯이
사령부	불벼락	불덩어리	날아오다	쉽사리
산언덕	나팔수	산등성이	통쾌하다	저주로운
결의	승전	솔방울	사라지다	맹렬히
자동차	시체	골짜기	기뻐하다	
말	바위	만세소리	뜨겁다	
나팔소리	근심	눈물	흘리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어느 전투때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 대원들은 사령부를 우러러보면서 어떤 결의를 다졌다고 하였습니까?
- 적들은 어떻게 기여들었습니까?
- 신호총소리가 울리자 적들은 어떻게 하였습니다?
- 적들은 왜 나팔소리가 울리는곳에다 미친듯이 기관총을 쏘아냈습니까?
- 탄우속을 뚫고 사령부 반대쪽으로 뛰는 나팔수의 마음은 어떻다고 하였습니다?
- 적탄이 자기에게로 쏠리자 나팔수는 왜 통쾌하게 생각하였습니까?

2. 다음 문장들에서 묶음표안의 단어들을 알맞는 말로 고치시오.

- 날이 (밝다) 수백명의 적들이 당수하자 외궂길을 (따르다) 자동차와 말을 (타다) (미치다) (기여들다)있었다.
- 우박치듯 (날아오다) 적탄은 나팔수가 서있는 그 들레의 솔방울들을 (떨구다) 나무가지들을 (찍다) (늘어지다) 하였다.
- 사령부에 (쏠리다) 적탄이 나팔수 한사람에게만 (쏠리다) (생각

하다) 숨이 (차다) (가운데) 그는 통쾌하였다.

3. 다음의 두 문장들을 하나로 만드시오.

- 1) 영이는 도서관에 갔다. 옥이는 책방에 갔다.
- 2) 영남이가 앞서서 갔다. 그뒤로 순이가 따라갔다.
- 3) 신호총소리가 울리었다. 대원들은 적들을 향해 불벼락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 4) 그는 숨이 차 가슴이 터질것 같았다. 그러나 나팔은 멈출수 없었다.

4. 본문을 자기 말로 간단히 이야기해보시오.

제9과. 대성산유원지

대성산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중심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6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산이다.

대성산은 높이가 서로 다른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 등 6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있다.

대성산기슭에는 혁명렬사릉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혁명을 하다가 먼저 떠나간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여 대성산기슭에 혁명렬사릉의 터를 잡아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혁명렬사릉을 더 훌륭하게 완성하도록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이 려사릉을 찾아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선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고귀한 혁명정신을 배우고있다.

대성산은 우리 인민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지식을 주는 곳이다.

대성산기슭의 오른쪽에는 현대적으로 꾸러진 중앙동물원이 자리잡고있다. 이 동물원에는 범, 사슴, 꿩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는 수백종의 동물들이 있으며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는 희귀한 동물들도 많다.

또한 대성산기슭 왼쪽에는 훌륭하게 꾸러진 중앙식물원이 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가지 나무들과 약초, 꽃들을 비롯하여 수천종의 식물들이 있다.

오늘 동물원과 식물원은 근로자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되고있을 뿐아니라 그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또한 동물원과 식물원은 근로자들에게 자연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는 좋은곳으로 되고있다.

대성산은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을 위하여 현대적으로 꾸러진 하나의 큰 유원지이다.

2천여정보의 넓이를 가진 대성산유원지에는 산허리를 감돌며 뺨은 수십리의 룡환도로와 수백갈래의 작은 길들이 훌륭히 닦아져있다. 사람들은 이 길들을 거닐며 마음껏 즐길수 있다. 그리고 소문봉, 장수봉, 주작봉 등 봉우리들과 장수못, 잉어못 등 연못들에는 조선의 아름다운 민족건축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각들이 건설되어있어 유원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있다.

대성산유원지의 두 골짜기에는 언제나 푸른 물이 가득차있는 동천호와 미천호가 있다. 여기서 우리 근로자들은 배놀이를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긴다. 이 두 호수는 겨울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스케이트장으로 된다.

대성산유원지에는 또한 현대적인 대유회장이 있어 수도근로자들을 더욱 즐겁게 해준다.

유희장에는 관성렬차, 회전비행기, 물미끄럼차를 비롯하여 수많은 유희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이 유희시설을 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젊어지고 그들의 가슴속에는 보다 행복한 앞날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꽃으로 피어난다.

대성산은 우리 인민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산이다.

대성산에는 고구려인민들이 쌓아놓은 산성이 있다. 평양지방을 지키기 위하여 쌓아놓은 이 산성에는 수많은 역사유적들이 있다. 성벽에는 20여개의 성문터와 170여개의 못자리가 있다.

대성산은 또한 외적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이긴 고구려인민들의 투쟁력과 가지가지 아름다운 전설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대성산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을 키워주고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존심을 높여주는 좋은 교양장소로 되고 있다.

지난날 잡초만 우거져 버림받던 대성산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아래 오늘과 같은 인민의 대유원지로 자랑높이 솟았다.

단 어

봉우리	사슴	정각	궁지	키워주다
산허리	식물원	배놀이	잡초	쌓다
렬차	약초	관성렬차	손길	문명하다
묘	자연	유희	총성	버림받다
총성심	애국주의	성벽	걸치다	
동물원	료환도로	성문	교양하다	
범	못	유적	희귀하다	
평	건축술	전설	간직하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대성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 2) 대성산의 혁명렬사릉을 통하여 어떤 교양을 할수 있습니까?
- 3) 대성산이 인민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4) 동물원과 식물원은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는 어떤 동식물이 있습니까?
- 5) 대성산은 왜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됩니까?
- 6) 대성산의 골짜기들과 봉우리들, 련못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7) 대성산에는 어떤 유희시설이 있습니까?
- 8) 대성산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산으로 되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 9) 지난날의 대성산과 오늘의 대성산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2. 다음 문장들을 두개의 문장으로 만드시오.

- 1) 대성산은 혁명의 수도 한북판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6키로메터 떨어진곳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산이다.
- 2)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이 혁명렬사릉을 찾아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선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고귀한 혁명정신을 배우고있다.
- 3) 동물원과 식물원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며 그들에게 자연에 대한 깊은 지식을 주는 좋은곳으로 되고있다.
- 4) 대성산의 여러 봉우리들과 련못에는 조선의 고유한 민족건축미를 자랑하는 정각들이 훌륭히 건설되어있다.
- 5) 대성산에는 고구려가 외적으로부터 평양을 지키기 위하여 쌓은 산성이 있다.

3. 다음 문장들의 뜻을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문장으로 고쳐보시오.

(례:

—대성산은 높이가 서로 다른 여섯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성산의 여섯개 봉우리는 높이가 서로 다릅니다.)

- 1)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을 하다가 먼저 떠나간 전사들을 잊지 못하시어 대성산기슭에 혁명렬사릉의 터를 잡아주시었다.
- 2) 대성산기슭의 오른쪽에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중앙동물원이 자리 잡고 있다.
- 3) 근로자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는 동물원과 식물원은 그들에게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보여주고 있다.
- 4) 대성산유원지에는 산허리를 감돌며 뻗은 수십리의 룬환도로와 수백갈래의 작은 길이 있다.
- 5) 대성산유원지에는 현대적인 대유회장이 건설되어있어 수도권로자들을 더욱 즐겁게 하여준다.

4. 이 과를 배우고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하시오.

제10과. 영광의 땅 회령을 찾아서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시며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영광의 땅 회령을 찾아가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설레었다.

뿡— 경쾌한 기적소리 울리며 쏜살같이 달리는 기차도 오늘따라 왜 이다지 더디게만 느껴지는지…

우리가 오매에도 못잇던 회령땅에 다달은것은 해빛도 눈부신 아침이었다.

두만강의 다정한 물소리도, 높이 솟은 백양나무의 속삭임도, 흐느적거리는 버들숲의 설레임도 이 영광의 땅을 찾은 우리를 반겨맞는듯 하였다.

진달래 만발한 오산덕기슭에 이른 우리는 먼저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앞에 섰다.

오각별 빛나는 군모를 정히 쓰시고 진달래를 정겹게 안으신 어머님의 숭고한 영상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군복깃을 여민 혁띠에 소중히 간직하신 권총과 진달래를 안으신 손에서 빛나는 금반지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권단심 충성다한 어머님의 불멸의 위훈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하고있었다.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철개를 담아 아름답게 피어오른 진달래는 12개의 줄기와 24개의 꽃봉오리, 216개의 꽃송이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강사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키우시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님의 숭고한 영상을 우리러 오래 서있었다.

참으로 김정숙어머님이시야말로 경애하는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그 뜨거운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드님을 찬란한 미래의 태양으로

키워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의 동상앞에 정성담은 꽃다발을 삼가 드리고 숭엄한 생각에 잠겨있던 우리는 강사선생을 따라 사적관으로 향하였다.

사적관에서 우리는 대사하치기전투를 형상한 화폭을 보았다.

자신의 몸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막아나서시여 적들을 쓰아넘기시는 어머니의 거룩한 영상을 우러르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 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다시한번 가슴깊이 새겼다.

사적관의 매 실에서 우리는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투쟁업적을 더 깊이 배울수 있었다.

《동무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모두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모두는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됩시다.》

어머님께서 신념으로 삼으셨던 이 뜻깊은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사적관을 나선 우리는 강사선생을 따라 고향집을 찾았다.

울바자를 두른 추녀났은 초가집이 한눈에 안겨왔다.

《해방전에는 그 어디서나 볼수 있었던 키낮은 이 집은 김정숙어머님께서 탄생하시여 여섯살 되실 때까지 보내신 고향집입니다.》

강사선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당에 들어서니 김정숙어머님의 뜨거운 숨결과 발자취가 그대로 안겨오는듯하여 우리의 가슴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노전을 깬 방안에 놓여있는 소박한 살림도구들, 밑굽이 다 닳아떨어진 함지와 귀뻐어진 물동이들은 가난한 살림살이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어려서부터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불타는 항거의 정신을 키워나가시면서 하루종일 허리 펼새없이 부지런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따라 일하기를 즐겨하시였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비좁은 방안에서 할머님의 일손을 도우시어 등잔불밑에서 삼깍질도 벗겨드리시었다.

어머님의 피눈물나는 어린 시절의 하많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고향집 뜰안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탄생하시어 모진 천대와 억압을 받으며 자라신 어머님이시기에 원썩을 미워하는 마음이 강하셨고 빼앗긴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처럼 뜨거우시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항일전의 나날 꿈결에도 어머니조국땅을 잊지 않으셨기에 백두산기슭의 한 평마루에 서시어 위대한 수령님께 고향땅 회령쪽이 어디인가고 물으시었다.

그토록 고향땅을 그리시었던만 해방의 기쁨이 강산에 차넘치던 나날 전우들이 고향땅 회령에 다녀오실것을 말씀올렸을 때 나라일에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시기 위하여 고향땅을 찾는것도 뒤로 미루시었다.

강사선생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참으로 오산덕기슭의 이 추녀났은 초가집은 빛나는 한생을 위대한 수령님께 고스란히 바쳐 충성다하신 김정숙어머님을 낳은 력사의 집, 영광의 집이다.

고향집을 나선 우리는 어머님께서 어린 시절에 오르시어 작은 짚신 자욱을 무수히 남기신 오산덕으로 올랐다.

오산덕마루에는 사적비가 높이 솟아있었다.

비문에 새겨진 글발을 한자한자 읽어내려가니 소꿉놀이시절부터 나라없고 땅없는 설음을 가슴에 안으시고 종달바구니를 작은 손에 받쳐드시고 나물을 캐시고 이삭을 주으시던 어머님의 어린 시절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가슴은 미여지는듯 아파왔다.

이 오산덕은 참으로 어머님께서 원썩에 대한 증오심을 품으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키우신 뜻깊은 언덕이다.

오산덕을 내린 우리는 대렬을 지어 노래를 부르며 망양나무터를 찾

았다.

망양나루터는 어머님께서 1922년 봄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역땅 북간도로 들어가실 때 건드신 력사의 나루터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는 그날 눈물젖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고향을 떠나는 설음을 참을길 없으시여 눈물을 흘리시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향기 풍겨오는 오산덕과 실버들 늘어선 회령천기슭에 자리잡은 회령거리를 바라보시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라보신 고향땅이었다.

오늘 회령거리를 안고도는 두만강은 그날을 못잊는듯 조용히 설레이며 흐르고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건드셨던 원한의 강 두만강은 오늘 춤추며 노래하는 웃음의 강, 행복의 강으로 변하였고 일제의 구두발밑에서 신음하던 보잘것없는 회령거리는 큰 공장들이 그쫘히 들어서고 대학이 자리잡은 화려하고 웅장한 거리로 되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락원이 어버이수령님 품속에서 태어나 이 땅우에 펼쳐졌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찬란한 향도의 별로 솟아오르시여 눈부신 빛발을 뿌리며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에 황홀한 미래를 펼쳐주거니—

내 한몸 바쳐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부르심따라 변함없는 충성의 길 걷고걸으리라!

회령땅을 떠나면서 우리는 이런 결의를 더욱 굳게 다졌다.

단 어

영광	군모	꽃봉오리	업적
기적소리	미소	꽃송이	해발
기차	군복	폭풍우	신념
해빛	혁띠	미래	숨결
아침	금반지	꽃다발	발자취

진달래	일편단심	생각	물동이
동상	위훈	사적관	등잔불
오각별	절개	투쟁	억압
짚신	숭고하다	이역땅	황홀하다
사적비	따뜻하다	치마폭	한없이
설음	아프다	향도	소중히
중오심	웅장하다	유서깊다	
		다정하다	
		만발하다	

련 습

-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우리는 어디를 찾아간다고 하였습니까?
 - 2) 오산덕에 오른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곳은 어디입니까?
 - 3) 어머니의 동상앞에서 강사선생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 4) 사적관에서 대사하치기전투 화폭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 5) 사적관을 나선 우리는 어디를 찾았습니까?
 - 6) 김정숙어머니의 어린 시절은 어떠하였습니까?
 - 7) 오산덕마루에 높이 솟아있는것은 무엇입니까?
 - 8) 오산덕을 내린 우리는 어디를 찾았습니까?
 - 9) 지난날의 회령거리는 어떠했으며 오늘날의 회령거리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 본문에서 형용사를 3개이상 찾고 그것을 넣어 짧은글을 지으시오.
-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본문에서 찾고 학습장에 곱게 쓰시오.
- 이 과를 배우고 느낀 점을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제11과. 의좋은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형제간의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꼭 손을 맞잡고 그림자처럼 붙어다니었으며 언제 한번 다툼질을 한 일도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아끼고 동생은 형을 사랑하며 힘든 일은 저마다 앞서 하고 먹는데는 저마끔 뒤에 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의 잔손질이나 심부름 같은것은 언제나 다투어가며 했으나 혹 색다른 음식이 생겨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먹으라고 주면 그들은 그것을 저저마다 먹지 않고 몰래 감추어두었다가 서로 더 먹으라고 내주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커서 장가를 들고 어른이 된후에까지도 조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의가 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이 다 어른이 된 뒤의 일이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형제를 불러앉히고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우애깊게 지내니 내 마음은 무척 기쁘다. 세상의 무슨 일이나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일이 잘되는것처럼 형제사이에는 언제나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집안이 잘되는 법이다. 너희들은 끝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말고 의 좋게 잘 살아라.》하고 간곡히 타일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서 아버지, 어머니는 늙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들이 돌아간후 형과 동생은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고 부모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직해지자 형은 동생에게 재산을 나눠주어서 만세간을 나게 하였습니다.

형제가 첫번째로 농사를 따로 지은해 가을이였습니다.

그해 그 마을에는 전에 없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덕에 형과 동생도 농사를 썩 잘 지었습니다.

한창 가을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날 형은 논에 나가서 벼단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사가 괜찮게 되었군. 이만 하면 일년 먹을거야 되구두 남겠지. 동생네두 올해에 농사를 꽤 잘 짓긴 했지만 살림을 새로 시작해서 쓸데가 많을테니까 아마 자기네 농사지은것만 가지고서는 살림이 구차할지도 몰라. 아무래도 우리 농사 지은걸 좀 나눠줘야겠다. 그러나 나눠주겠다고 하면 도저히 받지 않을테니까 몰래 좀 갖다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형은 어느날 밤 자기네 논외 벼단을 슬그머니 날라다가 동생네 벼단더미에 덧붙여주었습니다.

한편 동생은 동생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네는 식구가 많아서 살림이 어려울텐데. 더구나 올해엔 우리 살림을 따루 내주느라구 살림이 좀 빠빠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식구도 많지 않구 농사를 곧잘 지었으니까 우리 농사 지은걸 형님네한테 좀 나눠드려도 넉넉할테지. 그러나 갖다드리면 싫다고 안받으실테니까 몰래 좀 갖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어느날 밤에 자기네 논에서 벼단을 몰래 형네 논으로 날라다주었습니다.

다음날 형과 동생은 각각 자기네 벼단더미를 둘러보고 이상히 생각하였습니다.

분명히 벼단더미가 허룩하게 날라다주었는데 그 벼단이 전에 대로 그냥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저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별일두 다보겠군!》하고 다시 어느날 밤을 타서 각각 자기네 벼단들을 날라다가 서로의 벼단더미에 갖다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날라가고 날라오고 하는 일이 몇번 되풀이된후의 일이
였습니다.

하루밤은 형과 동생이 공교로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길로 벼단을 나
르다가 어둠속에서 돌이 딱 마주치고말았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그동안 날라간 벼단이 도로 제자리에 돌아오
고돌아오고 한 리유를 알아차렸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그들은 서로 감격에 못이기에 《형님》, 《동생》하
고 웨치며 함께 붙들고 한참이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먼저 《형님, 이게 무슨 일이오니까?》하고 형을
나무렸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지지 않고 《네가 정말 이게 무슨 짓이냐?》하고 동
생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형님네는 식구도 많구 한테...》하고 동생이 말하니까 《너
희는 신접살림인데 쓸데가 더 많을것이 아니냐.》하고 형은 역시 경우를
따졌습니다.

《저희는 식구도 적구 괜찮아요. 저희 농사진걸 한 절반 형님네가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묵은 살림이니까 괜찮아. 너희가 곤난할테니까 우리 농사
진걸 한 절반 가져가거라.》

《아니요. 저희것을 가져가십시오.》

《아니다. 우리것을 가져가거라.》

형제는 한참이나 이렇게 저마끔 위해주는 마음으로 옥신각신하였습
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끝끝내 결말을 짓지 못하고 각각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고말았습니다.

그들 형제는 그후에도 이렇게 늘 서로 아끼고 도와주며 한평생을
조그마한 틈도 없이 화목하게 잘살았다고 합니다.

단 어

마을	농사	화목하다	몰래
형제	풍년	늡다	무척
그림자	벼단	호뻗하다	
심부름	살림	구차하다	
어른	식구	나무라다	
우애	밤	비로소	
유언	리유	공교로이	
재산	역시	슬그머니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형제는 언제부터 의가 좋다고 하였습니까?
- 2) 형제는 서로 어떻게 위해주고 사랑해주었습니까?
- 3) 형제를 불러왔던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4) 형은 자기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 5) 동생은 자기 눈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합니까?
- 6) 형제는 밤마다 어떻게 합니까?
- 7) 형제가 서로 날라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 다음의 문장을 두개의 문장으로 만드십시오.

- 1) 그들은 어디를 가도 꼭 손을 맞잡고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언제 다툼질 한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 2) 형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힘든 일은 서로 앞서려고 하였습니다.
- 3) 형제는 심부름은 서로 다투어가며 했으나 음식이 생기면 서로 사양했습니다.
- 4) 형은 어느날 눈에 나가서 벼단들을 호뻗한 마음으로 돌아보며 문득 생각하였습니다.

3. 본문에서 동사를 3개 찾고 그것으로 짧은글을 지으시오.

4. 이 옛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 생활과 결부하여 이야기해보시오.

제12과. 선경으로 꽃피는 땅

...

천삼리는 참으로 아름다운고장이었다.

금강산의 맑은 정기를 담아내고 대지의 젖줄기 되어 관개수 흘러넘치는 무연한 안변벌 한복판을 가로질러 동해에 합치는 남대천의 흐름이 정겹게 안겨왔다. 양지바른 산기슭마다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 마을들이 또한 아름답게 조화되어 한쪽의 그림을 보는듯...

여기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영광의 땅 천삼리다. 봄같이 한창인 트랙트르들의 동음이 울리고 새 봄의 대지곡을 울리는 관현악소리인듯, 초록색 비단필을 펼친듯한 랭상모를 가꾸는 아낙네들로 흥성거리는 풍요한 벌판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이 다 풍요하고 아름다우며 우리 나라 농촌은 가는곳마다가 다 선경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천삼마을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바둑판같은 논배미, 계단식 언덕에 줄지어선 감나무림, 다가서는 모든 풍경이 정말 다 선경이었다.

선경! 산이 좋고 물이 맑아서 선경인가 아니면 만물이 움트고 소생하는 계절이 와서 선경인가... 생각에 잠겨 설레이는 감나무림을 보고 또 보는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졌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금수강산이라 일러왔지만 자연 그대로는 제 아무리 경치가 좋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선경이 될수 없었고 땅이 제 아무리 비옥했어도 자연 그대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였다.

옛적엔 갖아드는 강바닥을 허비는 용드레소리 이 땅에 처량하고 지리도 못살던 천삼마을사람들이 지금은 해마다 논농사, 밭농사, 과일 동산에 만풍년 들어 기쁨도 큰데 앞뒤산은 온통 감동산을 꾸러놓아 그 경치 아름답기 그지 없다. 더구나 이 마을이 감고장으로 알려진 유래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세월을 헤아린다고 한다.

고향을 등지고 정처없이 떠난 발길들이 자연 이곳에 멎어 피나리보 짐들을 풀어놓게 된것이 바로 천삼마을이었다.

그때의 천삼은 앞을 보아도 신통한 밭패기될만한 땅이 없었고 뒤산을 종일토록 해매여도 과일나무 한그루 찾아볼수 없었다. 다만 그 누가 심었던지 몇그루의 감나무가 집오래 굴뚝모퉁이에서 자라고있었다. 아마도 추운 지대에서는 감이 안된다고 하여 굴뚝온기의 덕을 보자는것이였을것이다. 그러나 그 굴뚝모퉁이의 감나무는 2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집오래에서만 맴돌고있었다.

나라의 큰 정사를 돌보셔야 하실 것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이 천삼마을을 찾아주시였다.

집오래의 감나무들을 유심히 눈여겨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감나무는 거름을 안줘도 잘 자라고 벌레가 끼지 않으니 손이 적게 들어 좋고 감은 아이, 어른이 다 좋아하는 맛좋은 과일이라고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고장 기후풍토에 대한 자세한 형편을 헤아리시고 감나무를 굴뚝모퉁이로부터 산으로 옮겨 온 산을 비우지 말고 감나무림을 조성할데 대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막대한 국가적인 물질기술적 방조를 주도록 배려하여주시였다.

이교장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은정에 목이 메어 울었고 좁은 시야를 넓혀주신 수령님의 교시를 기어이 관철하리라고 아이, 어른 온 마을이 달라붙었다. 굴뚝모퉁이의 감나무들은 별을 지나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낮은 산으로부터 좀 높은 산, 그다음은 더 높은 산으로 옮겨갔다.

정각산과 설봉산 기슭도 개간하고 손전등과 양지말의 산들에도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 백수십정보의 감나무밭을 조성하고 집집마다 10그루이상의 감나무를 가꾸어놓았다.

지금온 해마다 수백톤의 감을 따들여 군과 도 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으니 사람들은 이 한 마을의 전변을 놓고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인민이 사는곳이면 그 어떤 험한 산간벽지에도 찾아오시여 그들이 잘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지극한 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온다. 한평생을 하루도 쉬시는 날 없이 기울이시는 거룩한 뜻을 떼어놓고 오늘의 이 전변을 생각할수 있으랴!

천삼마을이 생겨 장구한 세월이 흘렀으나 그 누구도 집오래의 감나무를 한적하게 비어있는 산으로 내어다 감동산으로 꾸러놓을 생각은 못하였으니 산은 옛 그대로의 별거벗은 산이었다.

더구나 이교장 사람들은 자연의 맹목적인 횡포와 번덕을 길들이지 못하여 감나무를 대대적으로 산에다 기르는것을 힘들게만 여겨왔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받은 이교장 사람들은 자연에 예속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갔던것이다.

이 마을 사람들이 힘들인 보람이 커서 또다시 어버이수령님을 자기 마을에 모시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였다.

마침 감철이여서 감나무이파리는 몽땅 떨어지고 새빨강제 익은 감만이 붉게 타는 아침노을인양 앞뒤산을 물들이고있었다. 이 아름답고

풍요한 행복의 동산을 마련해주신 아버지수령님께 감사드리는가 감동산은 더욱 붉게 무르녹아 그 황홀경을 자랑하며 설레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풍만한 감작황에 만족한 웃음을 담뿍 담으시고 이곳 정각산기슭의 감동산에 오르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다부지게 열린 한 감나무옆에 이르시였을 때 농장의 한 일군이 말씀올렸다.

《수령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보신 나무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이 나무에 감이 몇알이나 달렸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짐작으로 400알, 500알, 700알 지어 1,500알까지 달렸을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아니요 800알이요 라고 짝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다녀가신후 저희들이 따서 세여보니 803알이였습니다.》

이 소박한 말을 들으시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호탕하게 웃으시였던지 그 큰 웃음소리가 산울림되어 린근의 강산을 진감하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조금이나마 아버지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행복감에 젖어 눈굽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아버이수령님의 그 큰 웃음속에 논농사, 밭농사 만풍년 들고 감농사 또한 대풍들어 감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잘사는 이고장 인민들을 축하해주시는 자애에 넘치신 아버이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와서 눈시울 또한 뜨거워지는것이였다.

농사군은 세밀해야 하며 농사일이란 알알이 세여보는 습성이 있어야 한다고 늘 타일리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이시다. 전국의 농사를 포기농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주체농법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

이 땅우에 인민의 기쁨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걷고걸으신 그토록 숭고한 뜻과 심혈의 자욱우에 어찌 천삼리만이 오늘의 선경으로 꽃피었으랴.

항일의 간고하였던 싸움의 나날에도 조국의 사과를 맛보지 못한 아동단원들에게 돌려주시는 아버이사랑이 잇닿아 중부이남지대에서만 자란다는 감나무도 오늘은 산으로 오르고 북으로 북으로 뻗어 자기의 분포도

를 넓혀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백리과원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계시여 우리나라는 방방곡곡 이르는곳마다에 백과주령지는 청춘과원이 펼쳐졌다.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바다도 밀려나가 금파만경이 바다처럼 설레이고 흐르던 물도 거슬러올라 구름으로 허리감긴 다락밭에 생명수넘치는 판개의 나라 되어 자연본래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고삭은 초가집들은 자취를 감추고 변화한 도시를 따라 다층건물과 문화주택들이 즐비하여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 왔던 한 외국손님은 조선에서 자동차를 타고 먼길을 여행하여도 그냥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때문에 그 경치에 눈이 팔려 피곤한줄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모든 외국손님들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감탄을 자아내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나라》, 《선경으로 꽃피는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참말로 우리 나라는 그 어디를 가보나 가는곳마다가 다 선경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으로 이 땅우에 부강한 사회주의공업의 나라, 곡창의 나라, 과수의 나라로 전변된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지상락원이 펼쳐졌다.

우리 나라는 오늘의 선경도 좋지만 래일의 조국은 더더욱 아름다운 선경으로 될것이다. 그날을 그려보는 나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더욱 뜨거웠다.

단 어

정기	계절	번덕	농사일	무연하다
젓줄기	용드레	예속	포화	정겹다
판개수	유래	요구	방방곡곡	오붓하다
뜨락또르	세월	개조	경치	풍요하다

랭상모	기후	보람	초가집	한량없다
감나무	굴뚝	진감	락원	무르녹다
풍경	한평생	산울림	금지	온통
선경	황포	눈시울	자부심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천삼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2) 천삼리의 앞뒤산에는 무슨 동산을 꾸려놓았습니까?
- 3) 천삼리는 언제부터 감고장으로 되었습니까?
- 4) 감나무는 처음 어디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까?
- 5) 처음 천삼리를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감나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시었습니까?
- 6) 천삼리에서는 얼마만한 감동산을 꾸려놓았습니까?
- 7) 사람들은 어느 한 감나무에 감이 몇알 열렸다고 하였습니까?
- 8)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몇알이라고 하시었으며 따서 세여보니 몇알이라고 하였습니까?

2. 다음의 두 문장을 이어서 한문장으로 만드시오.

- 1) 동쪽을 바라보면 산이다. 서쪽을 바라보면 벌이다.
- 2) 해방전 지난날 이 마을은 가난하였다. 오늘 이 마을은 풍족하여졌다.
- 3) 뒤동산에는 감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마을은 더 아름답다.
- 4) 해방전에는 감나무가 굴뚝모퉁이에서 자랐다. 지금은 감나무가 산으로 올라갔다.
- 5) 감은 어른들도 맛있어 한다. 또한 아이들도 좋아한다.

3. 다음 문장을 두개 문장으로 만드시오.

- 1) 프락또르소리가 우렁차니 종달새가 잠을 깬다.
- 2) 한쪽에는 높은 산이 우뚝 서있고 한쪽으로는 맑은 물이 흐른다.

3) 예로부터 우리 나라는 금수강산이라 불리왔지만 해방전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행복을 주지 못했다.

4) 정각산과 설봉산 기슭도 개간하고 손전등과 양지말의 산들에도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 백수십정보의 감나무밭을 조성하고 집집마다 10그루이상의 감나무를 가꾸어놓았다.

4. 다음 문장을 학습장에 곱게 쓰시오.

금강산의 맑은 정기를 담아내고 대지의 젖줄기되어 판개수 흘러 넘치는 무연한 안변벌 한복판을 가로질러 동해에 합치는 남대천의 흐름이 정겹게 안겨왔다. 양지바른 산기슭마다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마을들이 또한 아름답게 조화되어 한쪽의 그림을 보는듯...

제13과. 미제를 천백배 복수하리라 !

분노의 땅 신천, 원한서린 원암리 밤나무골의 두개의 화약창고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속에서 단 두 어린이가 기적과 같이 살아남았다는것도 사람들은 기억할것이다. 나는 바로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어릴적 기억에는 정도가 있고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진다고들 하지만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찌 몸서리치는 그날을 잊을수 있으랴 !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지난 어느 한 시기에 앵겔스는 영국군대를 가장 야수적인 군대라고 불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독일파쇼군대는 그 야수성에 있어서 영국군대를 능가하였다.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서는 그 당시 히틀러약당이 감행한 만행보다 더 악독하고 더 무서운 만행을 상상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조선에서 양키들은 히틀러도배를 훨씬 더 능가하였다.》

참으로 미제침략자들은 살인귀이며 야만이며 승냥이이다.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 후퇴시기 신천땅에 기여든 미제승냥이놈들은 며칠사이에 내 고향을 피바다에 잠그었다.

불행은 우리 집에도 닥쳐왔다.

아버지를 학살한 원쑤놈들은 어머니와 우리 세 형제마저 밤나무골 화약창고에 끌고갔다. 거기엔 벌써 수백명의 어머니와 어린이들이 끌려와있었다.

놈들은 며칠이 지나도록 물 한모금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굶주린 승냥이낫잡을 한 미제침략군 장교 한놈이 창고에 나타나 뭐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졸병놈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어머니들의 품에서 어린것들을 떼냈다. 어린이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맞서는 어머니들을 총탄으로 마구 때려눕히고 어머니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어린것들을 사정없이 남아채여 옷창고에 내던졌다.

나도 어머니를 빼앗기고 옷창고로 끌려갔다.

후에 안 일이지만 이놈이 살인귀 해리슨이라는놈이었다. 이놈은 아이들이 어머니품에 안겨있는것은 너무 행복스러운 일이라고 지껄이면서 따로 갈라 가두라고 호통쳤던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악독한 짐승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린것들은 애타게 엄마를 부르며 창고벽을 마구 허비였다. 손끝은 모지라지고 피가 터졌다. 그자리에 쓰러지는 어린이도 있었다.

승냥이놈들은 배고파서 울부짖는 철부지들에게 물이라고 하면서 휘발유를 주었다. 물과 휘발유를 가려볼줄 모르는 어린것들이 휘발유를 마시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칠 때 미제놈들은 재미있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놈들의 만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인민군대의 포소리가 쿵쿵 울려오기 시작한 어느날 놈들은 휘발유통과 불뭉치를 들고 달려들었다.

이 승냥이놈들은 두 창고안에 휘발유를 마구 쏟아붓고 불뭉치를 던

졌으며 그것도 성차지 않아 총을 쏘고 수류탄까지 던졌다.

창고안은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했다. 나도 너무 놀라 악 소리를 지르며 한 모퉁이로 기여가 쓰러지고말았다....

내가 정신을 차린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쓰러진 아이들이 내우에 덮혀 밀바닥에 깔린 나는 불에 타지 않고 숨이 붙어있었던것이다.

이리하여 마을사람들 손에 구원된 나는 그후 아버지수령님의 따뜻한 보살피심을 받으며 아무 근심걱정 모르고 자라게 되었고 해주혁명학원에서 배우게 되었다.

영원히 잊지 못할 1962년 1월 30일.

나는 그렇게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나는 이날 학원을 찾으신 아버지수령님께 향기그윽한 꽃뭉음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넓고도 뜨거운 품에 나를 꼭 안아주셨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에게 이제라도 총을 쏠수 있는가 물으시고 공부도 잘하고 총쏘는 법도 잘 배워 아버지, 어머니의 원쭈를 기어이 갚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학원을 졸업한 나는 인민군대에 입대할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나는 군복을 입던 날 고향 신천땅을 찾았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원한서린 그 400어머니무덤과 102어린이무덤 앞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가슴속에선 뜨거운것이 솟구쳤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니 여기 잠드신 어머니들과 동생들! 나는 어머니들과 동생들의 복수를 위해 총을 잡으러 갑니다.)

나는 뜨겁게 맹세다졌다. ...

그때로부터 퍼 오랜 세월이 흘러 강산은 변했지만 오직 변치 않은 것은 침략자 미제의 승냥이본성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것은 우리가 겨누는 파녁이다.

미제는 아직도 남녘땅에 도사리고 우리 행복을 또다시 짓밟으려고 날뛰고있다.

그러나 안된다!

나는 놈들을 향해 힘차게 웨친다.

《미제승냥이놈들아, 똑똑히 기억하라. 네놈들이 죽이려던 상원이는 지금 복수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쥐고 네놈들의 숨통을 겨누고있다. 네놈들을 남녘땅에서 쫓아버리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할 때까지 아니 이 세상에서 네놈들이 멸망할 때까지 우리는 대를 이어 싸워나갈것이다!》
라고—

단 어

복수	휘발유	파녀
원한	너털웃음	총창
화약	만행	멸망
창고	총	내던지다
살인귀	수류탄	빼앗기다
야만	생지옥	그윽하다
불행	꽃뭉음	마구
장교	원쑤	영원히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 2)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 후퇴시기에 미제승냥이놈들은 어디로 기여들었다고 하였습니까?
- 3) 그는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 4) 그러던 어느날 장교놈은 또 어떤 만행을 하였습니까?
- 5) 미제놈들은 배가 고파서 우는 어린것들에게 물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6) 인민군대의 포소리가 들려오자 놈들은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르
니까?

7)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니까?

8) 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은것은 언제입니까?

9) 아버지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0) 그는 군복을 입던 날 어디를 찾았다고 하였습니까?

2. 다음의 단어, 표현과 뜻이 같거나 비슷한 말을 찾아쓰시오.

악독하다, 지껄이다, 성장하다, 울부짖다, 원한서린 지난날, 굶
주린 승냥이

3. 다음의 문장들을 간접유김법의 형태로 고치시오.

(례:

—《동무는 신천에 가보았습니까?》하고 그는 물었다.

—동무는 신천에 가보았는가고 그는 물었다.)

1) 《이 동무가 불타는 창고에서 살아남은 두 어린이중의 한사람입
니다.》

사진을 가리키면서 강사는 말하였다.

2) 《여기가 바로 400어머니무덤과 102어린이무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뜩이고있었다.

3) 《이 책에다 감상문을 쓰겠습니다.》

나는 격분을 누르면서 펜을 들었다.

4) 《하루빨리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조선사람 누구나 한결같이 말한다.

4. 이 파를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시오.

제14과. 《조선은 나의 제2조국》

어느날이었다.

천리마합홍의학대학병원에 심한 환자 한사람이 구급차에 실려 들어왔다. 그는 흥남항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짐배의 기관장 포티오스였다.

환자는 오래동안 앓던 위병이 갑자기 더 심해지면서 움직이지 못했다.

병이 심하기때문에 곧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였다.

병원의사들은 수술하여야 병을 고칠수 있다고 환자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하여달라고 했다.

그리는사이에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환자의 병은 시간이 감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

실험결과는 환자의 몸에 피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그대로 두면 환자는 하루를 넘길수 없었다.

의사들은 수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환자를 살릴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환자에게 수술해야 한다는것을 말했다.

그때에야 환자는 자기네 선장과 의논해보라고 하였다.

병원에서는 곧 선장을 병원으로 불렀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선장이 도착하였다.

환자의 병이 매우 심하다는것을 알게 된 선장은 곧 수술하여줄것을 의사들에게 부탁하였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술은 생각하였던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지만 의사들은 훌륭히 해냈다.

수술은 성과적으로 끝났으나 의사들과 간호원들은 며칠동안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하였다.

환자의 건강은 날마다 점점 좋아졌다.

어느날 환자는 수술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기를 맡아 치료해주는 의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의사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내가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것은 많은 수술비를 물수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술비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걸 정말 꿈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당신들은 자기 자식들보다도 더 친절히 정성껏 환자를 치료하며 간호해주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과 의사, 환자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몇가지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 해주었다.

환자는 입원실 앞벽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한동안 우러러보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여러날이 지나갔다.

그동안 환자는 많은것을 보고 들었는데 모든것이 놀라기만 하였다.

환자는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물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하나도 내지 않고 치료를 받으며 모든 청소년들이 나라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한다는것이 정말인가? 거리에 훌륭하게 건설된 많은 아파트들에서 로동자들도 산다는것이 사실인가? 정말 세금이 없는가? 어떻게 하여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가? 이렇게 훌륭한 병원의 좋은 방에 로동자들도 입원할수 있는가? ... 물음은 끝이 없었다.

의사, 간호원들은 그의 모든 물음에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하여주었다.

어느날 환자는 의사에게 병원의 력사가 얼마나 오래가고 물었다.

의사는 병원이 전쟁전부터 있었지만 전쟁때에 미국놈들이 폭격하여 재더미로 만들었기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든것을 새로 지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환자는 미국놈들은 병원까지도 다 마흔 아주 나쁜놈들이라고 욕하였다.

잠시 아무 말도 없던 환자는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탄 배가 미국의 필라델피아항에 머물렀을 때였다.

그는 갑자기 아래배가 몹시 아팠다.

시내의 어느 한 병원에 실려가서 진찰을 받으니 충수염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사람의 목숨보다도 돈을 먼저 생각하는 미국의사들은 수술을 되는 대로 했다.

그후 많은 돈을 주고 한달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는 더 치료받을수 없어서 수술자리가 아물지도 않은채 퇴원하고 말았다.

《보십시오. 그놈들이 수술한 자리가 이렇게 크게 남아있습니다. 개 같은놈들...》

환자는 이렇게 말하며 어른의 손바닥보다도 큰 수술자리를 보여주었다.

《나는 죽었다가 조선에서 다시 태어난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 몸에는 조선사람들의 피가 절반이상이나 섞여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외국사람이면서 조선사람입니다. 조선은 나의 제2조국입니다.》

이것은 그가 한 마음속의 말이였다.

의사와 간호원들의 성의있는 치료와 간호로 환자는 병이 깨끗이 나아 퇴원하게 되었다.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날 의사는 환자에게 2천여원이나 되는 치료

비를 하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꿈과 같은 소리를 들은 그는 너무도 감격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이날 밤부터 포티오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올리는 감사의 편지를 썼다.

포티오스가 퇴원하는 날이 왔다.

이날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은 퇴원하는 포티오스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포티오스는 이 자리에서 자기가 쓴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는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읽는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포티오스는 끝으로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께 꼭 올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단 어

의학대학	선장	손바닥	아물다
구급차	부모	성의	섞다
항	자식	꿈	퍼그나
짐배	보건정책	심하다	절대로
기관장	장학금	신다	정성껏
위병	세금	머무르다	갑자기
실험	재더미	의논하다	전혀
결과	총수염	욕하다	

련 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대학병원에 실려온 환자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이며 무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까?
- 2) 환자는 수술을 거절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3) 환자에 대한 실험자료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4) 환자에 대한 수술이 끝난 다음 의사와 간호원들은 그를 어떻게 치료하였습니까?

5) 환자가 처음에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것은 무엇때문이었습니까?

6) 환자의 배에 있는 큰 수술자리는 어디에서 무슨 병때문에 어떻게 수술받은 자리입니까?

7) 환자는 왜 조선을 자기의 제2조국이라고 말했습니까?

8)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환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9) 퇴원하는 날 의사와 간호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환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 본문에 쓰인 형용사를 모두 찾아내고 그것으로 문장을 세개이상 만드시오.

3. 본문에 쓰인 다음의 단어들과 뜻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아는데 까지 찾아쓰고 그것으로 문장을 지으시오.

도착하다, 어렵다, 굶히다, 태어나다

4. 다음의 문장들을 직접 옮겨쓰고 고치시오.

(레:

- 병원의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술을 해야 합니다.»하고 병원의사들은 말하였다.)

1) 환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2) 어느날 환자는 의사에게 자기가 입원한 병원의 력사가 얼마나 오래가고 물었습니다.

3) 포티오스는 자기가 쓴 감사편지를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 꼭 올려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습니다.

제15과. 조선은 하나다

조선은 반만년의 오랜 역사와 훌륭한 민족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이다.

조선인민은 먼 옛날부터 아름다운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한 가지 말을 하며 자기의 민족문화를 찬란히 꽃피우면서 화목하게 살아왔다.

외래침략자들은 오래전부터 조선을 자기들의 식민지로, 부지런하고 용감한 조선인민을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조선을 침략해왔다.

침략과 전쟁만을 일삼아온 미제침략자들은 1866년에 침략선 《사만》호를 끌고 대동강에 기여들었던 때로부터 100여년동안 조선에 대한 침략을 계속해왔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1910년에 조선을 강점하고 36년동안이나 조선에서 주인노릇을 하면서 조선인민을 착취하였다.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어리신 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조국의 광복과 조선인민의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국을 해방하시였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해방된 조국땅에 높이 모신 조선인민의 기쁨과 자랑은 온 강산에 차고넘쳤다.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새 조선 건설의 우렁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선에 대한 100여년의 침략력사를 가진 미제승

양이놈들이 또다시 조선의 절반땅에 기여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남조선의 경제를 파괴하였으며 인민들을 마구 잡아가두고 죽였다.

놈들은 가는곳마다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청장년들을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피뢰군에 몰아넣었다.

조선땅의 허리에는 가시철조망을 늘어놓고 북과 남의 인민들이 서로 다닐수 없게 만들었으며 편지도 주고받을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예로부터 한나라였던 조선땅은 둘로 갈라지고 한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인민은 헤어져 살게 되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갈라진 첫날부터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옳은 방침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많이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피뢰도당은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반대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 애쓰고있을 때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피뢰들은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끊임없이 해왔다.

오래동안 전쟁준비를 해온 미제침략자들은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조선인민은 3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원수를 물리치고 조국땅을 지키는 영웅적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제침략자들은 영웅적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선전쟁에서 진 미제침략자들은 그후에도 계속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기회를 노려왔지만 결코 저들의 헛된 꿈을 실현할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을 영원히 두개로 갈라놓고 남조선만이라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어보려고 <두개 조선> 정책을 쓰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토와 민족을 두개로 갈라놓은 때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한세대가 바뀌고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모르고 할아버지는 손자가 태어난것조차 알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조선의 현실이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것때문에 조선인민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은 더욱더 커가고있다.

나라와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하루빨리 없애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그것은 오늘 북과 남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서로 다른 사상과 체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공화국을 세우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우는 공화국의 이름까지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라고 하는것이 좋다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통일방안에 따라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그렇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민족도 하나이다.

조선은 절대로 둘로 갈라질수 없으며 조선인민은 더는 헤어져 살수 없다.

그 어떤놈도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하나의 강토이며 하나의 민족인 조선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다.

조선은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통일되어야 한다.

단 어

강토	원칙	념원	물리치다
식민지	평화	피출	노리다

노예	방침	겨레	겪다
침략선	도당	쾌불	찬란히
태양	무릎	화목하다	마침내
기치	세대	부지런하다	드디어
군사기지	고통	슬기롭다	결코
피뢰	방법	애쓰다	

연습

1. 다음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 1) 조선인민은 먼 옛날부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 2) 외래침략자들은 왜 조선을 침략하였습니까?
 - 3) 미제의 조선에 대한 100여년의 침략력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4) 일본침략자들은 언제 조선을 침략하여 몇년동안 조선에서 무슨 노릇을 하였습니까?
 - 5)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 기여든 첫날부터 어떤 짓을 하였습니까?
 - 9)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조국통일을 위하여 내놓은 방침은 무엇입니까?
 - 7) 미제침략자들은 왜 《두개 조선》정책을 쓰고있습니까?
 - 8)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새로운 조국통일방안은 무엇입니까?
 - 9)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은 무엇입니까?
2. 본문에서 동사를 모두 찾고 그것을 리용하여 문장을 3개이상 만드시오.
3. 형용사 《슬기롭다》, 《찬란하다》를 넣어 각각 세 문장으로 되는 짧은 글을 지으시오.
4. 다음의 두 문장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시오.
 - 1) 미제침략자들은 100여년동안 조선을 침략해왔다. 미제침략자들

은 해방후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었다.

- 2)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를 해왔다. 놈들은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을 일으켰다.
- 3)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나라가 갈라진 첫 날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옳은 방침을 내놓았다. 전체 조선인민은 당과 정부의 조국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였다.
- 4) 미제는 조선인민의 첫째가는 원수이다. 조선인민은 하나로 뭉쳐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쫓아내야 한다.
- 5)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이 방안에 따라 실현되어야 한다.

Zakład Dalekiego Wschodu
Instytut Orientalistyczny UW

조 선 어
(외국인학교 중등반용)

집 필	리갑재, 안옥규, 립왕성	교 정	류금이
편 집	배성렬	장 정	리창흠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인 쇄	1988년 7월 30일	발 행	1988년 8월 10일 2판
보-88-2-6		값 1원 70전	500부

55



